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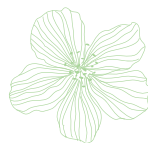
겨울 · 봄 · 여름 · 가을 그리고 도서관

— 시기별 도서관 서비스 방안 —

임성관 · 서성남 · 이한숙 · 이계숙 · 이송자



Global Inspiration
경기도사이버도서관



겨울 · 봄 · 여름 · 가을
그리고 도서관

－ 시기별 도서관 서비스 방안 －

임성관 · 서성남 · 이한숙 · 이계숙 · 이송자



Global Inspiration
경기도 사이버 도서관



경기도도서관총서 7

겨울 · 봄 · 여름 · 가을
그리고 도서관

- 시기별 도서관 서비스 방안 -



Contents

들어가기 - 도서관의 사계(四季)

1장 - 겨울, 시민들과의 만남을 준비하는 도서관

1. 겨울, 그리고 도서관	10
2. 국내 공공도서관 운영 사례 : 12월-2월	26
3. 프로그램 운영 제안	31

2장 - 봄, 시민들 마음에 도서관을 심다

1. 봄, 그리고 도서관	56
2. 국내 공공도서관 운영 사례 : 3월-5월	58
3. 프로그램 운영 제안	60

3장 - 여름, 도서관과 열렬한 사랑에 빠지다

1. 여름, 그리고 도서관	102
2. 국내 공공도서관 운영 사례 : 6월-8월	103
3. 프로그램 운영 제안	107

4장 - 가을, 도서관에 물들다

1. 가을, 그리고 도서관	128
2. 국내 공공도서관 운영 사례 : 9월-11월	130
3. 프로그램 운영 제안	133

5장 - 다시 겨울, 향연을 위한 준비

1. 상황별 서비스 제안	160
2. 주제별 서비스 제안	169
3. 해외 공공도서관 운영 사례	183

나가기 - 시민들, 도서관과 만나다

부록 - 1년 행사(국경일·기념일·명절·절기)

달력 및 도서관 행사 달력



들어가기 - 도서관의 사계(四季)

계절의 변화는 더불어 많은 것들의 변화를 수반한다. 기후는 물론이고 사람들의 차림새, 집안의 인테리어, 많이 팔리는 음식과 유행하는 노래 등에 이르기까지 계절의 영향을 받는 것은 많다. 따라서 어떤 분야이든 계절은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 가운데 하나이다. 물론 계절의 영향에서 자유로운 일과 장소도 있겠지만, 그런 곳들이 선뜻 떠오르지 않는 것을 보면 그 영향력이 얼마나 강한지 짐작할 수 있다.

도서관 역시 계절의 변화에 따른 서비스를 실시해야 하는 곳이다. 왜냐하면 주변의 자연이 변해가듯 이용자들 또한 그 색깔에 물들고, 그 색깔과 향기에 이끌려 도서관을 찾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도서관 역시 그에 맞는 서비스를 실시해야 한다. 즉, 봄에는 봄에 맞는 옷을 입고 겨울에는 겨울에 맞는 색깔로 이용자들을 맞이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마치 카멜레온처럼 주변 환경에 맞춰 자신의 색깔을 바꾼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우선 변화를 꾀할 수 있을 만큼의 자원을 갖고 있어야 하고, 이어서 민감성과 신속성, 나아가 자연스럽기도 해야 한다. 이어서 변화를 꾀하는 일이 하루아침에 갑작스레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 조금씩이나마 적용을 시켜나가면서 더 나은 방향으로의 모색이 되어 왔어야 한다. 그래야 이미 갖고 있는 옷장의 옷들을 갈아입듯 자연스러울 테니까.

그러나 그동안 도서관은 다채롭지 못했다. 스펙트럼(spectrum)이 다양하지 못해서인지 시민들을 이끄는 트렌드 세터(trend-setter)로서의 역할도 해내지 못했다. 또한 도서관의 수는 날로 늘어가고 있지만, 자신만의 브랜드를 개발해 내지 못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도서관의 역할이 무엇인지, 도서관이 할 수 있으며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을 확실히 심어주지 못했다. 그런데 이런 인식은 도서관 수가 늘고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한다고 해서 쉽게 개선되는 것이 아니다. 시간이 흘러간다고 해서 자연스레 바뀌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도서관은, 도서관의 운영자들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도서관 본연의 자원을 활용해 운영 목적에 맞는 서비스를 어떻게 실시해 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시기별·주제별·상황별로 어떻게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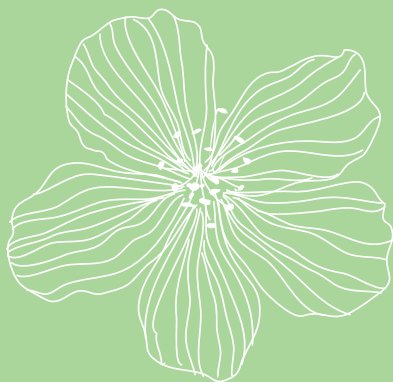
가에 대해서.

「겨울·봄·여름·가을, 그리고 도서관」은 그런 고민에서부터 출발한 것이다. 문헌정보학을 전공하고, 도서관 현장에서 일하며, 도서관이 시민들 곁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있는 점을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모여, 도서관이 제공할 수 있는 전문적인 서비스들을 다각도로 모색해 같은 부분을 고민하는 분들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자는 취지였다. 그런 목적이 이렇게 한 권의 총서로 태어나게 된 것이다.

이 총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각 장들은 네 개의 계절이 순환을 하는 것처럼 겨울부터 시작을 해서 봄과 여름, 가을을 지나 다시 겨울로 돌아오도록 구성을 했다. 먼저 1장에서는 ‘겨울, 시민들과의 만남을 준비하는 도서관’이라는 제목을 달고, 1년 중 12월부터 2월까지의 도서관을 담았다. 이어서 2장에서는 ‘봄, 시민들 마음에 도서관을 심다’라는 제목 하에 3월부터 5월까지를, 3장에서는 ‘여름, 도서관과 열렬한 사랑에 빠지다’라는 제목과 함께 6월부터 8월까지를, 4장에서는 ‘가을, 도서관에 물들다’라는 제목으로 9월부터 11월까지를 다루었다. 나아가 마지막 5장에서는 다시 겨울로 돌아가 4장까지 다루지 못한 주제와 상황별로 운영할 수 있는 도서관 서비스 방안을 모색해 제시를 했다. 구성을 해나가면서 혹시 더 신선하면서 유익한 프로그램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여러 책들과 논문, 연구보고서들을 찾아본 것은 물론, 전국의 여러 도서관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기도 했는데, 문화프로그램과 행사들이 대동소이하다는 점에서는 실망을 금치 못한 면도 있다. 하지만 이는 우리가 모색하고 제안해야 할 범위가 넓다는 측면으로 받아들이고, 그만큼 좋은 프로그램들과 서비스 방안들을 제시해야겠다는 의지를 다지게 만들어주기도 했다. 그렇게 꾸린 시기별·주제별·상황별 프로그램은 도서관의 현 실정을 감안해 실시해 볼 수 있는 것들만 제안하려 했으니, 미처 다루지 못한 측면은 스스로 응용을 하는 적극성을 발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나아가 제안한 프로그램을 도서관 현장에서 접목해 본 곳들이 있다면 그 성과에 대해서 피드백도 보내주셨으면 한다.

도서관의 색깔을 닮은

연구진 일동



겨울 · 봄 · 여름 · 가을 그리고 도서관



01

겨울, 시민들과의 만남을
준비하는 도서관

01



겨울, 시민들과의 만남을 준비하는 도서관

겨울이 오면 봄이 멀지 않으리.

– Percy Bysshe Shelley–

보통 사람들은 겨울을 1년 중 마지막 계절이라고 한다. 시작과 끝이라는 의미를 부여하자면 만물이 소생하는 봄은 시작이고, 반대로 겨울은 죽임이자 끝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 것도 없는 것에서 무엇인가가 비로소 시작될 수 있다는 의미를 생각해 보면, 마치 숫자 1 이전에 0이 있는 것처럼 계절에서도 봄이 아닌 겨울을 시작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다. 혹자는 겨울이야말로 봄의 심장이라는 비유를 했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황폐하지만 곧 폭발할 화산처럼 뜨거운 심장을 품고 있는 계절, 봄이 오면 그 기운으로 온 세상 만물에 생명을 불어넣어 줄 것이라는 점을 상상해 봤을 때, 너무나도 적절한 비유라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겨울은 1년 중 가장 춥고, 낮의 길이는 짧은 대신 밤의 길이는 무척 긴 특성을 갖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렇다면 도서관의 겨울은 어떨까? 도서관의 겨울 역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일들로부터 시작된다. 운영되던 문화 프로그램들은 12월에 모두 마무리가 되고, 1월 중 초등 및 중학생들을 위한 겨울방학 독서교실을 운영하고 나면, 특정 목적과 주제를 바탕으로 한 몇 회의 특강만이 기획될 뿐이다. 그러나 도서관의 겨울은 거기서 끝이 아니다. 왜냐하면 어김없이 다음 해가 시작될 것이

고, 봄이 다시 올 것이므로. 그래서 도서관에서의 겨울은 다가올 계절을 준비하는 시점이기도 하다. 한 해 동안의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물론이고, 시기별(분기별, 계절별, 주제별, 상황별)로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준비한 서비스들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한 방안도 고려를 한다. 그래서 이 총서의 첫 번째 장을 ‘시민들과의 만남을 준비하는 도서관’이라는 주제로 정했다. 백조가 우아하게 보일 수 있는 이유는 물속에서의 무수한 발길질 때문이라고 하지 않던가.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시민들과의 만남을 위해 겨우내 땀방울을 흘리는 도서관의 준비와 노력을 만나보자.

1) 도서관 운영 계획 수립

중국 전국시대에 활동한 제자백가의 논문집 가운데 《관자(管子)》라는 것이 있다. 내용 중 〈권수(權修)〉편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온다. “1년에 대한 계획으로는 곡식을 심는 일만한 것이 없고, 10년에 대한 계획으로는 나무를 심는 일만한 것이 없으며, 평생에 대한 계획으로는 사람을 심는 일만한 것이 없다. 한 번 심어 한 번 거두는 것이 곡식이고, 한 번 심어 열 번 거두는 것이 나무이며, 한 번 심어 백 번 거둘 수 있는 것이 사람이다(一年之計, 莫如樹穀, 十年之計, 莫如樹木, 終身之計, 莫如樹人. 一樹一獲者穀也, 一樹十獲者木也, 一樹百獲者人也)”. 여기서 곡식을 심거나 나무를 심는 일은 모두 사람을 심는 일, 곧 인재를 양성하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말이다. 인재를 양성하는 일은 국가의 미래가 걸려 있는 일이니만큼 100년 앞을 내다보고 계획을 잘 세워 진행해야 한다는 뜻이다. ‘교육은 백년대계(百年大計)’라는 말도 이로부터 비롯되었다.

어떤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 계획을 세우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앞으로 할 일에 대한 절차와 방법, 규모 등을 미리 헤아려 보는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계획을 세우면 일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거나, 최소화 할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결국 일의 결과 또한 좋아질 것이다.

그러므로 도서관 운영을 위한 계획 또한 매우 중요하다. 도서관 역시 사람을 키우는 공간이기 때문에 향후 100년간의 계획이 필요하고, 강산이 변함에 따라 뒤처지지 않기 위해 10년의 계획도 필요하며, 해마다 서비스를 실시해 성과를 내기 위한 1년마다의 계획도 필요하다. 마침 우리 사회가 급변하다보니 여러 정책적인 면에서도 장기적인 계획보다는 주먹구구식이거나 미봉책으로 보이는 것들이 많은데, 도서관에서의 계획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도서관은 결국 사람을 키우는 곳이고, 이는 곧 나라를 키우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도서관의 계획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공공도서관은 공간 자원, 소장 자료 자원, 인적 자원, 재화 자원을 갖고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운영계획 수립의 측면 역시 그 요소 내에서 결정이 되는데, 대부분의 도서관들이 수립하는 운영계획에는 인적 자원 활용에 대한 측면이 빠져있다. 대신 공간 자원 및 소장 자료 자원을 중심으로 계획되며, 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투입되는 재화 자원의 경우는 소요 예산 항목으로 기록된다. 그렇다면 여기서 공공도서관이 수립하는 운영계획들을 살펴보면, 크게는 1년 동안의 주요업무 계획이 있고 이어서 시기별(분기별) 서비스 계획이 있다.

(1) 1년 동안의 주요업무 계획

이 계획은 말 그대로 공공도서관이 1년 동안 추진해 나갈 주요 업무들에 대한 계획을 모은 것이다. 따라서 주로 포함되는 내용은 도서관으로서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일에 대한 목표 및 방향, 나아가 각 실별 운영에 대한 계획, 자료 확충에 대한 계획, 문화행사를 통한 도서관 이용 활성화 방안, 장서관리 효율화를 위한 보존 서고 정비에 대한 방안, 시민의 독서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방안, 시설물 유지 및 관리에 이르기까지 여러 측면이다. 즉, 이 계획 한 가지만으로도 한 해 동안 어떤 일들을 추진해 나갈 것인가를 알 수 있는 종합 청사진인 셈이다.

(2) 시기별(분기별) 서비스 계획(특화 서비스 프로그램 계획)

이어서 두 번째로는 시기별(분기별) 서비스 계획을 들 수 있다. 공공도서관에서는 주요업무 계획을 다시 분기별로 나누어 수립하는 것은 물론, 학기별로 계획해 추진했던 문화 프로그램이 끝나고 독서교실 및 특강 등이 실시되는 여름과 겨울 방학에 대한 계획을 별도로 수립한다. 또한 독서의 달과 같이 시민들이 책에 대한 관심을 키우고 도서관 이용 또한 증가되는 시점에 대한 계획을 다시 수립한다.

공공도서관에서 수립한 주요업무 계획 및 시기별 서비스 계획은 대동소이하기도 하고, 이미 현장에서 많이 접하고 계신 부분이기 때문에 예시 자료는 생략하고자 한다.

2) 도서관 홍보 방안 모색

홍보는 전략이다. 따라서 자신이 갖고 있는 무엇인가를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려는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방법이 더 좋을 것인가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을 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워 실행해 나간다. 예를 들어 광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가장 먼저 의뢰받은 상품에 대해 다각도로 분석을 하며 나름 대로의 장점을 찾는 시간을 가질 것이다. 그런 다음 어떤 측면을 어떻게 부각을 시켜 광고를 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할 것이다. 이어서 어떤 기법을 활용할 것인지(모텔을 내세울 것인지 동물을 등장시킬 것인지, 어떤 카피를 사용할 것인지, 어떤 음악을 배경으로 설정할 것인지 등)가 세부적으로 결정되면 드디어 광고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공공도서관도 전략적인 홍보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곳이다. 상업적 이윤을 꾀하는 곳이 아니라는 차이는 있지만, 시민들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곳이라는 공통점은 있다. 즉 아직까지도 공공도서관을 공부방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 책을 무료로 빌려주고 반납만 받는 곳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서관에서도 즐기고 누릴 수 있는,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다는 점을 꾸준히 알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공공도서관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한 방법과 사례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1) 공공도서관 홍보의 방법

그렇다면 공공도서관은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할 수 있을까? 홍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몇 개의 단계를 체계적으로 거쳐야 한다. 먼저 홍보할 대상에 대한 사전 조사 작업(research)을 하고, 이어서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가에 대한 실행 계획을 수립(action planning)한다. 나아가 홍보를 통한 시민들과의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을 해나가고, 마지막으로 홍보에 대한 평가(evaluation)를 실시하기도 해야 한다.

① 매체 활용을 통한 홍보방법

공공도서관 홍보의 방법은 그 내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게 된다.⁰¹⁾ 이러한 공공도서관 홍보의 방법은 매체 활용을 통한 홍보방법, 타 기관과 협력을 통한 홍보방법, 마케팅을 통한 홍보방법, 공공도서관 활동을 통한 홍보방법 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⁰²⁾

공공도서관의 홍보방법 중 가장 전통적인 방법이 매체를 활용한 홍보이다. 이는 공공도서관의 업무소개 및 공공도서관의 중요한 정보를 소개하는데 가장 통제가 용이하고 비용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매체 활용을 통한 공공도서관의 홍보방법에는 편집, 출판을 통한 매체 활용, 시청각자료를 통한 매체 활용, 뉴미디어의 활용 등이 있다.

첫째, 편집, 출판을 통한 매체 활용을 이용한 공공도서관 홍보는 공공도서관에 대한 이용자의 관심을 높이고, 이용자의 정보요구나 여가 등을 도서관과 연관시키는 목적을 두게 된다. 공공도서관에서의 편집 · 출판을 통한 매체 활용은 구체적으로 공공도서관의 연차보고서, 핸드북, 연구보고서, 서목, 뉴스레터, 팸플릿, 리플릿 등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홍보의 주체와 대상에 따라 각각의 내용과 범위 그리고 목적에 맞게 제작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시청각자료를 통한 매체 활용을 이용한 공공도서관 홍보는 문자나 그림 그리고 공간이용 등을 활용하여 공공도서관 업무 및 정보전달에 있어서 시각 · 청각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게 한다. 예를 들어 포스터, 게시판, 전시 등이 공공도서관 홍보에 있어서 대표적인 시청각 자료를 통한 매체 활용이라 할 수 있으며, 이

01. 이만수. 2007. 공공도서관의 홍보 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 · 정보학회지 Vol. 38 No. 1.

02. 조찬식. 2010. 공공도서관의 홍보에 관한 일 고찰. 한국비블리아학회지 Vol. 21 No. 4.

러한 홍보방법은 홍보의 내용과 대상에 따라 각각의 위치와 규모 그리고 형태를 결정하여야 한다.

셋째, 뉴미디어의 활용을 통한 공공도서관 홍보는 오늘날 정보사회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홍보방법으로, 공공도서관 정보화의 척도가 될 수 있다. 디지털 정보 커뮤니케이션으로 정의되어지는 뉴미디어의 활용은 공공도서관의 웹사이트, CD, 동영상 제작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모든 기관들이 정보통신을 이용한 홍보 전이 치열한 오늘날에는 홍보목적에 맞는 각각 미디어의 콘텐츠, 디자인, 전달능력 등이 뉴미디어의 활용을 통한 공공도서관 홍보의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② 타 기관과 협력을 통한 홍보방법

공공도서관은 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공공도서관의 업무소개 및 공공도서관의 중요한 정보를 전달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홍보방법은 공공도서관의 위상을 제고하고 공공성과 대중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홍보 전략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타 기관과 협력을 통한 공공도서관의 홍보방법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및 지역사회 단체와의 협력 등을 꼽을 수 있다.

첫째, 공공도서관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하여 홍보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공공성과 공익성을 바탕으로 업무에 임하게 되며, 또한 정책의 ‘수요자’ 나 유권자인 국민에 대한 대중적 욕구에도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 그러므로 공공도서관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하여 홍보를 한다는 것은 지역사회 구성원을 위한다는 ‘호혜정신’을 살리는 방법이기도 하다.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공공도서관의 홍보는 구체적으로 정부나 지자체가 발행하는 공보, 교육위원회

기관지, 지자체나 우체국 등의 게시판 활용 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둘째, 공공도서관은 지역사회 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홍보를 구현할 수도 있다. 공공도서관 홍보에 협력할 수 있는 지역사회 단체로는 지역사회 언론(대중 매스컴, 월간지), 백화점, 은행, 서점, 스쿨버스 등을 꼽을 수 있으며, 그 외에도 식당이나 학교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민생활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사회 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공공도서관의 홍보는 공공도서관의 별도의 특별한 기관이 아니라 바로 지역사회의 중심적이고 친화적인 공간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계기를 마련한다는데 그 장점이 있다.

③ 마케팅을 통한 홍보방법

공공도서관 마케팅이란 공공도서관 본연의 임무와 역할을 사회에 알리는 행위로, 이를 통해 공공도서관은 외부의 경쟁자들보다 우위의 입장에서 이용을 활성화하고 사회에서의 위상을 정립할 수 있게 된다. 비록 공공도서관의 마케팅은 비용과 노력이 요구되지만, 공공도서관은 시간과 노력이 있을 때 마케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케팅을 위해 시간과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 마케팅을 통한 공공도서관의 홍보 방법에는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와 대행업체를 통한 홍보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 대중매체를 통한 공공도서관 홍보는 매스커뮤니케이션으로써 대중매체가 갖는 대중전달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대중매체는 신문, TV, 라디오, 벼룩시장 등으로 많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부담이 따른다. 그러므로 마케팅을 통한 공공도서관 홍보는 효율적인 목표(target)의 설정뿐만 아니라 철저한 비용대비효과분석(cost-benefit-analysis)을 통하여 실행되어야 한다.

둘째, 대행업체를 통한 공공도서관 홍보는 지역사회의 모든 지역에 선택적으로 공공도서관의 업무와 필요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현수막 전시, 전단지 및 스티커 제작, 온라인 광고 등을 통한 공공도서관 홍보는 대행업체를 통해서 가능하며, 필요한 장소나 시간을 해당 공공도서관의 홍보, 전략에 맞추어 통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행업체를 통한 공공도서관의 홍보는 자칫 공공도서관의 위상이나 품위를 저해할 수도 있는 만큼 면밀하고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④ 공공도서관 활동을 통한 홍보방법

오늘날 공공도서관은 이용자의 내방을 통한 ‘찾아오는 서비스’의 개념에서 이용자를 ‘찾아가는 서비스’의 개념으로 전환을 모색하거나 계획하고 있다. 그러므로 공공도서관은 특성화된, 즉 세분화되고 전문적인 자료와 서비스 그리고 각종 프로그램의 제공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하며, 각종 자료와 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그러므로 공공도서관 활동을 통한 홍보는 공공도서관의 기본이며 또한 가장 적극적인 홍보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공공도서관 자체 활동을 통한 홍보방법은 관내활동과 관외활동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관내활동을 통한 공공도서관 홍보로는 기본적인 정보서비스 외에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이용자 교육 등이 포함된다. 공공도서관은 지역주민이 문화시민으로서 질 높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각종 서비스 제공과 프로그램의 운영은 물론, 시대의 흐름에 맞는 주민의 다양하고 변화되는 공공도서관에 대한 요구에 관련된 정확한 판단을 기초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관내활동을 통한 공공도서관 홍보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공공도서관의 보편적 서비스 개념과 선택과 집중을 바탕으로 한 특성화 전략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관외활동을 통한 공공도서관 홍보는 세미나 또는 발표회 참여, 외부행사 지원, 자문활동, 시설대여, 타 기관 또는 단체와의 연계활동 등을 꼽을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외활동은 공공도서관의 존재를 각인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관외활동을 통하여 공공도서관이 정보제공, 문화 창달, 그리고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사회적 기구로서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관외활동을 통한 공공도서관의 홍보는 해당 지역의 대표적인 특색을 살려서, 지역의 이미지를 높이고 지역주민들의 자부심과 함께 지역발전에 도움을 주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제시한 공공도서관 홍보방법을 요약하면 아래의 <표 1>과 같다.

홍보방법	활용 도구 또는 매체	예 시
매체 활용을 통한 홍보방법	편집, 출판을 통한 매체 활용	연차보고서, 핸드북, 연구보고서, 서목, 뉴스레터, 팸플릿, 리플릿 등
	시청각자료를 통한 매체 활용	포스터, 게시판, 전시 등
	뉴미디어의 활용	웹페이지, CD, 동영상 제작 등
타 기관과 협력을 통한 홍보방법	지방자치 단체와의 협력	정부나 지자체가 발행하는 공보, 교육위원회 기관지, 지자체나 우체국 등의 게시판 활용 등
	지역사회 단체와의 협력	지역사회 언론(대중 매스컴, 월간지), 백화점, 은행, 서점, 스쿨버스, 식당 등
마케팅을 통한 홍보방법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신문, TV, 라디오, 버럭시장 등
	대행업체를 통한 홍보	현수막 전시, 전단지 및 스티커 제작, 온라인 광고 등
공공도서관 활동을 통한 홍보방법	관내활동을 통한 홍보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이용자 교육 등
	관외활동을 통한 홍보	세미나 또는 발표회 참여, 외부행사 지원, 자문활동, 시설대여, 타 기관 또는 단체와의 연계활동 등

(5) 국내 공공도서관 홍보 사례

① 인터넷 뉴스를 통한 홍보

양산 웅상도서관, 문화의 달 풍성한 행사마련

【양산 = 뉴시스】안지율 기자 = 경남 양산시 시설관리공단 웅상도서관이 10월 문화의 달 행사를 맞아 도서관을 찾는 모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마련해 시민을 즐겁게 하고 있다.

도서관에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매직 버블쇼’, 특강 ‘과학자들의 작은 도시 강연회’, ‘마음을 나누는 미술 치료’, ‘책 제목을 찾아라’, ‘다독자에 도전하세요’ 등 5개 행사를 마련했다.

매직 버블쇼는 KBS 스펀지와 대전엑스포 등에서 진행한 ‘미스터 버블’ 팀이 링과 밧줄, 공, 빨대 등 다양한 도구를 이용해 만들어내는 비눗방울 속에서 꿈과 환상을 만나는 시간이 될 것이다. 이 매직 버블쇼는 22일 오후 2시 도서관 지하공연장에서 진행되며 관람을 원하는 시민은 12일부터 도서관에 접수하면 된다.

특강 ‘과학자들의 작은 도시 강연회’는 전국 중·소도시에서 진행되는 재능기부 특강으로 29일 오후 2시에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며, 개최지 1곳당 3명의 과학자가 강연을 진행한다. 이 특강은 한국도서관협회와 10월의 하늘 준비모임(대표 정재승 카이스트 교수) 공동 주최로 과학·문화적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자연과 생명이 주는 경이로움과 과학이 무엇인지에 대한 꿈과 희망을 선사하는 특별 강연회다.

마음을 나누는 미술 치료는 그림으로 개인의 심리상태를 파악하고 잠재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프로그램으로 1여 년 동안 도서관에서 미술 치료 행사를 진행해 오는 ‘나우우리 동아리’ 회원들이 진행한다. 책 제목을 찾아라는 청구기호를 보고 정확한 책 제목을 찾는 행사로 도서관 이용자에게 청구기호에 대해 이해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또 다독자에 도전하세요 행사를 통해 10월 한 달간 가장 많은 대출 권수를 기록하는 시민에게 다독자 상을 수여하며 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증정한다.

② 팸플릿을 통한 홍보 : 느티나무 도서관 <그림 1>



③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 군포시 도서관 <그림 2>



④ 관외활동을 통한 홍보 : 청주기적의도서관 2011년 9월 3일



‘I ♥ Story 행사’ 북 스타트 및 도서관 홍보³⁾(그림3-4)

⑤ 모바일 및 SNS를 활용한 홍보

경기도에서는 도내 150여개의 다양한 도서관 정보를 모아 언제 어디서든 사용자가 쉽게 검색하고 찾아가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기도도서관’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 이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면 현 위치를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도서관의 위치를 찾아볼 수 있고, 좌석수, 장서수, 이용시간, 홈페이지, 전화번호 등 해당 도서관의 상세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으며, 지도를 이용한 길 찾기로 사용자가 손쉽게 해당 도서관을 찾아갈 수 있다. 또한 시군별로도 검색이 가능토록 하여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도서관을 한 눈에 찾아보고 상세정보와 길 안내를 서비스 받을 수 있다. 이어 향후에는 사용자가 특정 도서명을 검색했을 때 이를 보유하고 있는 도서관 찾기 기능과

03. 네이버 카페 ‘돌맹이국’ 에서 인용(<http://cafe.naver.com/cjstonesoup>)

04. 경기도사이버도서관 홈페이지(<http://www.golibrary.go.kr>)

05. 3M Library News 제8호(인터넷 사이트 <http://www.3m.com/intl/kr/office/library/no.8>), 2001. 7. 13.

어린이, 다문화가정, 장애인 등을 위한 특화 도서관 안내 기능 등을 준비하여 서비스될 예정이다.⁽⁴⁾

또한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2011년 11월 16일(수)부터 12월 28일(수)까지 특별전시장(국제회의장)에서 열리는 『열두 서고, 열리다』- 국립중앙도서관 개관 66주년 기념 특별전을 홍보하기 위해 페이스 북(face book)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홍보를 한 사례가 있다. 페이스 북은 가장 성공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 : 웹상에서 이용자들이 인맥을 형성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 가운데 하나로, ‘친구 맺기’를 통해 많은 이들과 웹상엿 만나 각종 관심사와 정보를 교환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자료를 공유할 수 있다.

(6) 해외 공공도서관 홍보 사례 : 캐나다 Richmond 공공도서관



〈그림 5-6〉⁽⁵⁾

공공도서관은 이제 그 지역사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문화 및 사회적인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런데 도서관을 찾아오는 이용자들을 단순히 기다리지만 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도서관으로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에 위치하고 있는 Richmond 도서관은 세 곳에

분관을 둔 공공도서관으로서, 전체 장서가 35만권, 연간 이용자 수가 120만 명에 이른다. Richmond 주민 10명 중 9명이(약 14만 명) 도서관 카드를 가지고 활발하게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으며, 연간 대출 양이 200만 권에 이른다.(1998년 통계) 지난 4월, Richmond 도서관은 세 곳 도서관 지점을 왕복하며 도서를 실어 나르는 셔틀 밴(Van)을 새롭게 단장, 적극적인 도서관 홍보에 나섰다.

밴, 트럭, 버스 등의 운송 수단들을 이용한 차량 그래픽은 상품이나 기업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새로운 광고 매체로서 주목 받고 있다. 차량용 광고는 어떤 회사가 그 트럭이나 밴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말해줄 뿐만 아니라, 중요한 마케팅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이다. Richmond 공공도서관은 이러한 선진 마케팅 기법을 도서관에 도입하여, 주민들을 공공도서관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도서관 홍보 프로그램을 고안하였다. Richmond 도서관은 오래 전부터, 비즈니스 접근방법을 도입하여 도서관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운영해 왔었기에 이번 프로그램을 실행한 것도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다. 사람들이 도서관에 오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하기 위해 도서관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생생한 사진과 도서관 홈페이지 주소가 쓰인 그래픽을 3M의 스카치 프린트 그래픽을 사용하여 시공하였다. 윈도우 전용 필름으로 인해 밴 내부에 있는 사람은 그래픽을 통해 안에서 밖을 볼 수 있지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안이 보이지 않아 이동 중인 도서관 자료의 보안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재귀 반사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3M 필름은 캄캄한 밤 또는 시야가 어두운 동틀 무렵, 해질 무렵에 훨씬 선명하게 보이므로 아이들이 길을 건널 때 밴이 오고 있는 것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으며, 다른 차량이나 사이클을 타는 사람들에게도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눈에 잘 띄고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감정을 갖도록 자극을 줄 수 있는 광고가 효과적이다. Richmond 공공도서관의 그래픽 이미지는 행인들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호기심 어린 표정을 짓고 있는 아이의 얼굴은 도서관이 그에 관한 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행인들로 하여금 도서관의 다양한 기능들에 대해 주지시켜 주는 그래픽은 “그래,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낼 때는 참 즐거워”라는 감정을 자연스럽게 불러일으킨다.

“Richmond 공공도서관은 홈페이지 주소(yourlibrary.ca)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동시에 우리 도서관의 서비스를 지역 주민들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라고 도서관 위원회 의장인 Perry Mazzone씨는 말한다. “중요한 것은, 가만히 있지 않고 우리가 먼저 고객에게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3M 실사출력을 이용한 새로운 셔틀 뱅은 아이, 청소년, 노인, 그리고 학생들이 도서관을 재미와 배움의 장소로 이용하는 이미지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직원들은 새롭게 변신한 뱅에 대해 매우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화려하고 대담할 뿐만 아니라 도서관의 이미지를 멋지게 전달하고 있지요. 셔틀 뱅은 도서관 지점 간에 책을 날라쑈으로써 고객이 필요로 하는 자료를 원하는 장소에서 대출하고 원하는 장소에 편리하게 반납하도록 해줍니다. 또한 몸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자와 같이 도서관을 직접 나오기 힘든 사람들을 위해 책이나 멀티미디어 자료들을 배달해 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Cate MacNeely 부관장은 이렇게 덧붙인다. “우리는 이제 고객을 끌어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매우 멋지고 세련된 방법으로 말이죠.”

2. 국내 공공도서관 운영 사례 : 12월-2월

사람들은 경험으로부터 배운다. 이 경험의 범위에는 직접 몸으로 하는 것도 포함이 되지만, 책을 보거나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포함이 된다. 사실 후자는 직접 시도를 하며 겪을 수 있는 시간적·경제적인 면의 지출을 줄일 수 있는 것은 물론, 위험 요소까지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이미 그 일을 실행해 본 사람이 있는가, 관련 정보를 주는 책이 있는가를 찾아보고, 그를 통해 답안을 찾아내려는 시도를 한다.

다음에 소개될 운영 사례는 현장의 사서들 개개인이 준비해야 하는 데에 따른 고민은 줄이는 대신, 보다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드리고자 제시를 하는 것이다. 이미 다양한 경로를 통해 운영 사례는 충분히 다루어졌고 앞으로는 그럴 것이라 생각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마다 난감해 하는 분들을 위해 다시금 주지를 시켜드리는 차원이다.

사람마다마다가 그렇듯, 공공기관도 저마다의 성격을 갖고 있다. 따라서 한 가지로 통일을 시키려 하기 보다는 저마다의 개성을 찾고, 그에 맞는 특화된 모습으로 발전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현재 공공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은 사교육기관이나 민간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들과 큰 차이가 없다. 또한 도서관의 성격에 부합되지 않는 것들도 많다. 따라서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독서를 하면서 습관을 형성해 평생의 독서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타 기관과 차별화된 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⁶⁾

그런 신조를 바탕으로 여기에 제시하는 사례는 연구자들이 도서관 성격에

부합된다고 생각한 것들만 모은것이다. 전국의 공공도서관들을 중심으로 더욱 참신하면서도 도서관 색깔에 맞는 것을 찾았으면 좋았겠지만, 역량의 한계로 전체를 다루지는 못했다. 따라서 경기도를 중심으로 제시를 했으며, 타 도와 시의 사례 가운데에서도 조금 더 특화가 된 프로그램이라 판단된 것은 소개하였다. 사례를 수집한 방법은 먼저 각 도서관 홈페이지에 들어가 하나하나 확인을 하고, 이어서 선정된 사례를 운영한 해당 도서관에 직접 연락을 취해 계획서를 건네받아 보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는 방식이었다. 그 과정을 통해 이 장에서 소개할 프로그램들을 선정했는데, 가능한 여러 자료를 제시한다면 향후 타 도서관에서 프로그램 및 행사를 진행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아 받은 자료들을 그대로 공개하고자 노력했지만, 공개가 되는 것을 꺼리는 곳들이 있어 세부 내용까지는 다루지 못했다. 따라서 제시된 프로그램이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연락을 취해 필요한 면들을 확인하시거나, 각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수고를 하셔야겠다. 마지막으로 막상 사례를 제시하려다 보니 총서 집필을 위해 구성한 계절과 프로그램 운영 시점이 꼭 알맞게 맞물리지는 않는 면을 발견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프로그램이 시작되는 시점을 중심으로 소개하는 방법을 택했다. 그럼 먼저 12월에서 2월의 겨울에 운영되었던 사례들을 만나보시기 바란다.

1) 가평군립중앙도서관 겨울방학 특강 (2011. 1. 3-1. 29)

가평군립중앙도서관은 겨울방학 특강을 통해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 가운데 소개하고 싶어서 꼽은 사례는 <지리논술>과 <母子 경제 특강>, <세계

문화유산》이다. 이 가운데 문화를 주제로 한 프로그램은 다른 도서관에도 실시한 사례가 있으나, 지리와 논술을 연계한 것이나 엄마와 아이를 대상으로 해서 동시에 경제 특강을 실시한 곳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들을 제시해 본다. 이 프로그램들은 다음과 같은 구성에 따라 실시가 되었다.

〈지리논술〉

- ① 대상 및 인원 : 초등 5-6학년, 20명
- ② 운영시간 : 매주 토요일 10:30-12:30
- ③ 내 용 : 세계 지리, 기후, 각 지역의 특성에 대해 알아보기

〈母子 경제 특강〉

- ① 대상 및 인원 : 초등 1-3학년, 15명
- ② 운영시간 : 매주 금요일 16:00-18:00
- ③ 내 용 : 어머니 특강 1회, 모자 경제 특강 2회를 통해 경제 교육의 필요성, 합리적인 용 돈 관리에 대해 강의

〈세계문화유산〉

- ① 대상 및 인원 : 초등 3-4학년, 20명
- ② 운영시간 : 매주 수요일 16:00-18:00
- ③ 내 용 : 세계문화유산에 대해 알아보고 학습하기

2) 고양시한빛도서관 수시기획프로그램 (2011. 3. 31-5. 26)

고양시의 한빛도서관에서는 수시기획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었다. 그 가운데 NIE(신문 활용 교육)과 독서 및 글쓰기를 연결해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소개할까 한다.

〈나는야 독서기자〉

- ① 대상 및 인원 : 초등 5-6학년, 20명
- ② 운영시간 : 매주 수요일 16:00-17:30
- ③ 내 용 : 신문의 구성요소를 이해하고 기자, 사진기자, 광고기자가 되어 다양한 형태의 글쓰기를 한다. 지정도서를 읽고 책 내용을 바탕으로 독서신문 만들기를 한다.

3) 성남시 중원도서관 다문화한가족실 다문화 겨울특강(2011. 1. 7-2. 25)

성남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원도서관은 다문화 한가족실을 운영하며, 겨우내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한국어 발음교실 및 전래동화로 만나는 한국 문화라는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한국어 발음교실〉

- ① 대상 및 인원 : 다문화가정 결혼 이주 여성, 15명
- ② 운영시간 : 매주 금요일 10:00-12:00, 총 7회
- ③ 내 용 : 한국어 발음의 특징과 원리를 알아보고, 정확한 발음을 실습

〈전래동화로 만나는 한국 문화〉

- ① 대상 및 인원 : 다문화가정 결혼 이주 여성, 15명
- ② 운영시간 : 매주 금요일 13:00-14:00, 총 7회
- ③ 내 용 : 전래동화를 함께 읽어보면서, 한국 문화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4) 군포시어린이도서관 봄방학 특별 독서문화프로그램

직업의 세계 - 건축사 되어보기

〈직업의 세계 : 건축사 되어보기〉

- ① 대상 및 인원 : 관내 초등학교 전학년생, 80명
- ② 운영일시 : 2011. 2. 25(금) 10:00-16:00
 · 1차 저학년 건축사 체험 : 1차 저학년 건축사 체험 10:00-12:00,
 2차 고학년 건축사 체험 14:00-16:00
- ③ 내 용 : 건축학습, 미니어처 주택 조립하기, 신문 파이프 만들기, 스페이스 프레임 만들기, 아치 만들기 등 건축사가 하는 일들에 대한 창의 체험 학습
- ④ 학습 및 체험 내용

시 간	내 용
15분(학습)	1. 건축의 기원 2. 건축물은 어떻게 서 있을까? 3. 건축에 적용된 과학원리(절판구조, 아치구조) 4. 친환경 건축이야기(에너지와 온실 효과 등)
90분(체험)	1. 종이와 연필체험 (연필의 종류이해 및 서로 다른 재질의 종이 비교하기) 2. 줄자놀이(물건을 실측하고 도면처럼 그려보기) 3. 절판구조 만들기 (경제적인 건축재료 사용 및 구조에 대한 이해) 4. 아치모형 만들기(넓은 공간 건축의 이해) 5. 미니어처 건축물 만들기 6. 지진에 견디는 내진 구조 공간 체험하기
15분(정리)	1. 궁금한 점 물어보기 2. 설문조사 및 단체사진 찍기

⑤ 기대 효과

- 건축과 공간에 대한 3차원 체험학습으로 청소년기의 창의력과 공간 지각력 발달
- 함께 만드는 체험으로 협동심과 사회성 발달 및 올바른 인격 형성
- 재미있는 놀이체험 창의학습으로 도서관 이용 활성화는 물론 도서관을 통한 책 읽는 군포시 독서 분위기 조성에 기여

3. 프로그램 운영 제안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도서관은 도서관의, 도서관에 의한, 도서관은 물론 시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 과거 교육의 기능이 보다 강했을 때에는 그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 또한 시민들을 도서관으로 이끌기 위해서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실시했다고 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재고할 여지가 있다. 물론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도서관에 찾아와야 하는 면은 있지만, 이 역시 도서관다운 프로그램 운영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야 한다. 그러려면 도서관은 다채로우면서도 색깔을 잃지 않는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실시해야 하는데, 그 또한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국경일이나 각종 기념일, 명절이나 절기, 지역사회의 특성 및 인적 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 방안을 제시해 보려 한다. 다만 모든 기념일에 대한 방안을 제시할 수는 없으니, 비슷한 성격의 것들은 응용을 해서 접목해 보시면 되겠다.

1) 겨울의 특성을 활용한 프로그램

겨울은 추운 날씨 때문에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인지 도서관과 이용하는 시민들 모두 움츠리고 있는 모습인데, 이런 측면은 오히려 정적인 도서관의 이미지와는 부합이 잘 되어 보인다. 따라서 진중하면서도 의미 있는 행사, 소박하면서도 따뜻함이 느껴지는 행사를 준비해 보면 어떨까? 다음은 다른 계절에도 가능하지만, 겨우내 도서관에서 실시해 보면 더 좋을 것 같은 프로그램들을 제안해 본 것이다.

(1) 도서관에서의 하룻밤

중 · 고등학교 도서관 중에는 밤새워 책읽기라는 행사를 하는 곳들이 있다. 제목 그대로 도서관에서 준비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밤을 지새우는 것으로 (학교에 따라 밤을 새지는 않고, 늦은 시간까지 진행을 한 뒤 귀가를 시키는 곳도 있다), 도서관이 주축이 되고 일반 학생들 가운데 지원자가 있으면 함께 하는 형식이다. 프로그램 내용에는 명사를 초청해 특강을 듣는 시간, 도서관 혹은 책 관련 영화를 시청하는 시간, 독서 퀴즈를 푸는 시간, 혼자만의 독서 시간, 학교 곳곳에 무엇인가를 숨겨 두고 그것을 찾아와야 하는 런닝 맨(MBC 연 예오락 프로그램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제목)과 같은 게임 시간 등이 포함되어 있다.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밤새워 책읽기에서만 할 수 있는 독특함을 크게 발견할 수는 없지만, 도서관에서 하룻밤을 새며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다는데 이 행사의 의미가 있다.

도서관에서의 하룻밤은 앞서 소개한 밤새워 책읽기와 같은 맥락이다. 도서관 이용자 가운데 몇 가족을 초대해 행사에 참여시킬 수도 있겠고, 혹은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등 특정 대상을 지정해 지원을 받을 수도 있겠다. 물론 이 행사를 하려면 도서관 직원들 몇 명이 숙직을 해야 하고, 무엇보다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겠으나 그런 부분만 해결이 된다면 도서관에서의 추억을 여러 사람들에게 심어줄 수 있겠다. 특히 그 대상이 아이들이라면 그 추억을 아주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을 것이며,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행사는 겨우내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한 차례만 특별 행사로 실시할 수도 있겠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도서관에서의 하룻밤〉

① 프로그램 운영 목표

- 함께 참여한 사람들과의 특별한 추억을 만들고 간직할 수 있다.
- 책읽기와 영화 보기, 독서퀴즈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독서 흥미를 기를 수 있다.
- 도서관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시킬 수 있다.

② 프로그램 운영 개요

- 운영기간 : 매년 겨울(12월-2월) 중 정해진 날짜 하루 혹은 매주 한 번씩
- 대 상 : 초 · 중 · 고등학생 혹은 한 가족 전체
- 장 소 : 문화교실(평생교육실)
- 접수방법 : 홈페이지 선착순 접수

③ 사전 준비사항

- 명사 초청 특강을 위한 지역작가 섭외 및 일정 조정
- ‘도서관에서의 하룻밤’ 추진을 위한 직원들 업무분장 실시
 - 프로그램 별 행사 진행 및 업무 보조 등 역할 분담
 - 행사진행 시나리오 사전 작성 및 연습
 - 독서퀴즈 대회, 한밤의 런닝 맨 운영을 위한 문제 및 미션 출제
 - 각종 소모품 구입 및 사전준비

④ 연계방안

- 지역 사회 인적자원과의 연계 : 명사 특강 시간에 지역 내 작가 초청
- 지역 사회 기관과의 연계 : 병원 및 소방서와의 공조를 통해 유사 시 대비,
관내 학교에 협조 공문을 통해 참여 학생들 선발

⑤ 프로그램 구성 <표 3>

순 서	운영 시간	프로그램 제목	프로그램 내용
1	19:00-20:00	명사 초청 특강	지역 작가 초청 특강
2	20:15-22:30	혼자만의 책 읽기	자신이 선정한 책 읽기
3	22:40-23:40	독서퀴즈 대회	독서퀴즈 대회 골든벨
4	23:50-24:20	아침	간식 시간
5	24:30-01:30	한 밤의 런닝 맨	도서관에 숨겨진 미션 찾기
6	01:45-04:00	영화 관람	주제별 영화 상영
7	04:15-05:15	참여 소감문 쓰기	참여한 소감 쓰기 및 발표
8	05:25-06:00	수료식 및 정리	수료식 및 행사 종료

⑥ 소요예산 항목 <표 4>

구 분	산출내역	비 고
강사 수당	1회 강의 단가	'특별 강사' 수당 지급
재료비	간식비, 런닝 맨 상품, 수료증 제작	

⑦ 연계사업

- 행사 당일 프로그램 별 참여모습을 사진에 담아 행사 후에 전시회 개최
- 행사 참여 소감문 등을 향후 발간되는 도서관 자료집 등에 수록하여 참여자들에게 배부함으로써 자긍심 부여
- 단순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도록 참여자들을 독서동아리로 조직하여 활동을 연계 하고 도서관에서 정기적으로 활동 할 수 있도록 장소 제공 및 교육 지원 검토

(2) 도서관 가족 사진전

공공도서관 중에는 별도의 전시 공간을 갖고 있는 곳이 있다. 그곳에서 1년 내내 다양한 주제의 전시를 개최하는데, 혹시 그런 공간이 있다면 도서관 가족 사진전을 열어 보자. 이 사진전에 출품을 할 수 있는 사진은 가족 구성원 2인 이상이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는 모습이 담긴 것이어야 한다. 출품된 사진 중 전문가의 심사를 통해(도서관에 사진 관련 강좌가 있다면 해당 강사 선생님께서 심사를 해주시는 방법이 있겠다) 예선을 통과한 작품은 전시 시간 동안 전시가 되고, 그 중 우수 작품을 뽑아 시상하는 것도 방법이겠다.

이 행사 역시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는 가족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함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줄 것이다. 혹 전시 공간이 없는 도서관들은 1층 로비를 활용해 정해놓은 기간 동안 전시를 하면 되겠다.

2) 국경일, 기념일, 명절 및 절기를 활용한 프로그램

(1) 12월

12월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쁘고, 마음 또한 들떠 있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학생들에게는 방학이 시작되고, 직장인들에게는 송년 모임들이 줄지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전 세계인의 행사라 할 수 있는 크리스마스도 있는 달이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에 동화되지 않고 도서관으로 향하기는 쉽지가 않다. 따라서 시민들을 도서관으로 이끌기가 어려운 달이겠지만, 세밑이기 때문에 오히려 조용히 마음을 정리하고, 나이가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 마음을 나누고 싶은 사람들도 많은 달이다. 그러므로 12월의 행사는 어려운 사람들, 소수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나눔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는 방안을 생각해 봤다.

① 세계 에이즈의 날

매년 12월 1일은 세계 에이즈의 날이다. 이 날은 1988년 1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 세계보건장관회의에서 참가 148개국이 에이즈 예방을 위한 정보교환, 교육홍보, 인권존중을 강조한 '런던선언'을 채택하면서 제정되었다. 이 날에는 에이즈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예방책을 전달하기 위해 국제기구와 각국 정부가 다양한 행사를 마련하고, 에이즈에 대한 편견을 깨고 차별을 없애기 위한 운동을 벌인다. 또한 혈액과 따뜻한 마음을 의미하는 '붉은 리본'을 몸에 부착함으로써 에이즈 감염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없애고, 사회 속으로 이들을 받아들여 다함께 살아가는 인간다운 사회를 만들자는 '붉은 리본 운동'도 전개되고 있다.

사람들은 가정의 행복과 함께 건강을 최우선 소망으로 꼽는다. 따라서 '건강'을 주제로 한 전시나 특강을 주최한다면 관심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 행사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 병원이나 보건소와 연계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우선 에이즈는 물론 한국인들이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질병 및 건강에 관한 서적을 전시하고, 더불어 병원이나 보건소의 의사를 초빙해 특강을 실시한다. 의사는 아동 및 청소년을 둔 학부모를 위해 아동 청소년과 의사 1명, 주부들의 참여가 많은 점을 고려해 산부인과 의사 1명, 전 세대와 관련이 있는 내과 의사 1명, 성인이라면 누구나 걱정을 하고 있는 질병 암 전문 의사 1명, 나아가 정신과 질환이 늘고 있는 현상을 반영해 정신과 의사 1명까지 초대를 해서 시민들과의 만남을 주최한다면, 해당 병원은 홍보의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이고, 시민들은 보다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그동안 궁금했던 것들도 자유롭게 물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것이다. 물론 도서관으로서는 전문 분야의 서적 전시를 통해 관련 자료를 많이 갖고 있음을 알릴 수도 있고, 그것이 대출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 행사는 세계 에이즈의 날이 아닌 ‘세계 소아암의 날(매년 2월 15일)’, ‘세계 결핵의 날(매년 3월 24일)’ 등에도 진행을 할 수 있고, 간단한 모금 운동을 통해 질병으로 고통 받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기부를 하는 방안으로까지 확대를 시켜볼 수도 있겠다.

※ 인터넷 참고정보원 : 건강정보광장(<http://www.healthpark.or.kr>)

② 소비자 보호의 날(소비자의 날)

소비자의 권리 의식을 신장시키고, 소비자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로, 매년 12월 3일이다. 그러나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1962년 3월 15일,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던 케네디가 ‘소비자보호에 관한 특별교서’를 발표하면서 소비자의 4대 권리를 선언한 날을 기념해 이 날을 소비자권리의 날로 정해 기념하고 있다.

한국은 1970년대 중반까지 소비자의 날이 없다가, 1979년 12월 3일 ‘소비자보호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에서 이 날을 소비자의 날로 정해 매년 행사를 개최하였으나, 법정기념일로 제정된 것은 한참 뒤인 1997년 5월 9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서부터다.

행사는 재정경제부의 후원을 받아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주최하고,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참가한다. 본 행사는 재정경제부장관의 경과보고 및 개회사를 시작으로, 각계 대표의 발언을 거쳐 ‘소비자주권선언문’ 낭독과 유공자에 대한 훈장 · 표창 수여로 이어진다.

특히 이 날은, 소비자들이 상품 및 용역으로 인한 신체와 재산상의 위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 상품과 용역에 대한 진실한 정보를 제공받고, 동시에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소비자의 피해 구제 및 쾌적한 생활환경 속에서 소비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 등 소비자 권리 및 보호와 관련된 토론회 · 세미나 등 다양한 행사를 실시한다.

도서관은 다양한 주제 분야의 자료들을 수집하고, 그 자료들을 시민들이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서비스를 실시한다. 물론 특정 분야만을 수집해 운영하는 전문 특수 도서관들도 있지만, 공공도서관은 모두를 아우르는 정책을 실시한다. 그래서인지 문화 프로그램 및 특강에서 다루어지는 주제 또한 다양한데, 최근에는 경제를 주제로 한 행사가 자주 실시되고 있다. 특히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재테크나,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제 교실 등은 이미 여러 도서관들이 실시를 했거나, 꾸준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주제이다. 따라서 소비자의 날에는 경제 관련 행사를 준비하는 방안을 생각해 봤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도서관 벼룩시장

이 행사는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벼룩시장 행사를 응용한 것으로, 다른 물건을 판매하기보다는 갖고 있지만 읽지 않는 책을 판매하는 장터를 여는 것이다. 각 가정에는 한 번만 읽고 더 이상 읽지 않는 책들이 꽤 많다. 딱히 버리거나 누구를 주기에는 아깝다고 생각되는 책을 가져다가 자신이 원하는 금액을 받고 판매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는 행사인데, 판매도 하지만 그 전에 좋은 책을 도서관에 기증하도록 유도할 수 있고, 아니면 판매를 통해 얻은 수익금의 일부를 도서관에 기부를 해서 자료 구입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방법 이겠다. 도서관에서도 종종 보관 가치를 상실했거나 기증받은 복본을 일반 시민에게 제공하거나 또 다른 기관에 기증하기도 하는데, 이런 자료들을 모아 두었다가 벼룩시장이 열릴 때 내놓는 것도 한 방법이겠다.

만약 도서관에서 이 행사를 실시한다면, 역시 가장 큰 변수는 날씨가 되겠다.

12월 초라고는 하지만 한파가 올 수 있는 때이기 때문에 야외에서 장시간 행사를 진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혹 비나 눈이 내린다면 역시 진행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시청각실 등의 공간이 있는 도서관은 그곳을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고, 다른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괜찮겠다.

㉔ 도서관 쿠폰 발행 및 마일리지제도 시행

영화를 보러 가거나 음식을 먹으러 갈 때, 도서를 구입하거나 자동차에 주유를 하러 갈 때에도 제 값을 다 주는 사람은 없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할인을 해주는 카드를 몇 장쯤 소지하고 있는 것은 물론, 인터넷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할인권 또한 준비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식당이며 찜질방 등을 가도 다른 곳의 할인권을 구하는 것은 매우 쉽고, 물건을 구매한 내역이든 인터넷에서의 활동으로 인해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그것을 바로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제 값을 다 주는 사람은 게으르거나 정보가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도서관에서는 실생활에 유용하게 쓰일 쿠폰이나 마일리지를 단 하나도 얻을 수 없다. 물론 공짜로 여러 좋은 자료들을 이용할 수 있고, 밤늦게까지 공부할 수 있는 공간 또한 제공을 받지만, 덩으로 지역사회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혜택까지 얻는다면 더 좋지 않을까? 게다가 그 쿠폰이나 마일리지가 다른 곳에서 제공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혜택을 담고 있다면, 사람들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라도 도서관에 발걸음을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어떨까? 우선 도서관은 수집한 자료를 시민들에게 유통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니까, 책이나 DVD 등의 자료를 하나 빌려갈 때마다 10점의 마일리지를 적립해 준다. 그런 뒤 그 마일리지가 1000점 이상이

되면 지역사회 내 어떤 가게에서든 현금처럼 쓸 수 있게 해보자. 도서관으로서는 대출 양을 늘리고, 시민들은 자료도 보고 더불어 포인트도 쌓을 수 있으니 일석이조라 생각된다. 만약 이 방법이 어렵다면, 소비자의 날 하루만의 특별 행사로, 지역사회 내 여러 가게들의 협조를 얻어 특별 할인 쿠폰을 발급받아 시민들에게 제공을 해주는 것도 또 다른 방법이겠다. 해당 가게들은 홍보 효과를 볼 것이기 때문에 전혀 손해가 되는 행사가 아닐 것이라 생각된다. 물론 이 행사를 위해서는 원조를 해줄 수 있는 곳을 미리 물색하는 것이 좋겠다. 도서관의 색깔을 조금 더 살릴 필요가 있다면, 서점이나 도서 대여점과의 연계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만약 이 방법도 어렵다면 마지막으로 일정 점수를 쌓을 때마다 문화상품권을 주는 것도 한 방법이다. 마일리지와 문화상품권을 연계해 이미 시행하고 있는 곳으로는 통영도서관이 있다.

※ 인터넷 참고정보원 : 한국소비자원(<http://www.kca.go.kr>)

③ 세계 자원봉사자의 날

매년 12월 5일. 1985년 UN에서 자원봉사자 활용제도를 제정한 것을 기념해 시작된 자원봉사자의 날. 현재 국내 지자체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수만 약 600만 명에 이른다.

도서관은 이용자들이 다양하고 많은 것만큼, 많은 인적 자원이 필요한 곳이다. 그러나 늘 직원의 숫자는 부족하기만 하다. 따라서 도서관 기본 업무만을 수행하는 것도 늘 벅차다. 그런 실정이니 행사 하나를 운영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는가. 따라서 여러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통해 적극적인 도움을 주어야 한다. 그런데 마침 우리나라에도 도서관에서, 도서관과 함께 자원봉사를 실

천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고 있다. 반납 받은 책을 가져다 꼬고, 장비를 도우며, 쾌적한 환경 유지를 위한 일에 이르기까지 자원봉사자들의 손길이 필요한 곳은 많다. 만약 자원봉사자가 특정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이라면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들의 재능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지식이 없더라도 크게 관계없다. 사서들이 해야 하는 여러 업무 가운데 비교적 간단한 업무를 지원만 해주어도, 사서들이 전문적인 일을 수행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인적 자원이 없어서 활용을 못하고 있을 뿐인지, 많기만 하다면 훨씬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도서관들은 좋은 인적 자원을 확보해 그들과 함께 서비스를 해나가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는데, 만약 이미 자원봉사자 제도가 잘 정착된 곳이라면 그들을 위해 1년에 한 번쯤은 의미 있는 날을 갖는 것도 좋겠다. 마침 세계 자원봉사자의 날과 같이 의미를 부여하기에 알맞은 날이 있으니, 그 날을 자원봉사자 축제일로 삼아 1년 동안의 성과를 나누며 서로를 적극적으로 치하하면 어떨까 싶다. 나아가 자원봉사자 확충이 필요한 곳이라면 그런 방안도 미리 모색해 실천을 하는 날로 삼으면 알맞겠다.

※ 인터넷 참고정보원 : 1365자원봉사포털(<http://www.1365.go.kr>)

④ 세계인권선언기념일

매년 12월 10일. 1948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이 국제연합총회에서 채택되었고, 1950년 제5차 국제연합총회에서 기념일로 선언하였다. 이 날은 모든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로우며 존엄과 권리에 관해 평등하다는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을 이해하고, 세계인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여러 가지 운동이나 기념 행사를 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세계인권선언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하여

세계인권선언일에는 매년 법무부 주관으로 각종 기념행사를 행하는데, 공휴일은 아니다. 다만 1973년 3월 30일 제정·공포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6615호)에 따라 정부 주관 기념일로 정해져 있다.

우리나라는 다문화 국가이다. 따라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축 있는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고 있다. 이런 변화는 도서관에게도 서비스 대상 및 방법 등의 확장을 가져오게 만들고 있다. 이미 다문화 전문 도서관이 설립되어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도서관 내에 다문화실을 둔 곳도 있다. 또한 다문화 가정의 구성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도 있으며, 다문화 가정 구성원들이 모이는 곳과 연계를 해서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도서관들도 있다. 그야말로 도서관들도 다문화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서비스 방안을 모색해 실천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다문화 가정 구성원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한글과 한국 문화를 배우는 선에 그치는 것이 대부분이다. 또한 지역사회 및 복지 관련 기관들에서도 활발히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차별화도 기해지지 않고 그 분들을 유입하기도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세계인권선언일을 다문화 가정(결혼 이주 남성 및 여성 가족, 새터민 가족 등)과 함께 하는 기회로 삼아 보면 어떨까 싶다.

실시해 볼만한 프로그램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우선 결혼 이주 여성 가운데는 우리말에 큰 어려움이 없는 분들이 계시다. 그분들이 시간대별 선생님이 되어 자국의 문화가 담긴 그림책을 읽어주고 이어서 관련 내용들을 설명해 준다면, 아이들은 여러 나라의 문화를 가까이에서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관련 책에 대한 흥미도 높아져 자연스레 대출 건수도 늘 것이라 예상된다.

두 번째로 제안하고 싶은 프로그램은 중 · 고 · 대학생들을 활용한 다문화 가

정 아이를 위한 멘토링이다.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은 엄마의 부족한 언어 실력 때문에 일반 가정의 아동보다 여러 측면에서의 어려움을 겪는다. 특히 학령기에 접어들면 학업이 부진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 자원봉사가 필요한 중·고·대학생들을 활용해 일대일 멘토링을 실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면 도움이 될 것이다. 다만, 멘토링은 한 번의 만남으로 끝나기보다는 지속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하므로, 이 날을 멘토와 멘티의 만남 및 지정일로 정하면 되겠다. 비록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은 아니지만 도서관이 매개가 되어 대학생들이 관내 고등학생들과의 만남을 통해 멘토링을 실시한 사례(경기도립중앙도서관 김포분관), 독서 부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우수 고등학생들이 멘토가 되어 ‘책 읽어 주는 선배’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한 사례(전북 정읍 기적의 도서관)가 있다.

※ 인터넷 참고정보원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포털

(<http://consult.humanrights.go.kr>)

⑤ 크리스마스(성탄절)

크리스마스는 전 세계인의 축제일이다. 때문에 크리스마스를 앞둔 시점부터 서서히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은 물론, 이브라 불리는 전날과 당일에는 곳곳에서 크고 작은 행사가 열린다. 덕분에 시민들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추억을 만들 기회를 많이 갖는데, 도서관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없다. 다만 로비에 크리스마스트리를 전시하는 곳이 있을 뿐, 정작 크리스마스 당일은 법정 공휴일이기 때문에 휴관을 한다.

따라서 어떤 행사를 기획해 실시하기가 어려운데, 혹시 가능하다면 이런 것을 시도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다. 우선 크리스마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산타클로스이다. 그는 흰 수염과 붉은색 복장, 그리고 사슴이 끌어주는 썰매로 정형화 된 인물이며, 그가 나타나면 어떤 선물을 가져다준다고 믿고 있

다. 그래서 아이들은 크리스마스에 커다란 양말을 걸어둔 채 잠이 드는데, 도서관 사서들이 산타클로스 복장을 하고 이용자들의 집에 찾아가 책이나 혹은 도서관에서 만든 홍보 물품을 선물해 주는 것이다. 이런 시도를 통해 도서관은 책이라는, 정보라는 선물을 평생 안겨줄 수 있음을 알려 준다면, 그 선물을 받은 아이는 도서관에 자주 방문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 늘 선물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더불어 부모들에게는 도서관에서 이런 행사도 한다는 놀라움을 가질 것이며, 도서관이 기대하는 바대로 자녀들을 적극적으로 도서관과 책의 세계로 인도할 것이다.

이 내용을 개조식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도서관 몰래 산타 교실〉

① 프로그램 운영 목표

- 크리스마스에 도서관과 책이 매개체가 되어 가족 간 좋은 추억을 쌓게 됨으로써 책 읽는 가족문화를 만들 수 있다.
- 도서관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도서관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② 프로그램 운영 개요

- 운영기간 : 12월 중 4회 정도 교육(주1회, 또는 1주간 4회)
- 운영시간 : 1일 2시간 이내
- 대 상 : 유아 및 어린이를 둔 부모(아빠, 엄마) 약 20명 내외
- 장 소 : 문화교실, 어린이자료실
- 접수방법 : 홈페이지 선착순 접수

③ 사전 준비사항

- 수강 신청 시 자녀에게 선물하고 싶거나 선물 받고 싶은 도서에 대해 사전 파악하여 교육 참석
- 과목별(동화 구연, 미술, 레크리에이션 등) 강사 섭외 및 일정 조정
- 산타 복장, 교육 물품 등 구입

④ 프로그램 구성 <표 5>

순서	프로그램 내용	비고
1	크리스마스 행사 진행 사전 프로그램 구성하기	개인별 역할 분담
2	노래, 율동, 인형극, 마술쇼 등 연습	사전 연습
3	노래, 율동, 인형극, 마술쇼 등 연습	사전 연습
4	행사 총 연습	사전 연습
5	12.24 행사진행	가족 초대 행사진행

• 가족 초청 행사(12. 24)

- 자녀에게는 비밀로 하고 크리스마스이브에 공연 본다면 가족과 함께 도서관 방문
- 산타 복장을 입은 부모님이 합동 공연 진행
- 공연 후 자신의 자녀에게 산타가 책 선물 증정(깜짝 파티)
- 이날 하루는 어린이자료실을 야간에 개방하여 부모님과 같이 책을 읽다가 갈 수 있도록 협조해 줌.
- 동화 속 그림책 모습의 포토-존을 만들어 사진촬영 가능하도록 하고 가족사진을 찍어 줌.

⑤ 소요예산 항목 <표 6>

구 분	산출내역	비 고
강사 수당	도서관별 산출기준 적용	
산타 복장	산타 복장 일체 구입	계속 사용
기타 재료	공연에 사용되는 물품, 홍보 현수막 등 제작 ※ 책 선물은 도서관 기증도서 활용.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부모님이 직접 준비토록 하여 자녀에게 책을 선물토록 함.	

⑥ 연계사업

- 행사 당일 프로그램 별 참여모습을 사진에 담아 행사 후에 전시회 개최
- 몰래 산타 동아리를 조직하여 향후 크리스마스에 소외계층 어린이들을 찾아가는 정기적인 행사로 확대 운영(지역 내 보육원, 지역아동센터 등의 신청의 받아 매년 운영)
- 대학생, 청소년들에게 몰래 산타 교육을 시켜 자원봉사로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 가능

두 번째 행사는 지역사회 내 교회와 연계를 하는 방안으로써, 교회의 구성원들은 크리스마スイ브에 신도들의 집을 돌며 새벽송을 부른다. 새벽송은 예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전한다는 취지를 갖고 있는데, 그 의미에 도서관이 동참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방법은 크리스마스 전과 후 일주일 동안을 크리스마스 시즌으로 정해서 관련 도서를 전시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홈페이지나 지역 언론을 통해 홍보도 하고, 미리 관내 교회나 성당의 주보를 통해서 알리기도 하면 되겠다. 나아가 새벽송을 실시할 때 도서관에서의 행사도 함께 알릴 수 있도록 한다면, 훌륭한 기관 연계 행사가 될 것 같다.

이 외에도 12월에는 국제 장애인의 날(12월 3일), 국민교육헌장선포기념일(12월 5일), 세계 이주민의 날(12월 18일) 등의 기념일이 있고, 대설과 동지 등의 절기도 있다.

(2) 1월

1월에는 명절 가운데 신정인, 절기 가운데 소한과 대한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신정은 설날이라 불리는 구정(음력 1월 1일)에 밀려 명절로서의 색깔을 거의 잃었다. 따라서 특별한 행사를 제안하기가 쉽지 않은 때이다. 그래서 모든 공공

도서관이 1월 중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겨울방학 독서교실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주제별 독서교실 운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독서교실은 공공도서관이라면 지침에 의거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행사이다. 따라서 모든 공공도서관은 여름 및 겨울방학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간혹 중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곳도 있음) 4일에서 5일 동안의 독서교실을 실시하는데, 담당자들은 항상 어떤 내용으로 구성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한다. 물론 매년 대상을 바꾸어 실시하기 때문에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뀌어도 프로그램에 수정을 가하지 않는 곳들도 있지만, 매회 새로운 주제로 접근을 하려는 곳들도 있다. 그렇다 보니 자연스레 준비 과정에서 머리가 아프겠지만, 참여 아동들에게 보다 집중적이면서도 유용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은 당연하다.

다음에 제시하는 사례는 과천시정보과학도서관에서 실시했던 독서교실 프로그램 계획으로, 2010년 여름방학, 2011년 겨울 및 여름방학에 실시한 내용이다. 세부 주제를 미리 제시하자면 2010년 여름방학에는 환경, 2011년 겨울방학에는 우리 문화, 2011년 여름방학에는 예술로 진행을 했고, 2012년 겨울방학에는 도서관이라는 주제를 정했다고 한다. 이처럼 과천시정보과학도서관은 독서교실을 계획할 때 주제를 먼저 정한다. 그런 다음 참여 아동들이 함께 읽고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도서를 한 권 정한다. 그런 다음 다양한 분야로의 접목을 꾀해 독서교실을 실시한다. 즉, 환경이라는 주제를 정했다면 관련 도서 또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입해 아이들에게 배부를 해주고 읽어오도록 한다. 그런 뒤 첫 날 첫 시간에 도서관 이용교육을 실시하는 것 이외의 시간들은 모두 환경과 관계된 내용들로 채워, 아동들이 읽어온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바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어 환경을 주제로 한 토론 및 논술, 환경 노래 만들기, 환경 사진 액자 만들기 및 전시회, 환경에게 쓰는 편지 등은 이 주제에 따른 활동들이다.

구체적인 계획서의 예는 다음〈표 7·8·9〉과 같다.

〈표 7 - 독서교실 계획서 예시 1〉

- 주제 : 환경과 함께하는 여름 -

차시/시간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1교시 09:30- 10:10	개교식, 도서관 이용 안내 및 자료 찾는 법	토론 및 논술 - 도시화, 우리에게 득이 되는가, 해가 되는가?	환경 사진 액자 만들기 및 전시회 - 추억의 사진으로 보는 아름다운 우리 환경	환경 전문가로 가는 상식 퀴즈 - 나는 환경 왕!
2교시 10:20- 11:00				
3교시 11:10-11:50	환경 점검하기 - 환경님, 안녕하세요?	환경 노래 만들기 및 콘서트 - 우리는 환경 수비대	환경에게 쓰는 편지 - 환경야,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수료식
4교시 12:00-12:40				
준비물	필기도구	필기도구, 가위, 풀, 색연필, 도화지	필기도구, 감정 일기 노트	필기도구

〈표 8 - 독서교실 계획서 예시 2〉

- 주제 : 문화유산 -

차시/시간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1교시 09:30-10:10	개교식, 도서관 이용 안내 및 자료 찾는 법	난 단순한 우표가 아니야! - 우표에 담긴 역사와 문화 엿보기	우리 고장의 역사와 문화 살펴보기	내가 역사 문화의 달인! - 역사 문화 퀴즈 왕 뽑기
2교시 10:20-11:00				
3교시 11:10-11:50	놀이로 여는 마당 - 뭉치놀이로 만나는 친구들	토의 - 새 우표에 들어갔으면 하는 역사나 문화는? 토론 - 전통 문화 VS 외래문화	표현 활동 - 역사 문화 우표 만들기	수료식
4교시 12:00-12:40				
준비물	필기도구	필기도구	필기도구, 색연필, 크레파스, 사인펜, 자 등	필기도구

〈표 9 - 독서교실 계획서 예시 3〉

- 주제 : 예술 -

차시/시간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1교시 09:30-10:10	개교식, 도서관 이용 안내 및 자료 찾는 법	판소리 - 나는 판소리 가수다! (판소리 경연대회)	그림 - 작품을 만드는 나의 붓 (가방에 표현한 나와 독서)	독서퀴즈 - 내가 예술가의 달인! (퀴즈 왕 뽑기)
2교시 10:20-11:00				
3교시 11:10-11:50	마당놀이 - 놀이로 마음 열기	서예 - 나도 명필 (부채에 쓴 손 글씨)	시 - 방랑으로 엮은 협동 시 (협동 시 쓰기)	수료식
4교시 12:00-12:40				
준비물	필기도구	필기도구, 붓펜, 부채	필기도구, 물감 등 채색 도구	필기도구

(3) 2월

2월은 떠나가는 겨울과 함께 찾아오고 있는 봄이 공존하는 달이다. 따라서 아쉬움과 함께 설렘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달이기도 한데, 사람들 역시 그런 감정 속에서 변화에 대한 준비를 한다. 도서관 또한 새 문화프로그램(평생교육프로그램)들로 단장을 하고 이용자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데, 그렇다면 2월에 실시할 수 있을 행사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함께 모색해 보도록 하자.

① 입춘

양력 2월 4일경, 태양이 시황경 315°에 왔을 때를 입춘 입기일로 하여 이후 약 15일간이 입춘기간에 해당한다. 음력으로는 정월의 절기로 동양에서는 이날부터 봄이라고는 하지만, 추위는 아직도 강하다.

그러나 입춘 전날이 절분(節分)인데 이것은 철의 마지막이라는 뜻이다. 이날 밤을 해넘이라고 부르고, 콩을 방이나 문에 뿌려서 귀신을 쫓고 새해를 맞다고 한다. 그러므로 입춘을 마치 연초(年初)처럼 본다. 최근에도 행해지는 입춘의 풍습으로는 종이에 입춘을 송축하는 글을 써서 대문에 붙이는 일이다. 보통은 입춘대길(立春大吉 : 입춘에 크게 길하다)이라고 적어 대문에 붙이며 이를 입춘첩(立春帖) 또는 입춘축(立春祝)이라고 불렀다. 옛날에는 설날이 되면 대궐에서 신하들이 연상시(延祥詩)를 지어 올렸는데, 이때 잘 지어진 글을 기둥이나 난간에 붙였고 이것을 춘첩자(春帖子)라고 불렀다. 이것이 전래되어 양반집과 민가나 상가의 대문과 기둥에 글귀를 붙이는 풍습이 된 것이다. 또한 입춘에는 한해의 액운(厄運)을 물리치고 재수(財數)를 기원하는 굿을 하기도 하는데 이를 입춘 굿이라고 한다.

대표적인 글귀로는 ‘입춘대길 건양다경(立春大吉 建陽多慶 : 봄이 시작되니 코

게 길하고 경사스러운 일이 많이 생기기를 기원합니다.),' '부모천년수 자손만대영(父母千年壽 子孫萬代榮 : 부모는 천년을 장수하시고 자식은 만대까지 번영하라.),' '수여산 부여해(壽如山 富如海 : 산처럼 오래살고 바다처럼 재물이 쌓여라.)' 등이 있다.

입춘은 24절기 가운데 첫 번째 절기로, 크게 길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입춘방을 써서 대문에 붙이는 행사가 아직도 성행을 하고 있다. “춘첩자(春帖子)와 연상시(延祥詩)를 매년 새로 짓게 하라.”(세종 7년, 1425. 12. 1), “입춘대길(立春大吉)이라는 네 글자를 정성스럽게 써서 행궁(行宮)의 내외에 붙이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선조 26년, 1593. 12. 16) 등의 조선왕조실록 기록에서 보듯이 조선시대 궁중에서도 입춘을 맞이할 때 문신들이 지어올린 연상시(延祥詩) 중에서 좋은 것을 뽑아 궁궐 전각의 기둥이나 난간에 써 붙였다고 하는데, 조선 왕실의 미풍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박물관 등에서는 해마다 입춘방 써주기 행사가 열리고 있는데, 도서관에서도 지역 내 문화원과 연계를 해 전시회를 겸해서 실시를 해 볼 수 있겠다. 행사기간 동안 도서관을 찾은 분들에게는 “입춘대길(立春大吉) 건양다경(建陽多慶)”, “부모천년수(父母千年壽) 자손만세영(子孫萬世永)”, “천증세월인증수(天增歲月人增壽)”, “춘만건곤복만가(春滿乾坤福滿家)” 등의 여러 문구(春祝) 중 하나를 택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을 하면 저명한 서예가께서 조선시대 궁궐의 기둥에 붙이기 위하여 사용한 문양과 규격에 따라 작성된 용지에 입춘첩을 써주면 될 것이다.

※ 인터넷 참고정보원 : 뿌리넷(<http://www.poori.net>)

② 밸런타인데이((St.)Valentine's Day)

그리스도교의 성인 발렌티노(Valentinus, 밸런타인은 영어발음)의 축일. 2월 14일. 3세기 후반에 순교한 같은 이름의 성인(축일도 동일)이 2명이 있으며, 또한 사적불명의 다른 수도사도 있었다고 하는데, 어느 인물에 유래하는지는 확실치 않다. 오늘날에는 영미를 중심으로 연인들이 카드(Valentine card)나 선물을 주고받는 날로서 알려졌으며,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여성 쪽에서 사랑을 밝힐 수 있는 날로서 초콜릿을 선물하는 것이 성행하고 있는데 이 습속의 기원은 고대 로마의 풍요 기원제 루페르칼리아(Lupercalia)에 있다고도, 이 날부터 새가 교미를 시작한다는 서구의 민간전설에 의거한다고도 한다.

여전히 상업성에 기인한 날이라며 비판도 많지만, 사랑하는 사람 혹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마음이 담긴 카드와 함께 선물을 줄 수 있는 날이라는 의미로 보자면, 특히 표현에 인색하고 서툰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꽤 좋은 이벤트일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다. 마침 달콤한 초콜릿을 함께 하는 날이기 때문에 더욱! 그래서 밸런타인데이에는 연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해 보면 어떨까 싶다.

먼저 성인 이용자 가운데 여자 친구나 애인을 둔 남자 분들을 모집하자. 프로그램 제목은 ‘추억을 만드는 밸런타인데이’ 라고 정하고, ‘밸런타인데이에 여자 친구에게 특별한 선물과 함께 추억을 만들어 주고 싶은 분을 모집합니다’ 라는 설명을 달아 공지를 하자. 행사는 밸런타인데이에 실시를 하면 더 의미가 있겠으나, 평일인 경우 직장을 다니는 분들은 시간을 내기가 어려울 수 있겠다. 따라서 밸런타인데이가 있기 바로 전 주 주말에 행사를 실시하

는 것이 좋겠다. 행사에서 활용될 프로그램은 북 아트이다. 북 아트의 장점은 다양한 형태의 책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며, 그것이 꽤 고급스러우면서도 정성이 담긴 선물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하트 책을 만들어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글을 쓰게 하고, 사진을 가져올 수 있다면 둘만의 사진을 담을 수 있는 액자 책을 만드는 것도 좋겠다. 나아가 다이어리를 만들 수 있다면, 그 안에 그동안의 연애 과정을 꼼꼼하게 기록해 선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다. 북 아트 만들기 및 밸런타인데이 이벤트를 위한 준비가 끝나면, 그 시간에 맞추어 여자 친구들을 도서관으로 오게 한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각자 준비한 선물을 건네주고, 함께 준비한 사람들로부터 축하를 받는다면 오래도록 가슴에 남는 추억이 될 것이다. 이 행사는 특별한 것을 원하지만 그런 아이템을 생각해 내지 못한 남자 분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개조식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사랑의 책 만들기 - 밸런타인데이〉

① 프로그램 운영 목표

- 청년들에게 널리 알려진 밸런타인데이를 긍정적 행사로 전환하여 따뜻한 정서 함양
- 한국인에게 미숙한 감정 전달 계기 마련

② 프로그램 운영 개요

- 운영기간 : 매년 밸런타인데이 전주 토요일
- 대 상 : 관내 청년(대학생 및 미혼 남녀)
- 장 소 : 문화교실(평생교육실)
- 접수방법 : 홈페이지 선착순 접수

③ 연계방안

- 지역 사회 인적자원과의 연계 : 우수사례 공모를 통한 시민 강사 초청
- 지역 사회 기관과의 연계 : 관내 대학교에 협조 공문을 통해 참여 학생들 선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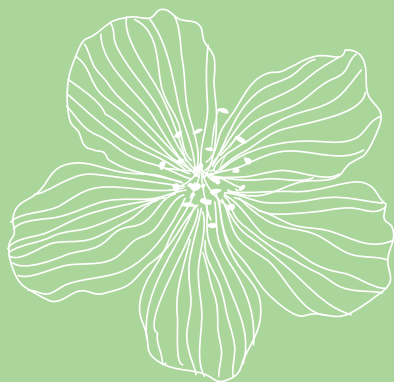
④ 프로그램 구성 <표 10>

순 서	운영 시간	프로그램 제목	프로그램 내용
1	13:00~13:30	break time	자기소개
2	13:30~15:00	내 감정 알아보기	강의 및 관련 동화책 읽기
3	15:00~16:30	사랑의 책 만들기	북 아트
4	16:30~17:30	함께 나누기	내가 만든 책 사례발표
5	17:30~18:00	선물 만들기	초콜릿 만들기

⑤ 소요예산 항목 <표 11>

구 분	산출내역	비 고
강사 수당	1회 강의 단가	'특별 강사' 수당 지급
재료비	북 아트 재료, 초콜릿, 수료증 제작	

이 외에도 2월에는 음력 설날(1월 1일, 1월에 포함된 경우도 있음)과 정월대보름(1월 15일), 세계 습지의 날(2월 2일), 2·8독립선언일, 우수(2월 19일), 강화도 조약 체결일(2월 26일)이 있다.



겨울 · 봄 · 여름 · 가을 그리고 도서관



02

봄, 시민들 마음에
도서관을 심다

02



봄, 시민들 마음에 도서관을 심다

春不耕種 秋後悔(춘불경종 불후회)

봄에 밭 갈고 씨 뿌려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가을이 되어 추수할 것이 없어서 뉘우치게 된다.

— 주자십회(朱子十悔)—

1. 봄, 그리고 도서관

봄 길

정호승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 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강물은 흐르다가 멈추고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꽃잎은 흩어져도
보라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 있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봄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사랑하다가 죽어버려라 / 정호승 지음 / 창작과비평사』

사람들이 비록 겨우내 긴 잠을 자는 것은 아니지만, 겨울이라는 계절에는 다른 생물들처럼 위축되어 있기 마련이다. 그래서인지 자연스레 봄을 기다리고, 드디어 봄이 오면 새싹이 고개를 내밀듯 밝고 따뜻한 햇살을 쫓아 나오기 마련이다. 마치 광합성을 하려는 식물들처럼 말이다. 그러다 보니 벌이 좋은 곳에는, 길이 좋은 곳에는 사람들이 북적인다. 스스로 봄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것이다.

그런 기운 때문인지 봄은 공공도서관에도 활기를 가져다준다. 독서교실 등 겨울방학 프로그램들이 모두 끝나면 공공도서관은 문화 행사에 있어 잠깐의 휴식기를 갖는다. 물론 그때에도 자료실과 열람실은 활발히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지만, 문화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을 때보다는 이용자 계층이 제한된다. 그러다가 봄의 시작과 함께 문화 프로그램들이 시작되면, 여러 이용자들은 저마다의 씨앗으로 다가와 도서관이 펼쳐 놓은 넓은 마당에 그것을 심으려 한다. 향후 도서관을 밝혀주는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고 나무로 자라날 자원들이 찾아오는 셈이다. 추위를 피해 강남으로 날아갔던 제비가 씨앗을 물고 돌아오는 것처럼 말이다. 그렇다면 그들을 맞이하는 도서관은 어때야 할까? 도서관이 펼쳐 놓을 마당은 기름져야 하고, 종종 물과 함께 영양분도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그들이 깊은 곳까지 뿌리를 내려서 해마다 꽃향기를 전해 주고 과일도 맺어 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모든 것의 시작은 작은 씨앗에서부터이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자라나 어떤 모습이 될 것인지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다. 하지만 심을 때부터 정성을 기울여 보살핀다면 분명 모두가 기대하는 모습이 될 것이다. 따라서 공공도서관은 모든 이용자들을 위한 마당을 활짝 펼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서로의 마음에 씨앗을 심을 수 있어야 한다. 마침 도서관에도 봄이 왔으니...

2. 국내 공공도서관 운영 사례 : 3월-5월

여느 시골집들이 그렇듯 어린 시절 내가 살던 집에는 넓은 마당이 있었다. 그마당은 흙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많은 비가 내리면 질척거리려 걸음을 걷는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철마다 다양각색의 꽃이 필 때면 잘 손질된 정원에 와 있는 기분을 안겨 주었다. 또한 밤나무 및 감나무 등 몇 그루의 유실수들은 가을이면 어김없이 열매를 선물해 주기도 했기에, 그럴 때면 마당이 마치 과수원이 된 듯한 기분도 들었다. 게다가 밭과 논에서 수확한 것이 있으면 그것들을 먹을 수 있는 상태로 바꾸기 위한 작업이 활발히 이루어졌는데, 그럴 때면 마당이 마치 식품 생산 공장과도 같았다. 마당은 나만의 용도로 활용한 적도 있는데, 만약 친구들을 초대하는 날이면 함께 뛰어 놀 수 있는 운동장의 역할을 해준 것이다. 더불어 명절 때 가족들이 모두 모일 때면 평상이나 명석을 펴고 함께 밥을 먹는 식당이자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카페도 되어 주었다. 이처럼 내게 ‘마당’ 이라는 공간은 늘 풍성함으로 기억되어 있다. 그래서인지 공간이 넓은 건물을 지날 때면 어떤 용도로 쓰이고 있는지 자세히 보게 된다. 또한 관리가 쉽지 않아 생활할 자신은 없지만 마당이 있는 집을 마냥 부러워하며 지내고 있기도 하다. 언젠가는 그런 공간을 다시금 가져보고 싶다는 바람을 품은 채 말이다.

최근에 개관하는 도서관들은 시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인지 그들의 삶(라이프 사이클) 속에 자리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여유로운 공간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데, 이런 측면은 한적한 공간에 자리를 하고 있어 시민들의 접근성은 떨어지지만, 상대적으로 공간적 여유는 더 많은 도서관들과 대비가 된다. 물론 각각의 위치는 운영에 있어 장단점이 있을 테지만, 아무래도 공간적 여유가 있으면 다양한 행사를 운영하는데 유리한 면이 있을 것이다. 그만큼

장을 펼칠 마당이 넓을 테니 말이다.

다음에 소개하는 사례는 3월에서부터 5월에 걸쳐 도서관에서 운영된 것으로, 도서관의 얼굴과도 같은 것들이다. 결혼식을 앞둔 새색시처럼 부끄럽다며 프로그램이 소개되는 것을 원치 않은 공공도서관도 있으나, 이런 기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알려져 좋은 프로그램이 전국의 도서관으로 확대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소개를 한 것도 있다. 그러니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한 곳에 걸맞은 자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나아가 더 많은 프로그램들이 특색이 있는 것들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전하고 싶다. 자, 그럼 풍성하면서도 활기찬 느낌이 드는 봄의 프로그램들을 꺼내어 마당에 펼쳐보자.

1) 가평군립중앙도서관 2011년 상반기 문화프로그램

(2011. 3. 28-7. 16)

〈세계문화유산과 함께하는 역사여행〉

- ① 대상 및 인원 : 초등 3-4학년, 20명
- ② 운영시간 : 매주 토요일 13:00-14:30
- ③ 내 용 : 한국의 세계문화유산의 종류와 특징 등 알아보기

〈세계문화유산 파헤쳐 보기〉

- ① 대상 및 인원 : 초등 5-6학년, 20명
- ② 운영시간 : 매주 수요일 14:30-16:00
- ③ 내 용 : 세계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 방법 탐구

2) 경기도립녹양도서관 2011년 상반기 평생교육프로그램 (2011. 3. 10-4. 28)

〈창의력 로봇 교실(초급)〉

- ① 대상 및 인원 : 초등 3-6학년, 20명
- ② 운영시간 : 매주 목요일 15:00-16:50, 총 8회
- ③ 내 용 : 로봇 조형 기초
- ④ 준 비 물 : 필기도구

3) 평택시립도서관 문화행사/강좌 (2011. 3-12월)

〈아빠가 들려주는 이야기〉

- ① 대상 및 인원 : 초등학생 2-3학년, 10명
- ② 운영시간 : 매주 토요일 14:00-15:00
- ③ 내 용 : 주중에 진행되는 자원봉사자들의 책임여주기 프로그램 '그림책 읽어 줄게요'에 참가하기 어려운 초등 저학년 어린이들과 평일 자원봉사 활동이 어려운 직장인 자원봉사자와의 만남을 통해, 자원봉사자의 개인적 역량을 발휘하여 지역사회 회의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장을 열고, 이를 통해 상호 즐거운 독서를 경험하게 하고자 함.

3. 프로그램 운영 제안

1) 봄의 특성을 활용한 프로그램

봄은 초록으로 가득한 계절이다. 풀이며 나무, 꽃에 이르기까지 대자연이 살아 숨 쉬는 향기를 내뿜는다. 그래서 봄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나고 있는 마당이나 들, 산이 먼저 떠오르고, 사람들 또한 그 안에

서 함께 하고 있는 정경이 자연스레 연상된다. 때문에 봄에는 자연 속에서 이루어지는 크고 작은 행사가 많다. 따라서 봄의 특성을 활용한 도서관 프로그램 역시 그런 차원을 중심에 두고 생각해 보았다.

(1) 유비쿼터스 이동도서관

깊은 우물에 두레박을 던져서 물을 길어 올리듯 기억 저장소에서 한참을 찾아내야 하는 걸 보면 이미 오래전 일이 되었는데가 보다. 내가 살던 아파트 단지에는 매주 목요일마다 책을 한 가득 실은 차가 왔다. 지금이야 도서관이 많이 생겼지만, 그 당시만 해도 전체 시에 두 개밖에 없었고 그마저도 접근성이 떨어져 한번 이용하려면 마음을 단단히 먹고 가야 하는 곳에 자리하고 있었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거나 모이는 곳에는 요일별로, 시간대별로 이동도서관 차량이 있었다. 나도 가끔 그 차에서 책을 빌려 읽었는데, 아직도 항상 그 자리에서 사람들을 맞이하며 책을 빌려주던 이동도서관 차량에 대한 기억은 선명하다.

이동도서관은 도서관의 자료 · 장비 · 직원을 도서관 봉사를 제공받을 수 없는 지역주민의 생활주변으로 운반하여 도서관 봉사를 제공하는 이동식 분관도서관을 말한다. 순회문고 · 순회도서관 · 이동문고 · 자동차문고 · 자동차도서관이라고도 하며, 영어로는 Mobile Library, bookmobile, Book Car 등으로 불린다. 분관을 설치할 수 없는 조건 때문에 도서관 혜택이 미치지 못하는 원거리 지역주민에게 도서관 자료와 봉사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려는 공공도서관의 전역봉사로써, 각종 이동수단에 따라 자동차 · 선박 등 그 종류는 다양하나 오늘날에는 자동차를 변형하여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한국의 첫 이동도서관은 1920년의 철도도서관이라 할 수 있다. 1960년대에 국립도서관과 서울 시시립도서관(현 서울남산도서관)에서

순회도서관을 운영하였다. 자동차에 의한 이동도서관은 1971년 4월 서울시립도서관을 시작으로 그해 9월 광주전일도서관, 1970년대까지 동대문도서관과 대구시립도서관 등 극소수의 도서관에서 운영되었다. 문화체육부와 기타 공공기관에서는 1980년대 이후 관심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다. 이들 도서관은 사회적·경제적·문화적으로 소외된 집단에 대하여 도서관 이용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요구자료의 대출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계발 및 독서경험을 제공하고 상담하며, 도서관의 이용방법을 교육한다. 또한 도서관이 없는 벽지학교나 부실한 학교도서관에 대한 대출도서 지원과 노인정을 대상으로 하는 순회대출문고의 역할을 한다.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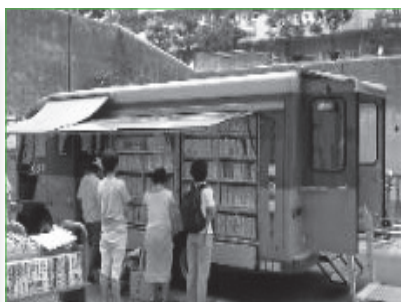
찾아가는 도서관이라고 하면 현대와 같이 정보 매체가 발달한 시대에 뒤떨어진 서비스 방식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히려 편리한 매체가 많다 보니 굳이 도서관에 오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적극적인 서비스가 될 수 있겠다. 물론 모든 계절에 운영할 수도 있는 서비스이지만, 특히 봄이라는 계절의 특성상 야외 활동이 많아 도서관에 방문할 시간을 내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한층 효율적인 방안일 수 있다. 나아가 이 방법은 과거 혜택이 미치지 못하는 원거리 지역주민에게 도서관 자료와 봉사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려는 공공도서관 전역봉사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언제 어디에나 존재한다.’라는 라틴어 ‘유비쿼터스(Ubiquitous)’의 의미를 활용해, 지역 내 행사가 있는 곳이면, 시민들이 있는 곳이면 언제 어디에든 달려가는 이동도서관을 운영해 보면 좋겠다. 마침 경기도에는 문화시설을 제대로 누릴 수 없는 산간지역 주민 등 소외 계층을 위하여 경기도 미술관과 배영환 미술가가 함께 설계하여 오픈한 컨테이너 이동식 도서관 ‘내일’이 있다. 따라서 그 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인데,

비록 적은 공간이어서 많은 자료를 품고 있지는 못하지만, 어느 누군가에게는 우주처럼 넓은 꿈을 꿀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럼 먼저 국내 및 해외에서 운영되고 있는 이동도서관의 모습을 사진으로 만나본 뒤, 여러 형태의 이동도서관 서비스를 살펴해보도록 하자.

① 사진으로 보는 국내 및 해외 이동도서관⁰⁷⁾



〈그림7〉 미국 시카고의 이동도서관



〈그림8〉 일본 도요나카시립도서관의 이동도서관



〈그림9〉 남산도서관 이동도서관 내부



〈그림10〉 부천시새마을이동도서관

07. 네이버 백과사전 홈페이지(<http://100.naver.com>).

08. 리스토피아(<http://www.listopia.net>)에서 인용.

② 컨테이너 도서관 <내일>

컨테이너 도서관 <내일>은 문화시설을 제대로 누릴 수 없는 산간지역 주민 등 소외 계층을 위하여 경기도 미술관과 배영환 미술가가 함께 설계하여 오픈한 이동식 도서관이다. 그 외관을 보았을 때에는 예술품으로만 보이지만 내부에는 시민들이 마음껏 머무르고 독서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져 있다.⁰⁹⁾

이처럼 컨테이너로 제작된 도서관을 문화 소외 지역에 보내기 위한 프로젝트인 ‘내일을 여는 책방’은, 현재 경기도 내 5개 시군에 보내져 운영이 되고 있다. 먼저 시흥시 하상동 공원의 ‘맹꽁이 책방’을 시작으로 수원시 만석공원 내의 장애인을 위한 ‘느리게 읽는 미술 책방’, 남양주시 수동초등학교 건너편의 ‘반디책방’, 양평군 정배마을의 ‘배꼽마당’, 광주시 중부면 산성리 남한산성 정보화센터 옆 부지에 ‘남한산성 솔바람 책방’에 이르기까지의 다섯 곳이다.

③ 병영 독서프로그램 ‘독서마차’

이동도서관은 지역 내 모든 기관과의 연계를 꾀할 수 있는 서비스 방안이 될 수 있다. 다음의 기사 내용은 군부대와외의 연계를 통한 서비스 방안으로써 힌트를 제공해 줄 것이다.

병영 독서프로그램 ‘독서마차’는 병영도서관 조성이 어려운 최전방 소규모 부대에 찾아가는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부대 내 여가시간을 이용한

09. 류용재 외, 2009. 경기도 도서관의 연계화를 통한 활성화 방안 연구. 정책연구 2009-83. 경기개발연구원.

독서문화진흥을 꾀하는 프로그램으로 2010년 11월부터 2011년 4월까지 6개월 간 육군 제6군단에서 진행하였다. ‘독서마차’는 차량보강 및 도서 1,800권을 지원하였으며, 다양한 독서프로그램을 병행 운영하였다. ‘독서마차’는 차량에 도서를 싣고 부대를 순회하여 책을 대출해주는 소규모 이동도서관으로 사단별(5사단 28사단) 1개 차량이 70여개 부대를 순회 방문하였으며, 월평균 400명이 ‘독서마차’에서 도서를 이용하고 있다. 전 장병을 대상으로 독후대회를 실시하여 총 214편의 응모작 중 사단별(6군단, 5사단, 28사단)로 6편을 선정, 시상하였으며, ‘작가와의 만남’과 북 콘서트, 음악회 등 문화공연을 함께 개최하였다.⁽¹⁰⁾



〈그림 11-12〉⁽¹¹⁾

④ 찾아가는 도서관

이동도서관과는 성격이 약간 다르지만, 공공도서관들은 찾아가는 도서관을 활발히 운영하고 있다. 일례로 고양시 마두도서관은 2011년 8월 12일 관산동 복지회관에서 도서관 및 문화행사에 소외된 지역 어린이와 주민들을 위해 찾

10. 경기도사이버도서관. 2011. 경기도공공도서관연감.

11. 나눔뉴스(www.nanumnews.com). 2011년 10월 4일 사회면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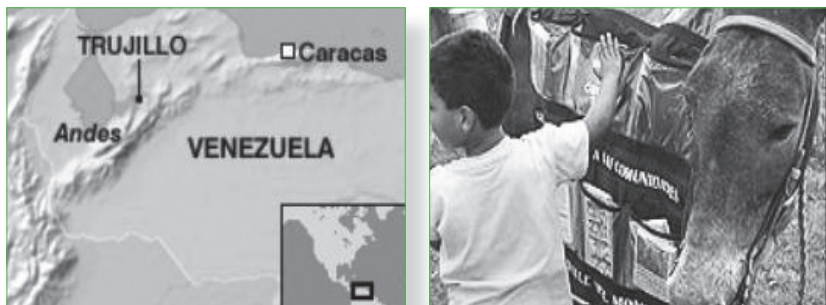
아가는 도서관 문화행사로 인형극 ‘왕치와 소새와 개미’를 선보였다.

또한 과주시도서관에서는 2011년 학교를 찾아가는 도서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서와 독서전문가가 관내 5개 중·고등학교를 방문해 도서부 학생을 대상으로 9월 15일까지 일정으로 도서관 정보검색과 진로 탐색 등 학교 도서관 이용자를 위한 정보이용법을 가르치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했다.

⑤ 찾아가는 도서관(이동도서관) 해외 사례⁽¹²⁾

㉦ 베네수엘라 노새도서관

베네수엘라의 서부, 안데스 산맥이 시작되는 지역은 자동차조차도 들어가기 힘든 험준한 지형을 가지고 있다. 덕분에 문화적 혜택은커녕 변변한 도서관조차 없어서, 이 지역 주민들은 바깥세상 정보나 지식을 얻을 수 없다고 한다. 이러한 불편을 안 이 지역의 대학에서는 주민들을 위해 노새의 등에 책을 싣고 산 속 마을들을 찾아다니며 책을 빌려준다고 한다.



〈그림 13-14〉⁽¹³⁾

12. (1) 베네수엘라, (2) 케냐, (3) 콜롬비아의 내용은 네이버 블로그 'dilibrary'의 '도서관이야기' 방에 게시된 글 '세계의 이색 이동 도서관들'에서 수정 인용한 것임(<http://dilibrary1004.blog.me/30090380543>).

13. 인터넷 홈페이지 <http://virkol8.egloos.com/4769946>에서 인용.

㉔ 케냐 낙타도서관

뜨거운 사막을 건너는 데에는 낙타보다 더 적합한 동물이 없을 것이다. 1996년 가리싸 지역에서 시작된 이 낙타도서관에는 현재 12마리의 낙타가 근무 중이다. 세 마리의 낙타가 팀이 되어 매일 오지로 출발을 한다고 한다. 한 마리는 책을, 또 다른 한 마리는 텐트를, 그리고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여분의 낙타까지 모두 세 마리가 한 조가 되어 총 네 팀이다.

㉕ 콜롬비아 당나귀도서관

콜롬비아는 내전이 40년 이상 계속되면서, 가난 때문에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다. 이런 곳에 희망을 배달하는 사람은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갖고 있는 소리아노 씨이다. 그의 당나귀들은 알파와 베토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 둘의 이름을 합하면 알파베토가 되고, 이 단어는 스페인어로 알파벳이라는 뜻이다. 소리아노 씨가 이 이름을 지은 이유는, 문맹률이 50%가 넘는 콜롬비아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글을 깨치고 세상을 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의 결과라고 한다. 그의 당나귀도서관은 매주 토요일 오후 산골 마을을 찾아간다.



〈그림 15-16〉¹⁴⁾

㉔ 싱가포르 주룡도서관

싱가포르 서쪽에 있는 주룡도서관은 청소년에 가장 역점을 두고 있다. 어린이 때에 비해 독서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청소년을 위해 끊임없이 이벤트를 마련하고 있다.

도서관 벽 한편에는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는 커다란 보드가 걸려 있는데 짧은 독후감이나 심경을 담은 메모지가 나부긴다. 답답한 마음을 호소하는 내용이 있는가 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사진을 갖다 붙이기도 한다. 사서는 어른이 아니라 또래의 학생들이 맡고 있는데 물론 정식 사서의 지도를 받는다. 또래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청소년 사서의 인기는 상당히 높다.

‘오아시스’라는 코너도 있는데 누구의 간섭 없이 가장 편한 자세로 바닥에서 책을 보거나 사색에 잠길 수 있다. 이곳에선 대부분의 도서관에서 금지되는 음료수까지 자유롭게 마시며 책을 읽을 수도 있다.

가장 아래층에 있는 어린이도서관에는 보호자가 동화책을 소리 내어 읽어

14. 인터넷 사이트 <http://diomedia.egloos.com/2584417> 및 <http://bit.ly/bM503s>에서 인용.

주는 곳이 따로 있다. 곳곳엔 ‘ASK’ 라는 팻말이 걸려 있는데 책을 읽으며 모르는 내용을 사서에게 물어보면 즉각 대답해준다. 물론 사서들은 ‘왜?’ 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한다.

싱가포르 도서관 역시 도서 반납은 어느 도서관에서든지 가능하다. 책 반납 때문에 빌리는 것을 꺼려하지 않도록 대여시스템을 일원화했는데, 수거된 도서는 소속 도서관으로 24시간 안에 돌려보내진다.

싱가포르는 쇼핑몰에도 도서관이 있다. 도심 오차드 거리 한복판의 가장 큰 다카시마야 백화점 5층에 도서관이 있어서 외지인들에겐 큰 놀라움을 준다.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에 도서관이 찾아가기 때문에 설치된 것이다. 도서관 흉내만 낸 간이 휴게실 정도라고 생각하면 큰코다친다. 소장하고 있는 책이 무려 15만권이나 된다. 1995년에 처음 문을 열었는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백화점에 쇼핑하러 왔다가 도서관에 들러 책을 빌려갔으나, 책 보러 온 김에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는 숫자가 늘어나 이제는 쇼핑몰에서도 반기게 됐다. 지금은 쇼핑몰들이 서로 도서관을 유치하려고 해 쇼핑몰 도서관은 10개로 늘었다.

공연장에도 도서관이 있다. 에스플러네이드라는 공연장 3층에 있는 도서관은 예술 관련 도서들로만 한정되어 있다. 공연장에 오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어 음악, 영화, 무용 관련 도서로 서가를 빼곡히 채웠다. ⁽¹⁵⁾

⑥ 찾아가는 도서관(이동도서관) 국내 사례

비록 봄에 운영된 사례는 아니지만, 경기도 가평군에서는 자라섬 세계오토

15. 윤재호 지음, 2010, 도서관이 만드는 행복한 세상, 서울: 나루코.

캠핑대회(8월) 및 국제제즈페스티벌 운영기간(2011년 10월 1일-10월 3일) 동안 캠핑라이브러리 운영을 통해, 관람객에게 수준 높은 여가 문화를 제공하고 책과 관련된 체험(도서 열람, 오디오 북 및 영화 감상, 북 아트 체험)도 제공하고 있다. 그밖에 유치원 등을 방문하는 책 버스, 도서관이 먼 지역으로의 순회 운영도 하고 있다. 다음은 캠핑라이브러리 사진을 모은 것이다.



〈그림 17-19〉 캠핑라이브러리

(2) 가족 독서나무 심기

봄이 되면 어딘가에 나무를 한 그루 심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마침 4월에는 식목일도 있기 때문에, 실제 식수 행사에 참여해 나무를 심는 분들도 계시다. 그 나무에 나름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렇다면 도서관에서도 나무를 심어보면 어떨까? 물론 실제 나무를 도서관 뜰에 심지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럴만한 공간도, 그럴 이유도 없기 때문에. 대신 이 나무는 도서관에서 와이어와 기타 재료들을 활용해 만들어 이용자들 중 분양을 신청한 가정의 거실에 심어 주지는(설치해 주지는) 이야기이다. 혹은 인조 나무를 구입해 분양을 신청한 가정에서 직접 조립을 할 수 있도록 전달을 해주지는 것이다. 그런 다음 이 나무에 ‘독서나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그 나무를 분양 받은 가정은 1년 동안 ‘○○공공도서관 지정 독서나무 키우는 집’이라는 나무 문패를 제작해 주어 뿌듯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이처럼 독서나무를 분양받은 집은 그 나무를 1년 동안 잘 키운 뒤 도서관에 반납을 해야 하는데, 여기서 나무를 잘 키운다는 의미는 온 가족이 독서를 한 뒤 그 내용을 간략히 적어서 나무 가지에 걸어준다는 것이다. 즉, 독서나무이기 때문에 읽은 책의 내용으로 영양분을 공급해 준다는 의미이다. 1년 동안 온 가족이 열심히 책을 읽고 그 내용을 기록한다면, 마치 나무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매달리 듯 가지마다 독서 기록들이 매달리게 될 것이다. 그럼 도서관은 1년 후 이 나무들을 그대로 전달받아 도서관에서 전시 행사를 열 수 있다. 날씨가 좋은 날에 도서관 입구 양쪽에 줄지어 나무를 세워 놓아서, 도서관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오가며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시적인 효과가 있는 행사가 될 것이다.

이 행사를 실시하려면 지정하고자 하는 가정의 수에 따라 나무를 분양하는데 따

른 예산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설치는 도서관에서 해주지만, 실질적인 운영은 각 가정의 구성원들이 해야 하기 때문에 실행 정도를 파악하기도 쉽지 않은 단점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 독서나무 심기는 가정과의 연계 방안이라는 데에 의미가 있고, 한 번 설치만 해주면 1년 동안은 운영이 된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이 나무는 해를 거듭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구입비용만 투자가 된다면 향후 큰 부담이 될 행사는 아니다. 이상의 내용을 개조식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족 독서나무 심기〉

① 프로그램 운영 목표

- 독서 가족을 양성을 통해, 책 읽는 지역 사회를 만들 수 있다.
- 장기적인 도서관 이용자를 확보할 수 있다.
- 도서관 홍보를 위한 가시적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

② 프로그램 운영 개요

- 운영기간 : 금년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1년 간
- 접수 및 선정 방법 : 홈페이지 선착순 접수된 가족 중 도서관 최다 이용 및 도서대출 최다 권수 가족을 우선 선정

③ 프로그램 운영 방안

- 독서나무 키우는 집 선정 후 독서나무 분양 및 문패 배부
- 분양 후 1년 동안 설치된 독서나무에 독서 기록 메모를 부착
- 분양 후 독서나무의 상태 파악을 위하여 주기적(월별 또는 분기별)으로 독서 나무 사진을 담당자에게 제출토록 하여 변화되는 모습 점검
- 분양 1년 후 독서나무를 회수해 도서관에서 전시회 개최

- 독서나무 분양 가족사진 및 소개, 독서나무의 시기별 변화모습 등을 전시물로 제작 하여 독서나무와 같이 전시

④ 소요예산 항목 <표 12>

구 분	산출내역	비 고
재료비	인조 나무 구입 × 책 읽는 집 지정 수	
	독서나무 키우는 집 문패 × 책 읽는 집 지정 수	

2) 국경일, 기념일, 명절 및 절기를 활용한 프로그램

(1) 3월

한 해의 시작은 분명 1월이지만, 봄과 함께 학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는 마치 3월을 한 해의 시작처럼 느낀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공공도서관도 마찬가지일 수 있는데, 도서관에서의 3월은 그동안 준비한 정규 프로그램들이 개강을 하는 때이다. 따라서 자료실이나 열람실 이용자만이 아닌 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한 이용자들까지 도서관을 찾아오게 되는 때이다. 그러므로 그들을 겨냥한 다양한 행사를 기획해 볼 수 있겠는데, 다음에 제시하는 내용들은 3월의 국경일과 기념일, 명절 및 절기 가운데 몇 가지에 대한 방안이다.

① 3·1절

3·1절(三一節)은 3·1 운동을 기념하여 제정된 대한민국의 국경일이자 공휴일이다. 1946년 3월 1일 제27회 기념식을 시초로 국가 경축일로 지정되었다. 1949년 10월 1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공포함으로써 국경일로 지정되었고,

2005년 12월 29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지금에 이른다. 이날에는 정부가 기념행사를 주최하여 순국선열에 대한 추모와 애도의 묵념을 올리며, 민족정신을 되새긴다. 3부 요인은 물론 각계각층의 유명 인사들이 모여 기념식을 거행하며, 나라의 광복을 위해 싸우다가 순국한 선열들의 유족 및 애국운동가들로 구성된 광복회 회원들은 따로 파고다 공원에 모여 그날의 깊은 뜻을 되새기는 의식을 거행한다. 이 날에는 전국 관공서 및 각 가정에서 대한민국의 국기인 태극기를 게양한다. 2011년에 92주기를 맞았다.

해가 지날수록 국경일의 의미는 퇴색되어만 간다. 특히 그 시대를 지나오지 않은 세대들이 태어나고 날로 발전을 거듭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 지금과 같은 시대가 올 수 있도록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희생한 순국선열들에 대한 추모 열기도 점차 줄어들어만 가고 있다. 마침 학교에서의 역사교육도 점점 비중이 줄어가고 있고 학생들로부터의 관심도 시들해지고 있으니, 조금 더 세월이 흐르면 누가 우리네 역사를 기억할 것인가 걱정이 될 정도이다.

따라서 3·1절과 같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게 큰 의미가 있는 날에는, 텔레비전에서 방영되는 잠깐의 기념식을 넘어 도서관 차원에서의 행사를 기획해 실시했으면 한다. 그렇다면 도서관에서는 어떤 행사를 기획할 수 있을까? 우선 3·1절에 떠오르는 유관순 열사 등을 추모하는 자료 전시회를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위인전 등을 한 곳에 모아, 그 분을 기리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다. 더불어 국가보훈처가 선정하여 1992년부터 매달 발표하는 ‘이 달의 독립운동가’ 전시회를 기획해 볼 수도

있겠다. ‘이 달의 독립운동가’는 독립운동가 중에서 매월 1분씩을 선정, 그 분들의 생애와 사상, 공적 등을 집중 홍보함으로써 자라나는 세대들의 애국심 함양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그 역시 크게 관심을 받고 있지는 못하다. 그러니 그동안 선정된 분들의 포스터를 모두 수집해 함께 전시를 하는 방안도 괜찮을 것 같다.

의미를 확장시켜 3·1 운동 때 민족대표 33인이 독립선언서와 독립통고서에 서명을 한 것처럼, 도서관 자원봉사자 대표 33인을 뽑아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취지의 발대식을 하는 것도 좋겠다.

※ 인터넷 참고정보원 : 국가보훈처(<http://www.mpva.go.kr>)

② 세계 여성의 날

1908년 3월 8일, 1만 5천여 명의 미국 여성 섬유노동자들이 러트거스 광장에 모여 10시간 노동제와 작업환경 개선, 참정권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인 것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한 날이다. 1910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제2차 여성운동가대회에서 독일의 노동운동 지도자 클라라 제트킨의 제창에 따라 결의하였다.

이후 여성들의 국제적인 연대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각국에서 여성들의 지위향상과 남녀차별 철폐, 여성빈곤 타파 등 여성운동이 활기를 띠기 시작해 2001년 현재까지 매년 3월 8일을 기해 세계적으로 기념대회가 이어져 왔다.

한국에서도 1984년부터 매년 3월 8일을 전후해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 전국여성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한국여성대회를 개최, 기념식과 여성축제, 거리행진, 여성문화제 등의 행사를 한다. 또 여성노동자들의 현실과 당면요구에 대한 확인 결의 및 단결, 소외되어 있는 여성노동자들의 현실에 대한 대중적 공감대 형성, 여성고용 · 실업문제 해결 등 여성과 관련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여성은 세계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구성원으로서, 종래의 소극적이면서도 수동적인 위치를 넘어 자신의 역할을 당당히 해내는 입장으로 바뀌어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고용 등에 있어서 완전한 평등을 이야기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세계 여성의 날은 여성의 현실에 대한 대중적 공감대 형성을 모토로 하고 있으므로, 3월 한 달을 여성을 위한, 여성에 의한 특강 릴레이를 운영해보면 어떨까 싶다. 만약 3월 한 달 동안 매주 1회씩 총 4회의 특강을 진행한다면, 지역사회 내 여성 기업인이나, 여성 교장선생님(혹은 여자 교수님), 여성 의사선생님 등을 모셔서 이야기를 나누는 기회를 가져보면 좋겠다. 물론 사서도 비율상 여자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사서직 가운데 한 분이 강사로 나서는 것도 권장하고 싶다.

이 행사에 참여하는 대상은 일반 성인이 아닌 여중생 및 여고생으로 할 것을 권한다(만약 관내에 여중이나 여고가 없다면 남녀공학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서 여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특강 실시). 특히 교육청 산하의 공공도서관들은 지역 내 학교로 공문을 발송해 참여 학교를 모집하고(전일제 CA가 있는 토요일에 진행을 한다면, 직장에 나가고 계신 강사 분에게도 부담이 되지 않는 만남의 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지원 학교에는 강사를 학교로 파견해 학생들과의 만남을 주선한다면, 특강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는 자아정체감 형성은 물론 진로 선택에도 영향을 받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다. 이 행사는 도서관에서 추진을 하지만 지역사회 내 기관과의 연계, 인적 자원들과의 연계가 필수적이다. 이 행사는 도서관에서 추진을 하지만 지역사회 내 기관과의 연계, 인적 자원들과의 연계가 필수적이며, 특강을 진행하는 여성강사는 강의 내용 중 자신의 인생이나 진로 결정에 영향을 주었던 ‘내 인생의 책 한권’을

꼭 소개하도록 하여 독서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시간이 되도록 했으면 한다. 이것은 사전에 도서관과 강사와의 사전 조율을 통해 진행되도록 하고, 도서관에서는 강의에 소개된 책과 청소년 권장도서 등을 같이 전시하여 독서 자료로 활용되도록 지원한다.

※ 인터넷 참고정보원 : 3.8 세계여성의날 기념 한국여성대회(<http://38women.co.kr>)

③ 세계 물의 날

인구가 늘어나고 경제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많은 국가에서 물 부족 현상이 나타났다. 이에 UN(United Nations:국제연합)에서는 1967년 세계 물 평화회의, 1972년 국제연합 인간 환경회의, 1977년 국제연합 수자원회의를 개최하였다. 또 1981년에는 '국제 식수공급과 위생에 대한 10년 계획(International Drinking Water Supply and Sanitation Decade)'을 수립하는 등 국제사회는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UN은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UNCED(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국제연합 환경개발회의)의 권고를 받아들여, 1992년 11월에 열린 제47차 국제연합총회에서 매년 3월 22일을 '세계 물의 날'로 제정·선포하였다.

목표는 먹는 물 공급과 관련된 문제들을 인식하고, 수자원 보존과 먹는 물 공급의 중요성을 알리며, 정부·국제기구·비정부기구·민간부분의 참여와 협력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대중매체를 이용한 교육 프로그램, 물 절약 캠페인, 하천 정화운동, 학생을 대상으로 한 홍보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94년부터 물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다.

2011년 3월 20일, 대구광역시 동성로에서는 2015년 제7차 세계 물 포럼 유치 성공 기원을 위한 '세계 물의 날 시민축제'가 열렸다. 이 행사는 (사)대구경북 늘푸른자원봉사단에서 주최하고 대구광역시와 중구청이 후원을 했는데, 행

사에는 물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담긴 판넬을 준비해 전시한 것은 물론이고, 조형물도 설치가 되어 오가는 시민들의 눈을 사로잡았다고 한다.

환경이라는 주제는 이제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가장 큰 화두 가운데 하나이다. 왜냐하면 결국 환경이 오염되지 않아야 사람들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환경’이라는 주제는 이미 많은 분야로부터, 여러 사람들로 부터 관심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언제 어디서나 다루어지기 때문인지 사람들의 관심은 높지 않다. 그래서 환경 관련 기념일에 도서관이 주최를 하는 행사를 하는 것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에 대한 걱정은 있지만,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 자원을 활용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지역사회 공간 자원과도 연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과감히 시도를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도서관에서 준비하는 행사도 시민들의 참여가 중요하겠지만, 때로는 참여자의 숫자보다는 의미를 추구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우선 행사의 제목을 ‘물 찾아 가는 길’로 정했다고 가정을 해보자. 참여 대상은 보호자가 1인 이상 포함된 가족으로 정하고, 행사를 실시할 일자와 접수 방법 등을 홈페이지와 도서관 게시판을 활용해 공지한다. 만약 세계 물의 날인 3월 22일이 행사일이라면(만약 이 날이 평일이어서 행사 진행이 어렵다면 주말로 변경을 해 실시해도 무방하다), 참여 가족과 함께 ‘한국 수자원 공사’로 견학을 간다(한국 수자원 공사는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니, 사전에 예약을 해두면 된다). 그곳에서 물에 대한 중요성을 느끼고 돌아온 뒤 집으로 돌아가기 전 도서관에서 ‘물’이나 ‘환경’과 관련된 책을 빌려가게 한다. 이어서 그 책을 읽고 관련 독서감상문 혹은 주장하는 글을 써서 제출하게 한다. 그럼 도서관에서는 접수된 글을 심사해서 시상하는 하는데, 이때에도 한국

수자원 공사의 협조를 얻어 ‘한국 수자원 공사 사장 상’을 시상할 수 있도록 하자. 강원도 원주시에서는 원주권역환경친화기업협의회的主관으로 ‘물 절약 글짓기 공모전’을 실시하고 있는데 참고할 부분이 있다. 이 행사는 환경부와 원주 지방환경청, 원주교육지원청, 한국수자원공사 횡성권 관리단, 원주환경친화기술센터, 강원환경기술인협의회가 후원을 하고 있고, 행사에 참여하는 대상은 초·중·고학생으로 정해 놓고 있다. 시상은 대상인 환경부장관상을 시작으로, 후원을 하고 있는 기관들에서 두루 참여해 시상을 해주고 있었다.

이밖에도 3월에는 납세자의 날(3월 3일), 경칩(3월 6일경부터 춘분 전까지), 해운의 날(3월 13일), 화이트데이(3월 14일), 춘분(3월 21일경부터 청명 전까지의 15일간), 국제 인종차별 해소의 날(3월 21일), 상공의 날(3월 셋째 수요일), 세계 기상의 날(3월 23일), 세계 결핵의 날(3월 24일)이 있다.

(2) 4월

미국의 시인이자 극작가, 그리고 문학 비평가이기도 했던 토머스 스텐스 엘리엇(Thomas Stearns Eliot)은 ‘황무지’라는 시를 통해 4월을 가장 잔인한 달로 꼽았다. 그 이유는 근대사를 살펴봤을 때 4월에 가장 많은 정치적 변수나 혁명, 사망, 정치가들의 구속, 그리고 경제적 침체 현상들이 집중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엘리엇의 말처럼 4월이 잔인한 달로 느껴지는 사람도 있겠고, 오히려 행복하기만 한 달로 느껴지는 분들도 있겠는데, 역시 그 판단 기준은 개개인의 생활 속에서 어떤 일들이 발생하는가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그러므로 도서관이 개입할 여지는 매우 적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는 보다 행복한 기억을 만들 수 있는 한 달로 만들어 줄

수는 있을 것이다. 다음은 4월에 실시해 볼 수 있는 행사들에 대한 예시이다.

① 만우절

4월 1일. 가벼운 장난이나 그럴듯한 거짓말로 남을 속이기도 하고 헛걸음을 시키기도 하는 날이다. 서양에서 유래한 풍습으로 '에이프릴 폴스 데이(April Fools' Day)' 라고도 하며 이날 속아 넘어간 사람을 '4월 바보(April fool)' 또는 '푸아송 다브릴(Poisson d' avril)' 이라고 부른다.

기원에 관해 여러 가지 설이 있으나 프랑스에서 유래되었다는 설이 일반적이다. 옛날의 신년은 현행 달력으로 3월 25일이었는데 그 날부터 4월 1일까지 춘분제가 행해졌고, 그 마지막 날에는 선물을 교환하는 풍습이 있었다. 그런데 프랑스에서는 1564년에 샤를 9세가 새로운 역법을 채택하여 새해의 첫날을 1월 1일로 고쳤으나 그것이 말단에까지는 미치지 못하였다. 때문에 4월 1일을 신년제의 마지막 날로 생각하고 그날 선물을 교환하거나 신년 잔치 흥내를 장난스럽게 내기도 했는데, 이것이 만우절의 시초가 되어 유럽 각국에 퍼진 것으로 본다.

또 '4월 바보'를 '푸아송 다브릴(Poisson d' avril)' 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4월의 물고기'라는 뜻으로 고등어를 가리킨다. 고등어는 4월에 많이 잡혀 식료품으로 애용되고 있으므로 4월 1일에 속는 사람을 '4월의 물고기'라고 하는 설이 있고, 4월이 되면 태양이 물고기자리를 떠나므로 그것이 기원이 되었다는 설도 있다. 또한 고등어를 뜻하는 마크로(maquereau)라는 말에는 '유괴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도 있으므로 4월은 사람을 속이는 유괴자가 많은 달이라 하여 그런 이름이 생겼다고도 한다.

동양 기원설도 있는데 인도에서는 춘분에 불교의 설법이 행해져 3월 31일에 끝이 났으나 신자들은 그 수행 기간이 지나면 수행의 보람도 없이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갔다고 한다. 때문에 3월 31일을 야유절(揶揄節)이라 부르며 남에게 헛심부름을 시키는 등의 장난을 치며 재미있어 한 데서 유래하였다고도 한다.

이밖에 예수 그리스도가 4월 초에 안나스(제사장)로부터 가야파(제사장)에게, 가야파로부터 빌라도에게, 빌라도로부터 헤롯 왕에게, 헤롯 왕으로부터 다시

빌라도에게로 끌려 다녔는데 그와 같은 그리스도 수난의 고사를 기념하여 남을 헛걸음시킨 데서 유래하였다는 설도 있다.

오늘날 만우절은 주변 사람들에게 가벼운 장난이나 농담으로 웃음을 주는 날로 인식되고 있다. 한편 해외 유명 언론에서는 다소 황당한 만우절 특집 기사를 게재해 대중이 혼란에 빠지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하는데 미국의 한 유머사이트(<http://www.museumofhoaxes.com>)에서는 이러한 일화를 모아 세계 100대 거짓말을 선정하기도 했다.

해마다 만우절이 되면 소방서나 경찰서 등의 관공서는 장난 전화로 인해 업무를 제대로 보기가 힘들 정도라고 한다. 그러다 보니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제대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일도 생긴다고 하니, 이 정도 거짓말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 가까운 사람들끼리 웃고 넘어갈 수 있을 정도의 신선한 거짓말은 삶의 활력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머가 부족한 면이 있는데, 도서관이 중심이 되어 한바탕 웃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자. 그러면서 도서관이라는 공간이 너무 근엄하기만 한 곳은 아니라는 인식도 심어주면 좋겠다.

미국의 Museum of hoaxes(거짓말 박물관)에서도 세계 10대 거짓말을 선정해 발표한 적이 있다고 한다. 그럼 우리도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한다는 거짓말을 선정해 판넬 전시를 해보면 어떨까? 도서관 이용자들은 그 판넬을 보며 잠시나마 미소를 지을 수 있을 것이다. 전시할 거짓말은 이용자들이 응모함에 넣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행사일 일주일 전쯤 마감 후 재미있으면서도 창의적인 것을 골라 전시를 해보자. 주제를 ‘도서관’ 과 관계된 것으로만 한정을 지어도 재미있을 것 같다.

※ 인터넷 참고정보원 : 거짓말 박물관

(www.museumofhoaxes.com/hoax/aprilpool)

② 세계 책의 날

1995년 국제연합총회에서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가 세계인의 독서 증진을 위해 정한 날로, 매년 4월 23일이다. 정식 명칭은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이다. 4월 23일로 정한 것은 에스파냐의 카탈루냐 지방에서 책을 읽는 사람에게 꽃을 선물하던 ‘세인트 조지’ 축일과 1616년 세르반테스와 셰익스피어가 동시에 사망한 날이 바로 이 날인 데서 유래한다.

현재 책의 날의 기원국인 에스파냐를 비롯해 프랑스 · 노르웨이 · 영국 · 일본 · 한국 등 전 세계 80여 개 국가에서 이 날을 기념하고 있다. 에스파냐에서는 책과 장미의 축제가 동시에 펼쳐지고, 영국에서는 이 날을 전후해 한 달간 부모들이 취침 전 자녀들에게 20분씩 책을 읽어 주는 ‘잠자리 독서 캠페인’을 벌이기도 한다. 한국에서도 출판 관련 단체와 대형 서점들을 중심으로 사진 공모전, 사랑의 책 보내기 운동, 도서관에 책 기증하기 캠페인 등을 벌이고 있다.

㉠ 저작권 특강

알아두면 유용한 저작권법에 대한 특강을 실시해 보자. 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특강이므로 이용자들이 도서관 소장 자료를 이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중심으로 예를 들어 설명하면 쉽고 유익한 강의가 될 것이다.

㉡ 책 기증하기 및 책 보내기 운동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읽을 책이 풍부하지 않은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책의 즐거움을 맛볼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책과 도서관을 멀리하는 등 그 소중함을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충분히 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읽지 않는 양서들을 도서관에 기증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그렇게 모은 책들을 선별해 책을 필요로 하는 국내 및 국외 기관에 보내는 행사를 기획해 보자. ‘차세대를 위한 대한민국 책보내기 운동연합회’와 같이 재외 동포와 차

세대들에게 한국인의 정체성을 높이기 위해 책을 보내는 기관과 협력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다.

※ 인터넷 참고정보원 : 유네스코 세계 책의 날 안내
(www.unesco.org/culture/bookday)

③ 도서관 주간

1965년부터 시작된 도서관주간(매년 4월 12일~18일)은 전국의 도서관들이 시민들에게 도서관의 가치와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도서관을 방문해 필요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데 목적을 두며, 나아가 도서관인들이 보다 나은 시설과 봉사를 할 수 있도록 검토할 기회를 갖고자 하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

전국의 도서관들은 도서관주간 기간을 활용해 도서관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한 노력을 한다. 그 일환으로 한국도서관협회에서 공모를 통해 선정된 표어를 곳곳에 게시해 가까운 곳에 공공도서관이 있음을 인식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작가 초청 강연, 동화 구연, 팝업 북 만들기, 연극, 빛 그림 상영 등 여러 행사를 기획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며 몸소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야말로 도서관다움을 통해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행사라고 할 수 있는데, 다음은 2011년 제47회 도서관 주간의 공식 표어로 선정된 ‘내 영혼의 러브마크, 도서관’ 과 ‘꿈꾸는 미래와의 소셜네트워크, 도서관’, ‘사랑해요 도서관, 곁에 있어 행복합니다.’ 와, 도서관 주간을 맞아 수원시 내 각 도서관들이 실시한 행사 일정을 모아 본 것이다. 도서관 주간 행사 역시 눈에 띄게 도서관다운 행사를 하는 곳은 거의 없지만, 한 지자체 내에 있는 공공도서관들의 프로그램을 한 눈에 비교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제시를 한다.



〈그림 20-22〉 제47회 도서관 주간 공식 포어⁽¹⁶⁾

16. 한국도서관협회 홈페이지(www.kla.kr).

〈표 13〉 수원시 각 도서관별 도서관 주간 행사 일정¹⁷⁾

도서관명	프로그램명	대 상	운영일시
선경도서관	‘덕혜옹주’ 권비영 작가 초청 강연회	수원시민 80명	4.20(수) 10:00~12:00
	패널씨어터 동화구연	어린이 및 학부모 50명	4.15(금) 16:00~17:00
서수원 지식정보도서관	신나는 팝업북(공룡책) 만들기	6세 이상-초등학생 60명	4.16(토) 1회 : 14:00~14:50 2회 : 15:00~15:50
북수원 지식정보도서관	〈인문학 미술특강〉 그림읽기, 마음읽기	수원시민 80명	4.12(화) 1:00~3:00
	〈인문학 야간강좌〉고미숙, 호모 쿵푸스!		4.13(수) 19:00~21:00
	‘이범’ 작가 초청 강연회		4.19(화) 19:30~21:30
영통도서관	십진 분류책 만들기	초등 2~3학년 25명	4.17(일) 10:00~12:00
중앙도서관	나만의 도서대출증북 만들기	유아 6·7세-초등학생	4. 15(금) 17:00~18:00
지혜샘도서관	영화동화연극	누구나 200명	4.17(일) 11:00~12:00
바른샘도서관	신나는 책 목걸이 만들기	5세-초등학생 100명	4.14(목) 1회 : 15:00~16:00 2회 : 16:00~17:00
슬기샘도서관	슬기샘 달 별 천주	초등학생 50명	4.15(금) 16:00~16:30
	어린이도서연구회와 함께 하는 빛그림 상영	5세-초등 2학년 100명	4.15(금) 16:00~16:30
	호야샘의 신나는 과학놀이	초등학생 60명	4.16(토) 1회 : 14:00~15:30 2회 : 16:00~17:30

마지막으로 수원시에 이어 성남시 구미도서관에서 실시한 도서관 주간 행사(2011년 4월 12일(화)-15(금))를 살펴보면, 이곳에서는 ‘엽서로 고마움과 미안함 전하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 행사는 부모님이나 형제자매 혹은 친구에게 미안했거나 고마웠던 일들을 엽서에 적어 전해주는 것이다.

17. 네이버 블로그 〈도란도란 수원e야기〉(<http://blog.naver.com/surwonloves>).

④ 장애인의 날

국민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기념일. 매년 4월 20일. 1972년부터 민간단체에서 개최해 오던 4월 20일 '재활의 날'을 이어, 1981년부터 나라에서 '장애인의 날'로 정하고 기념행사를 해왔다.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이전 재활의 날)로 정한 것은, 4월이 1년 중 모든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이어서 장애인의 재활의지를 부각시킬 수 있다는 데 의미를 둔 것이며, 20일은 다수의 기념일과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한편, 1981년 UN총회는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 주제로 '세계 장애인의 해'를 선포하고 세계 모든 국가에서 기념사업을 추진하도록 권장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세계 장애인의 해'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1981년 4월 20일 '제1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기념식은 장애인 인권선언문 낭독, 장애인 복지유공자 포상, 장애인 극복상 시상, 장애인 수기 발표, 축하공연 등으로 진행된다. 또한 이 날을 전후한 약 일주일간을 '장애인 주간'으로 정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벌인다.

장애인실을 운영하는 도서관이라면, 혹은 수원시사랑샘도서관이나 안양시 수리점자도서관처럼 장애인복지관 안에 있는 도서관이라면, 혹은 경기북부시각장애인점자도서관이나 경기시각장애인점자도서관처럼 장애가 있는 분들만을 이용 대상으로 삼고 있는 도서관이라면 장애인의 날이 더욱 특별할 것이다. 그러나 그 외 도서관들은 가족 중 장애인이 한 사람이 없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그들에 대한 관심도가 낮을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의 날 행사는 앞서 언급한 도서관들 중심으로 실시를 하는 것이 맞겠으나, 그렇게 되면 의미가 반감되기도 하겠고 어차피 행사를 준비할 곳들이기 때문에 통합적 차원에서 함께 실시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그래서 생각해 본 행사가 '사랑의 녹음도서'이다. 녹음도서는 음성도서라

고도 하는데, 녹음도서는 일반적인 도서가 활자로 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사람의 음성을 녹음 이용하는 것이 큰 특징이다. 과거에는 테이프의 형태로만 존재하였으나 컴퓨터 및 관련 기술의 발달로 90년대 후반부터 MP3 및 CD의 형태로도 제작되고 있다. 녹음도서는 활자도서를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이나 글을 읽지 못하는 분들의 독서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 및 배포되고 있다. 때문에 녹음도서의 제작은 사회복지 서비스의 한 측면으로 이루어지며, 이를 구현하기 위하여 판매용이 아닌 대여용으로 제작된다. 녹음도서의 제작 및 대여, 관리 업무는 시각장애인 관련 복지관에서 전담하고, 도서의 육성녹음은 주로 자원봉사자에 의해 이루어지며 녹음을 전문으로 하는 복지관 직원을 통해 이루어지기도 한다.

그런데 최근에는 기술의 발달로 한글로 된 파일을 읽어주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한다. 따라서 녹음 봉사를 할 수 없는 입장이라면, 재미있게 읽은 책의 원문을 한글에 옮겨주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되겠다. 이 작업은 컴퓨터에서 한글 작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므로, 먼저 장애인의 날을 맞아 미리 공지를 내 ‘사랑의 녹음도서’ 제작을 도울 사람을 모집한다. 그런 뒤 점자도서관 측으로부터 필요한 도서의 목록을 미리 받아 배분을 하고, 정해진 기일까지 해당 파일을 전달받아 다시금 보내주면 되겠다. 이 행사는 한국점자도서관과 협조를 해서 실시해도 괜찮을 것이다.

※ 인터넷 참고정보원 : 한국점자도서관(<http://infor.kbll.or.kr>)

그밖에도 4월에는 세계 자폐증 인식의 날(4월 2일), 제주 4·3 사건(4월 3일), 정신 건강의 날(4월 4일), 청명(4월 5일), 한식(4월 6일), 삼짇날(음력 3월 3일), 향토 예비군의 날(첫째 금요일), 신문의 날(4월 7일), 세계 보건의 날(4월 7일), 임시정부수립기념일(4월 13일), 4·19의거 기념일(4월 19일), 곡우(4월 20일), 과학의 날(4월 21일), 지구의 날(4월 22일), 정보통신의 날(4월 22일), 새마을의 날(4월 22일), 법의 날(4월 25일), 세계 말라리아의 날(4월 25일), 세계 지적재산권의 날(4월 26일), 충무공 탄신일(4월 28일) 등이 있다.

(3) 5월

5월은 가정의 달이라 불린다. 그밖에도 계절의 여왕, 신록의 계절 등으로도 불린다. 수식어가 많은 만큼 의미 있는 행사도 많은 달이다. 그래서 아이 데리고 놀이공원에도 다녀와야 하고(어린이날), 고향에 계신 부모님도 뵈러 다녀와야 하며(어버이날), 선생님께 감사 인사도 올려야 한다(스승의 날). 게다가 결혼식도 많은 달이니 정말 그 행사만을 따라다니기에도 벅차다. 따라서 도서관에서 다른 행사를 할 여력이 있을지, 차라리 조용히 이미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만 잘 운영을 하는 편이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 그래도 실시해봤으면 하는 행사를 제안하는 자리이니 몇 가지 방안을 꺼내보려 한다.

① 근로자의 날(노동절)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의욕을 더욱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휴일로, 매년 5월 1일이며 노동부가 주관한다. 8·15광복 뒤에는 5월 1일을 노동절로 기념하다가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창설 기념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 대신 근로자의 날로 정해 산업 발전의

주역인 근로자의 노고와 공헌을 기리는 행사를 개최하였다. 1973년 3월 30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6615호)에 포함된 뒤, 1994년부터 노동계의 오랜 요청을 받아들여 다시 5월 1일로 바꾸어 시행하고 있다.

직장인들은 편하게 쉴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기를 갈망한다. 따라서 주말이나 국경일 등의 공휴일, 명절 연휴나 휴가를 손꼽아 기다린다. 업무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재충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야 일도 더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노동절) 또한 같은 취지로 정해진 법정 공휴일이다. 그러므로 근로자들은 그 하루를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 보낼 수도 있다. 하지만 만약 가족이 있다면 조금 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생각해 본 행사가 '나의 진로, 내가 선택하기' 라는 직업 가이드 프로그램이다. 이 행사는 자신의 진로에 대해 고민이 많은 청소년들을 모집하여 직업인과 인터뷰를 통해 직업 소개 자료를 만들고 전시회 및 강연회를 개최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으로, 도서관 행사장을 방문한 가족은 아이들과 함께 자신의 직업 관련 소개가 담긴 판넬을 보며 뿌듯함을 느낄 수 있고, 지역사회 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은 관람을 통해 진로에 대한 체험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왕이면 다양한 직업군에게 인터뷰를 시도하도록 지도하고 연결해주는 것이 도서관의 역할이다.

〈나의 진로, 내가 선택하기〉

① 프로그램 운영 목표

-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직업의 세계를 알아보도록 함으로써 진로 고민 및 상담에 도움을 주는 계기 마련
-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직업관을 심어주어 건강한 사회인으로 육성되도록 자리 마련

② 프로그램 운영 개요

- 운영기간 : 5월중
- 대 상 : 초 · 중 · 고등학생 30명 내외 (2~3명씩 그룹으로 1개의 직업 선정)
- 장 소 : 문화교실(평생교육실)
- 접수방법 : 홈페이지 선착순 접수

③ 사전 준비사항

- 참가 희망자에게 조사하고 싶은 직업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관련자 인적정보 확인 및 사전섭외
- 청소년들에게 직접 분야별 직업인(10명 내외)을 섭외토록 하고 일정 조정
- 직업 단위별 사서직원 1명을 담당 지도교사로 선정하여 인터뷰 및 자료작성 지도

④ 지역사회 연계방안

- 지역 사회 인적자원과의 연계 : 지역의 분야별 직업인과 연계, 직업별 협의체를 통해 적당한 인물 섭외
- 지역 사회 기관과의 연계 : 관내 학교에 협조 공문을 통해 참여 학생들 선발

⑤ 프로그램 구성 <표 14>

순 서	프로그램 내용	활동내용	비 고
1	사전 교육	인터뷰 및 자료작성법 교육 해당직업 관련 도서자료 선정	
2	사전 교육	직업별 사전조사 하고 발표하기	
3	직업인 인터뷰	해당 직업인의 직장 방문 및 인터뷰 직장 방문이 어려울 시 도서관에서 실시	
4	자료 만들기	인터뷰 내용으로 직업소개 자료 만들기 시안 작성 및 발표, 보충자료 찾기	
5	자료 만들기	직업소개자료 완성	
6	발표회 개최	직업소개자료, 관련 도서 전시회 개최 해당 직업인과의 대화의 시간 마련	

⑥ 소요예산 항목 <표 15>

구 분	산출내역	비 고
도서 구입	해당 직업 관련 도서 구입	
재료비	판넬 제작비, 홍보비 등	

⑦ 연계사업

- 직업 관련 UCC 만들기 연계로 향후 직업소개자료로 활용 가능
- 완성된 직업 소개 자료를 관내 학교에 순회 전시하여 청소년들의 진로지도와 연계
- 전문 직업들과의 지속적인 유대를 통해 ‘살아 있는 도서관’ 행사 진행으로 관련 직업에 관심 있는 청소년들과 직업인과의 대화의 시간 마련

〈직업인과 인터뷰를〉

성명 :

나이 :

성별 :

현재 하는 일(직장) :

직급 :

이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자격 및 능력 :

이 일에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점 :

힘든 점 :

이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

※ 인터넷 참고정보원 : 고용노동부 고용정보시스템 워크넷

(<http://www.work.go.kr>)

② 어버이날

범국민적 효 사상 양양과 전통 가족제도의 계승 발전은 물론, 효행자와 전통 모범가정, 장한 아버이를 발굴해 포상·격려할 목적으로 제정한 기념일. 1956년 국무회의에서 해마다 5월 8일을 어머니날로 정해 17회까지 행한 뒤 1973년 3월 30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6615호)에서 어버이날로 개칭해 현재까지 기념식과 기념행사를 거행해 오고 있다. 제정 목적은 범국민적 효 사상 양양과 전통 가족제도의 계승 발전은 물론, 사회와 이웃에 모범이 되는 효행자, 전통 모범가정, 장한 아버이를 발굴해 포상·격려하는데 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행사를 주관하며, 포상 대상자를 각계각층에서 고루 선발해 효사상의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방 및 기관 특성에 맞게 행사의 다양화와 내실화를 추진하는데 중점을 두고, 각 시·도 및 시·군·구 등 기관별로 기념식을 실시한다. 그러나 정부 주관행사의 내실화 지침에 따라 중앙기념식은 하지 않는다.

어버이날은 본래 한국에서 생긴 것은 아니고, 사순절의 첫날부터 넷째 주 일요일에 아버지의 영혼에 감사하기 위해 교회를 찾는 영국·그리스의 풍습과, 1910년경 미국의 한 여성이 어머니를 추모하기 위해 교회에서 흰 카네이션을 교인들에게 나누어 준 일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다 1914년 미국의 제28대 대통령 토머스 우드로 윌슨(Thomas Woodrow Wilson)이 5월의 둘째 주 일요일을 어머니의 날로 정하면서부터 정식 기념일이 된 이후 지금까지도 미국에서는 5월 둘째 주 일요일에 어머니가 생존한 사람은 빨간 카네이션을, 어머니가 죽은 사람을 흰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고 각종 집회를 열며,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어머니에게 선물을 한다.

지금도 초등학교나 유치원에서는 어버이날이 다가오면 수업 중에 카네이션을 만든다. 그렇게 고사리 같은 손으로 종이를 자르고 접으며 만든 카네이션은, 어버이날 부모님의 가슴에서 하루 종일 빛나게 된다. 마치 자식이라는 훈장을 가슴에 달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 날에는 특별한 가족사진을 남길 수 있는 행사를 도서관에서 준비해 보면 어떨까 싶다. 이름 하여 ‘도서관 기념사진’, 제목 그대로 도서관에서 온 가족이 어버이날을 기념하여 사진을 찍는 것이다. 물론 배경은 도서관 전체 공간이다. 그렇게 찍은 사진은 한 달 동안 도서관에 전시를 한 후 각 가족에게 전달을 해주자. 그래서 그 추억을 평생 간직하게 하자. 만약 이 행사를 매년 진행한다면, 매년 도서관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가족이 탄생할 수도 있겠다. 그렇다면 그 가족은 도서관과 함께 크는 가족이 될 것이다.

③ 성년의 날

만 20세가 된 젊은이들에게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짊어질 성인으로서 자부심과 책임을 일깨워주고 성년이 되었음을 축하 격려하는 날로서 매년 5월 셋째 월요일에 국가청소년위원회가 행사를 주관한다. 1973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6615호)에 의거 4월 20일을 성년의 날로 정했다가, 1975년 5월 6일로 변경한 뒤 1985년부터 5월 셋째 월요일로 정해 기념일 행사를 열고 있다. 예로부터 나라 · 민족별로 다양한 성인식 행사가 있었는데, 한국에서도 고려시대 이전부터 성년례(成年禮)가 발달해 어린이가 어른이 되면, 남자는 갓을 쓰고 여자는 쪽을 찌는 관례(冠禮) 의식을 통해 공식적으로 어른이 되었음을 알렸다. 관혼상제(冠婚喪祭)의 첫째 관문인 ‘관’이 바로 이 성년례를 말하는 것이다.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만 20세가 되면, 지역이나 마을 단위로 어른들을 모셔 놓고 성년이 되었음을 축하하는 전통 의례를 치르는 곳이 많았으나, 갈수록 서양식 성년식에 밀려 전통 성년례의 모습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후에 담당기관이 국가청소년위원회로 변경)에서는 이러한 전통 성년례를 부활시켜 청소년들에게 전통문화에 대한 금지와 자부심을 심어주고, 전통 성년례에 담긴 사회적 의미를 깨우쳐 줄 목적으로 1999년부터 표준 성년식 모델을 개발, 전통 관례복장을 갖추고 의식을 주관하는 어른인 ‘큰손님’을 모셔놓고 상견례(相見禮) · 삼가례(三加禮) · 초례(醺禮)를 거쳐 성년선언으로 이어지는 성년의 날 행사를 한다. 이날이 되면 전국 각지에서 성년의 날 기념식을 열고 일정한 절차에 따라 성인식을 거행한다.

도서관에 가서 ‘빨간 책(성인 잡지의 속어)’을 볼 수 있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 물론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서 이미 야한 동영상까지 다 섭렵을 했을 것이기 때문에 사진밖에 담겨 있지 않은 빨간 책이 큰 관심을 끌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비로소 성인으로 인정을 받아 공식적으로, 그것도 공공장소에서 허락 하에 보는 빨간 책은 다른 느낌으로 다가올 것 같다. 그래서 성년의 날에 기획해 보았으면 하는 행사는 다소 과격적일 수 있는 ‘빨간 책 전시회’이다. 이 행사를 위해서는 우선 기관장의 열린 마음이 있어야 할 것 같고, 실사가 결정되면 서둘러 빨간 책을 확보해야겠다. 이어서 전시 기간 및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린 뒤 전시를 실시

하면 되겠다. 단, 이 행사는 성년의 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성인들만 참여할 수 있도록 연령의 제한을 두어야 하겠고, 입장 시 신분증을 확인하는 절차도 있어야겠다.

④ 세계 담배 없는 날(세계 금연의 날)

세계보건기구(WHO)가 '연기 없는 사회(smoke free society)' 조성을 목표로 1987년 5월 총회에서 창립 40주년을 맞이하여 결의한 날. 이날 하루만이라도 담배의 해가 없는 세계를 만들고, 흡연자가 없는 세상을 만들자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의도에 의해 5월 31일로 정하였다. 한국도 가맹한 WHO는 '모든 적절한 수단을 강구하여 국민이 금연하도록 할 것', '담배 판매자에게 당일 모든 담배 제품의 판매를 자숙하도록 지도할 것' 등을 결의하였다.

보건복지부는 2011년 6월 7일, 25개 시설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공포했다. 따라서 그로부터 18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PC방(유예기간이 24개월이기 때문에 2013년 6월 7일부터 전면 금연이 시행됨)을 제외한 24개의 시설은 전체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그 안에는 도서관도 포함이 되어 있다. 덕분에 앞으로 도서관에서는 담배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텐데, 아직은 전면 금지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야외 휴게실이나 흡연실 등에서는 필 수 있는 실정이다. 또한 어떤 이용자들은 화장실 내에서도 몰래 담배를 피우는데, 그러다 보니 크고 작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세계 금연의 날에는 공공건물에서의 금연 캠페인을 펼치면서, 2012년 12월 7일부터는 도서관 전체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되었음도 확실히 알려주면 좋겠다.

※인터넷 참고정보원 : 금연길라잡이(<http://www.nosmokeguide.or.kr>)

⑤ 입하

양력 5월 5·6일경으로, 태양의 황경(黃經)이 45°에 있을 때이다. 음력으로는 4월에 해당하며, 곡우(穀雨)와 소만(小滿) 사이에 든다. 여름에 들어섰다고 하여 입하라 하는데, 예로부터 입하 15일 동안을 5일씩 3후(候)로 세분해 청개구리가 울고, 지렁이가 땅에서 나오며, 왕과(王瓜 : 쥐참외)가 나온다고 하였다.

음력에서는 보통 4~6월 석 달을 여름이라고 부르지만, 엄격히 구분하면 입하 이후 입추(立秋) 전날까지를 여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입하 무렵이 되면 농작물이 자라기 시작하면서 몹시 바빠지는데, 해충도 왕성한 활동을 시작하기 때문에 병충해 방제는 물론, 각종 잡초를 제거하는 데도 힘을 쏟아야 한다. 특히 이 시기부터 들판의 풀잎이나 나뭇잎이 신록으로 물들기 시작하면서 찻잎을 채취하는 손길도 분주해진다. 보통 곡우 때 채취해 만든 차를 우전차(雨前茶)라 하여 최상품으로 여기지만, 입하 무렵에 만든 차도 이에 못지않다. 입하까지 채취한 찻잎으로 만든 차를 삼춘차(三春茶)·삼첨(三尖), 입하 후에 만든 차를 사춘(四春)·난청(爛靑)·장대(長大)라 하여 통칭 입하차로 부른다.

또 절기의 하나로 이즈음에 쌀가루와 쑥을 한데 버무려 시루에 찌 먹는 떡, 이른바 쑥버무리를 절식(節食)으로 먹기도 하고, 집안에 따라서는 색다른 음식을 마련해 농사꾼들의 입맛을 돋우기도 하였다.

우리 조상님들은 참으로 소박하면서도 멋스러운 분들이시다. 또한 순응적인 삶을 살면서도 유비무환의 자세 또한 잃지 않았던 분들이다. 그러나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문명의 혜택을 누리는데 급급해, 그 모든 것을 잃어가고 있다. 그래서 여름이 시작된다는 입하에는 조상들의 멋을 다시금 느껴보고, 더불어 곧 다가올 더위에도 대비할 겸 부채에 손 글씨 쓰기 행사를 준비해 보면 어떨까 한다. 즉, 참여자를 모집하여 시 또는 시조쓰기 교육을 실시하여 자신이 직접 쓴 자작시나 시조를 부채에 써 보는 것이다. 이 행사를 위해 필요한 재료는 부채와 붓 펜, 그리고 부채에 보고 쓸 문장이 있어야 한다. 부채는

전통 한지로 만든 합죽선이나 다양한 크기와 모양의 부채여도 상관없이 없겠다. 또한 부채에 쓸 문장은 도서관 자료 중 상대적으로 이용률이 적은 시집을 한 권 선택해서, 마음에 드는 시 구절 혹은 한 편의 시 전체를 옮겨 쓰게 하는 것도 방법이겠다. 손 글씨 쓰기가 끝난 작품은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기 전까지 여유가 있으므로 도서관에서 전시 기간을 갖고, 전시가 끝나면 각 참가자들에게 선물을 해서 여름 내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하면 되겠다.

⑥ 세계인의 날

세계인의 날은 다양한 민족적 문화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이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이다. 매년 5월 20일인 세계인의 날은 2007년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의해 제정되었고, 그 첫 번째 기념식은 2008년 5월 20일에 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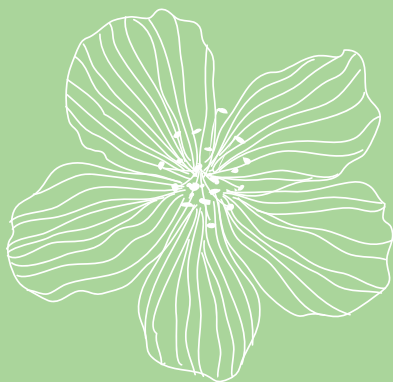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http://library.humanrights.go.kr>)에서는 세계인권선언기념일(12월 10일)에 즈음하여 전국의 도서관과 함께하는 인권 영화 상영회를 공동 개최한 적이 있다(2011년 12월 5일-11일). 이 영화제에서는 인권 영화 상영회를 신청한 도서관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작한 영화를 상영하고, 각 도서관에 따라 영화감상토론회, 인권도서전시회, 인권독후감 쓰기 및 그림 그리기 행사를 함께 진행함으로써, 인권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데 기여를 하였다. 이 행사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에서 세계인권선언기념일을 기념하기 위해 기획한 것이지만, 꼭 그 때에만 실시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마침 행사가 인권 영화를 상영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주말마다 소장 영화(DVD)를 상영하는 도서관이라면 비교적 쉽게 조직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세계인권선언기념일 주간에 실시를 하는 것도 방법이겠지

만, 세계인의 날이 있는 5월에 실시를 해도 무방하겠다. 왜냐하면 인권에 대한 중요성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자꾸 잊어버리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영하고자 하는 영화에 따라 대상을 달리해서 꾸준히 실시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다. 다음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작한 인권 영화 작품의 모음이다.

〈표 16〉 국가인권위원회 제작 인권 영화 목록

제 목	연 도	작품명	감 독	주 제	시 간
여섯 개의 시선	'02	그녀의 무게	임순례	외모	23
		그 남자의 事情	정재은		19
		대륙횡단	여균동	장애	15
		신비한 영어나라	박진표		12
		얼굴값	박광수	외모	13
다섯 개의 시선	'04	믿거나말거나, 찬드라의 경우	박찬욱	이주노동자	28
		언니가 이해하셔야 돼요	박경희	장애	22
		남자니까 아니잖아요?	류승완	남자	20
		배낭을 멘 소년	정지우	탈북청소년	26
		고마운 사람	장 진	비정규직	24
별별이야기 (애니메이션)	'04	종로, 겨울	김동원	중국동포	19
		낮잠	유진희	장애	13
		동물농장	권오성	소수자	15
		그여자네집	김준 외	남녀 성역할	11
		육다골대녀(肉多骨大女)	이애림	외모	10
세 번째 시선	'05	자전거여행	이성강	이주노동자	10
		사람이 되어라	박재동	입시위주 교육	13
		잠수왕무하마드	정윤철	이주노동자	16
		소녀가 사라졌다	김현필	소녀가정	22
		힘난한 인생	노동석	피부색	15
별별이야기2- 여섯빛깔 무지개 (애니메이션)	'07	당신과 나 사이	이미연	남녀 성역할	15
		BomBomBomB	김곡 · 김선	청소년 성소수자	21
		나어떻게	홍기선	비정규직	17
		세 번째 소원	안동희 외	장애	13
		아주까리	홍덕표	아동, 남녀성역할	15
시선1318	'09	아기가 생겼어요	이홍수 외	여성	15
		사방사방 사할라	권미정	다문화가정	17
		메리 골라스마스	정민영	인종 성, 나이 등	10
		거짓말	박용제	성소수자	22
		달리는 차은	김태웅	다문화가정	29
날아라 펭귄	'09	릴레이	이현승	10대 미혼모	21
		유 앤 미	전계수	청소년인권	20
		진주는 공부중	방은진	공부	19
		청소년 드라마의 이해와 실제	윤성호	예비88만원 세대	35
		인권일반	임순례	인권일반	99

5월에 국경일은 없지만, 대신 기념일과 절기 등이 많다. 따라서 약간만 고민을 해본다면 의미 있는 행사를 실시할 수 있는 날 또한 많은 것이다. 다음은 앞에서 소개하지 못한 기념일 등을 정리한 것이다. 근로자의 날(5월 1일), 세계 언론 자유의 날(5월 3일), 어린이날(5월 5일), 세계 적십자의 날(5월 8일),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 입양의 날(5월 11일), 자동차의 날(5월 12일), 식품 안전의 날(5월 14일), 세계 공정 무역의 날(5월 14일), 세계 가정의 날(5월 15일), 스승의 날(5월 15일), 세계 원거리 통신의 날(5월 17일), 5·18 민주화 운동 기념일(5월 18일), 발명의 날(5월 19일), 부부의 날(5월 21일), 소만(5월 21일), 가정위탁의 날(5월 22일), 생물종 다양성 보존의 날(5월 22일), 권농의 날(넷째 화요일), 방재의 날(5월 25일), 실종 아동의 날(5월 25일), 바다의 날(5월 31일).



겨울 · 봄 · 여름 · 가을 그리고 도서관



03

여름, 도서관과 열렬한
사 랑 에 빠 지 다

03



여름, 도서관과 열렬한 사랑에 빠지다

사람들은 모두 더위에 괴로워하는데 나는 여름 해가 긴 것을 좋아하노라.

- 소동파 -

1. 여름, 그리고 도서관

필자는 지난 2002년 6월 말, 이제 막 더위가 시작됨과 동시에 월드컵이 한창 열리고 있을 때 연수의 기회를 얻어 유럽에 다녀온 적이 있다. 방문 국가의 도서관 및 박물관을 둘러볼 수 있는 기회였는데, 장소를 옮길 때마다 든 생각은 IT 강국답게 컴퓨팅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훨씬 앞서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오랜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도서관 건물과, 그 도서관과 함께 나이를 먹었을 것 같은 사서 직원들 스스로의 자부심과 자긍심은 경외감을 갖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특히 스톡홀름도서관의 이동실에서 만났던 할머니 사서는 지금도 기억이 난다. 스웨덴에서 가장 유명한 화가가 그림을 그렸다는 스토리텔링 방에서 지금도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다던 그녀, 그녀의 모습은 사서라는 내 위치를 다시금 생각해 보게 만들었다. 이처럼 도서관과 자신들의 일에 자부심을 느끼는 그들은, 자신들이 계획하고 실행하는 일들, 즉 그들 스스로가 중심에 서 있는 프로그램들에 대해서도 무척 큰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 나아가 프로그램을 위해 방문하거나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 대상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모

습을 엿볼 수 있었는데, 그런 자세가 결국 시민들로 하여금 도서관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리라. 도서관을 생활의 중심에 놓고 필요한 전문 서비스가 있을 때마다 찾아가는 장소로 만들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 사회 문화적인 면에서 다르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비교를 해봐도, 분명 큰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이 차이에 대해 이번 기회를 통해 한 번쯤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그러면서 도서관에 대해, 사서라는 직업을 갖고 있는 나에 대해 다시금 생각을 해봐도 좋을 것이다. 어쩌면 이 차이는 바로 ‘우리’에게서부터 시작되고 있을지도 모르니까.

사람의 색깔은 그의 외모, 그가 입은 옷, 그의 말과 행동 등 여러 측면에서 나타난다. 그렇다면 도서관은? 건물의 모양 및 구성, 소장하고 있는 자료,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들, 도서관 운영자인 사서들 등으로부터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어느 것 한 가지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 모든 것들이 결국 도서관이라고 생각하고, 한 번 인식된 것은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2. 국내 공공도서관 운영 사례 : 6월-8월

도서관은 특히 여름에 사랑을 받는 곳이다. 왜냐하면 다른 어느 곳보다도 시원한 환경을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게다가 무료하지 않게 이용할 자료와 공간도 충분하니, 이보다 더 좋은 피서지가 어디 있겠는가. 따라서 도서관은 여름이라는 계절에 지쳐 있는 이용자들을 이끌기 위해서 갖고 있는 자원들을 십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물론 여기에 좋은 프로그램까지 더해진다면 이용자들은 도서관을 찾아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다음은 6월부터 8월까지 실시된

운영 사례 가운데 소개하고 싶은 것들을 모아본 것이다.

1) 군포시어린이도서관 어린이 경제교실

〈어린이 경제교실〉

- ① 대 상 : 관내 초등학교
 ② 운영기간 : 6월, 7월 초등학교 휴무 토요일
 ③ 운영시간 : 오전 10시~12시, 총 4회
 ④ 내 용 : 어릴 때부터 돈 관리하는 법을 체계적으로 학습함으로써 성인이 된 후에도 올바른 경제습관 형성에 기여. 유대인의 경제적 성공 배경에는 조기경제교육이 커다란 영향을 끼침.

운영 일시	접수기간	대상/인원	프로그램 내용
6.11(토) 10:00~13:00	6.1~6.3 (3일간)	초등 저학년(1~3)	[용돈이야기] - 용돈의 정의와 용돈으로 할 수 있는 일 알아보기 - 합리적인 용돈사용 위한 예산(계획) 세우기, 관리, 결산 - 부족한 용돈을 위한 홈 아르바이트 등 용돈 마련 방법 찾기 - 바람직한 용돈사용습관 OX 퀴즈
6.25(토) 10:00~13:00		초등 고학년(4~6)	[용돈이야기] - 용돈의 정의와 용돈으로 할 수 있는 일 알아보기 - 합리적인 용돈사용 위한 예산(계획) 세우기, 관리, 결산 - 부족한 용돈을 위한 홈 아르바이트 등 용돈 마련 방법 찾기 - 바람직한 용돈사용습관 OX 퀴즈
7.9(토) 10:00~13:00		초등 저학년(1~3)	[꿈을 키우는 경제이야기] - 신문 속의 정보 활용능력을 키우기 위한 프로그램 -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비즈니스 아이템 선정 - 팀을 이뤄 아이템 결정, 주식회사 설립 - 각자 역할에 맞게 아이템 구체화 (마케팅 전략, 판매 방법 모색) - 사업발표회를 통해 주변의 투자 유치 - 주식회사의 개념과 주식투자 방법 알아보기
7.23(토) 10:00~13:00		초등 저학년(1~3)	[꿈을 키우는 경제이야기] - 신문 속의 정보 활용능력을 키우기 위한 프로그램 -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비즈니스 아이템 선정 - 팀을 이뤄 아이템 결정, 주식회사 설립 - 각자 역할에 맞게 아이템 구체화 (마케팅 전략, 판매 방법 모색) - 사업발표회를 통해 주변의 투자 유치 - 주식회사의 개념과 주식투자 방법 알아보기

2) 가평군립도서관(중앙, 조종, 설악 통합 프로그램) 가족 독서캠프

〈가족 독서캠프〉 : 가평군립도서관 3개소(중앙, 조종, 설악) 통합프로그램

① 프로그램 운영 목표

- 조기독서 습관 형성 및 가정에서의 독서환경조성과 가족 간의 유대감 강화
- 바쁜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부모와 자녀가 함께 독서캠프에 참여하여 독서하며 대화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가족문화 형성

② 프로그램 운영 개요

- 운영기간 : 여름방학 중 1박 2일
- 대 상 : 초등생을 둔 4인 가족 20가족
- 장 소 : 연인산 캠핑장
- 접수방법 : 다독자 가정 및 다문화 가정은 초청, 기타는 선착순 접수

③ 사전 준비사항

- 가족 독서 골든벨을 위하여 권장도서목록 미리 배포
- 북 크로싱(책에 날개를 달자!)을 위하여 교환할 도서 1인당 1권씩 준비해오기
- 예코 컵 제작, 강사섭외, 교육 물품 등 구입

④ 프로그램 구성 <표 18>

순 서	프로그램명	비 고
1	책 읽어주는 군수님	군수님이 직접 책을 읽어 주고, 독서에 대한 특강을 갖는 시간
2	우리 가족 이해하기	참가가족들의 가족소개 및 독서 등에 대한 이야기를 자유롭게 이야기 나누기
3	생각의 날개!! 독서 (부모와 자녀에게 맞는 강의로 따로 진행)	부모 : 독서지도 전문가의 자녀 독서지도 강연 자녀 : 독서교육의 중요성 체험 및 독서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강연
4	골든벨 독서왕	참가가족을 대상 독서퀴즈 대회
5	책에 날개를 달아주자	참가가족이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을 한권씩 가져와 소개하고 교환하는 독서 나눔
6	레크리에이션	전문 레크리에이션 강사가 진행하여 참가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즐거운 친목의 시간

⑤ 소요예산 항목 <표 19>

구 분	산출내역	비 고
강사 수당	도서관별 산출기준 적용	
시설사용료	식비, 숙박, 시설사용료	
기타 재료	홍보비, 단체티셔츠, 에코컵, 도서, 상품, 간식 등	

⑥ 연계사업

- 행사 당일 프로그램 별 참여모습을 사진에 담아 행사 후에 전시회 개최
- 다문화 가족 및 책 읽는 가족 선정자들을 위한 가족캠프로 확산

⑦ 관련사진



<그림 23-24>

3) 고양시행신도서관 수시기획프로그램(2011. 7. 7-8. 25)

〈결혼 이민자 동화구연 지도〉

- ① 대상 및 인원 : 결혼 이민자 30명
- ② 운영시간 : 매주 목요일 10:00-12:00, 총 8회
- ③ 내 용 : 결혼 이민자를 대상으로 전래동화 및 창작동화 구연에 대한 각종 기법 지도

4) 성남시중원도서관 여름학기 문화교실(2011. 6. 10-8. 19)

〈그림책 다시 읽기〉

- ① 대상 및 인원 : 성인, 20명
- ② 운영시간 : 매주 금요일 10:00-12:00, 총 11회
- ③ 내 용 : 그림책을 분석적으로 읽고, 다양한 기법의 그림책을 감상해 보며 작가와 작품세계에 대해 알아봄.

3. 프로그램 운영 제안

1) 여름의 특성을 활용한 프로그램

「홍에 겨워 여름이 오면 가슴을 활짝 열어요 / 넝쿨 장미 그늘 속에도 젊음이 넘쳐 흐르네 / 산도 좋고 물도 좋아라 떠나는 여행길에서 / 마주치는 사람들마다 사랑이 오고 가네요.」

정점다리라는 그룹이 부른 노래 ‘여름’의 가사 일부이다. 노래 가사에도 담겨 있는 것처럼 여름이라는 계절은 젊음, 힘, 태양, 바다 등의 심상을 떠올리게 한다. 그래서인지 그 역동을 느끼기 위해서 어딘가로 떠나야만 할 것 같고, 그 안에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살아 있음을 느끼는 것 같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더위를 피한다는 명목으로 여름에 휴가를 떠나는 것이라. 사실 오가는

길도 많이 막히고, 식중독의 위험도 훨씬 높으며, 바가지 요금까지 극성을 부리는 때가 여름임에도 불구하고, 휴가의 뜻 그대로 일정 기간 동안 쉬려면 차라리 늦가을이나 겨울이 알맞은 계절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름에는 크게 두 측면에서의 프로그램을 기획해 운영해 보면 어떨까 한다. 한 측면은 이열치열(以熱治熱), 즉 열정과 힘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 또 한 측면은 북적거리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적이면서도 한가한, 그래서 시원함마저 느껴지는 프로그램을. 다음의 프로그램을 통해 그 힌트를 얻어 가시기 바란다.

(1) 이열치열 이한치한 책읽기

책을 읽기에 가장 좋은 때를 떠올리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을이라는 계절을 말하지만, 사실 그런 때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봄은 봄대로, 여름은 또 여름대로, 겨울도 그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충분한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책을 읽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따라서 가을만이 적기이기 때문에 그때를 기다리며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독서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있지 않은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름은 책을 읽기 위해 제거해야 할 요소가 많은 계절임에는 분명하다. 무엇보다 더위는 선뜻 책을 집어 들기 싫게 만드는 요소인데, 그래서 생각해 본 행사가 ‘이열치열 이한치한 책읽기’이다.

이 행사는 더우면서도 추위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것으로, 위로는 더위를 견뎌야 하고 아래로는 추위를 견뎌야 한다. 즉, 얼음 위에 발을 올리고 앉아 책을 읽으며 가장 오랜 시간을 견디는 사람이 우승자가 되는 게임이다. 따라서

가장 더운 날, 그것도 가장 더운 시간을 골라서 실시할수록 효과가 크겠다. 행사 진행을 위한 장소는 도서관 앞뜰이고, 직사광선을 피하기 위한 천막을 몇 개 설치해서 관람객과 참여자의 가족들이 쉴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겠다. 이어서 참여자들을 위해 의자 한 개씩과 맨발을 올려놓을 얼음 한 덩이, 그리고 그 시간을 건디며 읽을 책 한 권씩, 행사가 끝난 뒤 발을 닦을 수 있는 수건도 한 개씩 준비해 주면 되겠다. 모든 준비가 끝나면 행사를 시작하는데, 규칙은 매우 간단하다. 얼음에서 발을 하나라도 먼저 떼는 사람은 자동 탈락이고, 오랜 시간을 건디는 사람이 우승이다. 이 게임은 아동부, 청소년부(중, 고등학생), 대학생부, 일반 성인부로 나누어 각각 진행할 수도 있겠다.

(2) 한여름 밤의 북 콘서트

인천시도서관협회에서는 2011년 11월 24일부터 26일까지 유명 작가와 록밴드가 참가하는 릴레이 북 콘서트를 개최했다. 이 콘서트는 국제구호활동가이자 여행 작가인 한비야 씨를 비롯해, 구글 코리아에 학부생 최초로 입사해 화제를 모은 김태원 씨, 시골 의사 박정철 씨 등이 강연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 인천지역 이주노동자로 구성된 재즈밴드가 공연을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됐다. 이 행사 이외에도 북 콘서트는 이미 크고 작은 형태로 많은 곳에서 성황리에 개최되고 있는 인기 프로그램으로 자리를 잡았다. 따라서 그 포맷을 가져와 ‘한여름 밤의 북 콘서트’라는 제목 하에 실시해 볼 수 있겠다.

앞서 소개한 인천시 사례의 경우 인천 내 이주노동자 재즈밴드를 섭외해 인적 자원을 활용한 것은 물론, 다문화적인 측면까지 아우른 면이 돋보인다. 따라서 이처럼 지역 내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매우 좋은 사례가 될

것이고, 나아가 일반 이용자라 하더라도 자신이 감명 깊게 읽은 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지원자가 있으면 참여를 시키는 것도 뜻 깊은 행사로 자리매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한여름 밤의 북 콘서트 : 도서관 음악회〉

① 프로그램 운영 목표

- 음악과 함께 하는 즐거운 도서관 이미지 강화
- 즐겨 찾는 친근한 도서관 이용 활성화로 독서문화 확산

② 프로그램 운영 개요

- 운영기간 : 7월말~8월 중순
- 운영시간 : 1일 2시간 이내
- 대 상 : 누구나
- 장 소 : 도서관
- 접수방법 : 홈페이지 선착순 접수

③ 사전 준비사항

- 저자 섭외
- 음악회 진행사항 검토(사회자, 연주자 등)
- 프로그램 진행표 작성 및 출력(참석자 배포용)
- 책속 명 단락 낭송자 사전 모집

④ 프로그램 구성 <표 20>

순 서	프로그램 내용	비 고
1	음악 연주	
2	사회자 소개/책 소개	
3	음악 연주	
4	책속 명 단락 낭송	참여자
5	음악 연주 및 마무리	

⑤ 소요예산 항목 <표 21>

구 분	산출내역	비 고
강사 수당	도서관별 산출기준 적용	

⑥ 연계사업

- 학생 대상 교과서속 음악회 운영
- 감상문 공모

(3) 도서관에서 여름 나기

도서관은 지역사회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장소이다. 특히 전업주부들에게는 이웃과 함께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곳이 되어줄 수도 있다. 차를 마시며 수다를 떠는 것도 물론 좋지만, 책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시간은 더욱 유익할 것이다.

‘도서관에서 여름나기’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좋은 책을 나눌 수 있는 기회, 더불어 생활 소품을 만들 수 있는 장이 되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의 참여자는 향후 도서관 주부 독서회나 자원봉사자로서의 연계도 가능할 것이다. 세부 계획은 다음과 같다.

〈도서관에서 여름나기〉

① 프로그램 운영 목표

- 생활과 함께하는 도서관 이미지 강화로 도서관 이용 활성화
- 건전한 독서습관 유도로 독서생활화에 기여

② 프로그램 운영 개요

- 운영기간 : 7월말~8월 중순
- 운영시간 : 1일 2시간 이내
- 대 상 : 성인
- 장 소 : 도서관(도서관시설 및 주변 환경에 따라 도서관 뒤뜰, 시원한 장소 선택)
- 접수방법 : 홈페이지 선착순 접수

③ 사전 준비사항

- 이웃에게 권하고 싶은 자신의 책 선정 및 가져오기
- 책임기만으로 지루함을 없애기 위해 간단한 소품(책갈피, 클레이 인형)을 지도 할외부강사 섭외
- 교육 물품 등 구입

④ 프로그램 구성 <표 22>

순 서	프로그램 내용	비 고
1	자기소개 및 인사나누기	
2	모여앉아 자기가 읽은 인상 깊은 책 소개	
3	참여자가 소개한 책 바꿔 읽기	
4	책갈피 혹은 클레이 인형 만들기	외부강사
5	마무리	

⑤ 소요예산 항목 <표 23>

구 분	산출내역	비 고
강사 수당	도서관별 산출기준 적용	
책갈피 재료	색도화지, 가위, 풀, 코팅 용지, 끈, 색연필	
클레이 인형 재료	클레이	

⑥ 연계사업

- 성인 모임의 후속 독서회 또는 자원봉사단 조직
- 지속적인 연결로 도서관 서포터스 구성
- 도서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확산

(4) 자연과 놀자! : 숲 속 캠프

자연은 아이들의 놀이터이자 교육의 장이다. 왜냐하면 보고, 듣고, 만지며 느낄 수도 있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이다. 마침 계절도 여름이라면 야외에서의 활동이 자유로운 편이기 때문에 캠프 활동을 계획해 보는 것도 좋다. ‘자연과 놀자! : 숲 속 캠프’는 자연과의 만남은 물론 놀이가 필요한 도시 아이들에게 캠프를 통해 그 두 가지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돕고자 한 것이다.

〈자연과 놀자! : 숲 속 캠프〉

① 프로그램 운영 목표

- 꽃, 나무, 생물들이 함께 있는 숲 속 체험을 통해 생태계 및 자연의 소중함과 환경의 중요성을 어려서부터 인식할 수 있는 여름방학 도서관프로그램
- 자연과학 도서를 읽고 현장학습으로 연계하여 과학도서와 친해지는 계기마련
- 자연에서 느끼는 오감교육으로 창의성 증진

② 프로그램 운영 개요

- 운영기간 : 여름방학 중 2일(종일 프로그램)
- 대 상 : 초등생 3~6년(30명)
- 장 소 : 도서관, 꽃무지 풀무지 수목원
- 접수방법 : 선착순 접수

③ 사전 준비사항

- 자연과학 도서 목록 및 보리 세밀화 원화 준비
- 장소 섭외 및 숲 해설가 초빙
- 차량 예약 및 단체보험 가입, 명찰 및 수첩, 간식 등 준비

④ 프로그램 구성 <표 24>

순 서	프로그램명	비 고
1일	궁금해요! 자연	· 도서관에서 준비한 자연과학도서 읽기 · 보리 세밀화 원화 감상
2일	숲 해설가와 함께하는 자연과 놀자!	
	수목원 돌아보기	· 수목원 돌아보며 식생에 대해 알아보기 · 숲에 사는 식물, 숲에 사는 동물 알아보기
	분경 만들기	· 나만의 꽃 심어보기
	자연식 간식	· 찐 옥수수와 찐 감자, 녹차
	레크리에이션	· 참나무 6형제 구분하기
	숲에서의 오감놀이	· 솔방울 습도계 · 느낌저울 및 청진기로 생물의 소리 들어보기

⑤ 소요예산 항목 <표 25>

구 분	산출내역	비 고
강사 수당	도서관별 산출기준 적용	
운 영 비	식비, 입장료, 버스임대료	
기타 재료	홍보비, 재료비 등	

⑥ 연계사업

- 숲 속 음악회 및 숲 속 미술전시회로 확대 운영 가능

⑦ 관련사진



<그림 25>

2) 국경일, 기념일, 명절 및 절기를 활용한 프로그램

(1) 6월

6월에는 호국 보훈의 달이라는 의미가 이미 담겨져 있다. 따라서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들을 기리는 행사가 곳곳에서 열리기도 하는 등, 비교적 차분하면서도 경건한 분위기가 조성되는 달이기도 하다. 그래서인지 6월의 국경일 및 기념일에는 유독 전쟁 및 항쟁 등과 관련된 것들이 많다. 또한 세계 아동 노동 반대의 날, 세계 노인 학대 인식의 날, 세계 난민의 날 등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해 보게 만드는 날도 많다. 먼저 6월에 있는 국경일과 각종 기념일, 절기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세계 우유의 날(6월 1일), 국제 전쟁 희생 아동의 날(6월 4일), 세계 환경의 날(6월 5일), 단오(음력 5월 5일), 현충일(6월 6일), 망종(6월 6일), 치아의 날(6월 9일), 6·10 민주항쟁기념일(6월 10일), 세계 아동 노동 반대의 날(6월 12일), 세계 노인 학대 인식의 날(6월 15일), 세계 사막화 방지의 날(6월 17일), 건설의 날(6월 18일), 세계 난민의 날(6월 20일), 하지(6월 22일), 6·25 한국전쟁(6월 25일).

그렇다면 이 가운데 어떤 날을 골라 어떤 행사와 연결을 지어보면 좋을까?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자면 다음과 같다.

① 세계 우유의 날

6월 1일은 세계식량농업기구(FAO)가 정한 '세계 우유의 날'이다. 온 세상 사람들의 무병장수를 위해 우유를 탄산음료, 커피보다 많이 먹고 건강해지라는 의미를 담아 제정한 날로, 매년 전 세계 40여개 이상의 나라에서 관련 행사가 열리고 있다.

잊어버릴 만하면 한 번씩 우리나라에서는 우유 파동 사태가 벌어진다. 그런 일이 왜 벌어지는지 구체적인 구조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어렵게 만들어진 우유가 그대로 버려지는 현실은 보는 자체만으로도 안타깝다. 많은 사람들의 건강에 도움이 될 완전식품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유를 많이 섭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자신의 건강을 챙기는 것은 물론, 낙농 가구에도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를 살려 세계 우유의 날에는 도서관에서 우유를 맛볼 수 있는 시음회나, 북 스타트 운동과도 연합을 해서 찾아오는 엄마와 아이들에게 우유를 증정하는 행사를 실시해 보자. 물론 이 때 제공되는 우유는 지역사회 우유 공장이나 회사에서 제공을 받아야 하겠다. 어차피 우유 회사들은 신제품이 나올 때에도 새 상품을 알리기 위한 시음회를 개최한다. 그러므로 그 행사를 세계 우유의 날에 도서관과 연합을 해서 실시를 해보는 것이다.

※인터넷 참고정보원 : 서울우유(<http://www.seoulmilk.co.kr>)

② 치아의 날

사람의 이 중에서 가장 크고 힘이 세며 영구치 중 가장 먼저 태어나는 이가 있다. 그 장한 치아를 '육세구치'라고 부르는데, 만 6세 정도가 되면 잇몸을 뚫고 올라오는 '6세구치'를 기념하는 날인 6월 9일(6자를 거꾸로 돌리면 9자가 된다)이 바로 치아의 날이다.

좋은 치아를 갖고 태어나는 것은 다섯 가지 복 가운데 하나로 꼽힐 만큼 중요하다. 왜냐하면 치아가 건강해야 음식물 섭취를 하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람들은 건강한 치아를 갖고자 어릴 때부터 많은 노력을 기울이

는데, 잘못된 상식과 치아 관리 방법으로 크고 작은 문제를 겪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치과에 갈 일이 생기는데,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와 소독약 냄새 때문에 더욱 사람들을 무섭게 만드는 곳이 또 치과이다. 그래서 대부분 가기를 꺼리는데, 치아의 날을 맞아 유아 및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적정 교육을 실시하는 행사를 기획해 보자.

먼저 유아들에게는 관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시해도 되겠다. 이 행사 역시 지역 내 보건소나 병원과 연결을 지을 수 있다. 일부 보건소에서는 초등영양지도를 병행하며 칫솔 등을 나누어 주기도 하므로 관내 보건소에 사전 연락하여 보건소 위생사 섭외, 도서관 프로그램에 강의를 의뢰해도 된다. 사서는 치아와 관련된 그림책을 준비해 가서 읽어주고 올바른 습관 형성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주고 오면 되겠다.

또한 어르신들 역시 오랜 세월 치아를 활용했기 때문에 대부분 빠져버려 틀니를 끼고 계신 경우가 많은데, 틀니를 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적정 방법에 대해, 그리고 이미 하고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는 올바른 관리법을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어르신들 역시 찾아가는 서비스로 실시가 가능한데, 지역 내 노인복지회관이나 노인복지센터, 노인복지관, 혹은 아파트 단지 내 경로당을 대상으로 섭외를 시도하면 되겠다.

③ 건설의 날

건설의 날 행사는 건설인들의 사기 진작과 건설 산업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1980년 제정돼 2년마다 기념식이 열리고 있다.

필자는 건설 및 건축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길을 지나다 멋지다고 생각되는 건물이 보이면 한참을 서서 바라보게 된다. 그러면서 과연 그 건물의 용도는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들어가 볼 수 있는지 등 생각의 꼬리를 한참 더 이어가고는 한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다른 나라들도 명소로 지정한 곳 가운데에는 건물이 유독 많음을 알 수 있다. 최근에는 가장 높은 빌딩이 어느 나라에 있는가에 대한 관심이 큰데, 그만큼 건물은 상징성을 띠는 등 랜드마크(land mark)¹⁸⁾로서의 역할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만약 그 건물에 역사적인 의미까지 담겨 있다면 두 말할 필요도 없이 더욱. 그런데 이처럼 사람들이 기억하고 찾는 건물 가운데에는 도서관도 포함되어 있다. 최정태 씨는 ‘지상의 아름다운 도서관’이라는 책을 통해 전 세계 도서관 가운데 내외적으로 아름다운 곳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우리나라에도 그 목록에 담을 수 있을만한 도서관이 있었으면 하는데, 아직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건설의 날에는 전 세계 도서관 가운데 역사와 전통을 지니고 있으면서, 동시에 아름다운 건물로 회자되고 있는 곳들의 사진을 전시하는 행사를 열어보면 어떨까 싶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도서관 가운데에서도 몇 곳을 선정해 함께 전시를 하는 것도 방법이겠다. 참고로 한국건축문화대상 시상식에서 오산시 중앙도서관이 2009년에 우수상을, 국립디지털도서관이 2010년에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 인터넷 참고정보원 : 한국건축문화대상(<http://kaa.kira.or.kr>)

18. 어떤 지역을 식별하는 데 목표물로서 적당한 사물(事物)로, 주위의 경관 중에서 두드러지게 눈에 띄기 쉬운 것이라야 하는데, 남산타워나 역사성이 있는 서울 남대문 등이 해당된다

(2) 7월

7월은 그레고리력에서 한 해의 일곱 번째 달이며, 본격적으로 더위가 시작되는 달이기도 하다. 때문에 강렬한 태양과 바다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물 만난 달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땀 꽤나 흘려야 하는 때가 온 것이다. 그래서 초 · 중 · 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방학이 주어지고, 직장인들에게도 휴가가 주어진다. 무더위에 지쳐 공부나 일에 있어 능률이 오르지 않기 때문에 재충전의 기회를 주는 것이다. 따라서 사람들은 귀로 매미들의 합창을 듣고, 눈으로는 들과 밭에서 오곡이 익어가는 정경을 보며 잠시나마 일상을 떠나 있기도 한다. 청포도가 익어가는 내 고향을 방문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의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 바닷가나 계곡, 혹은 혼자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에 다녀오기도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인지, 나도 어딘가로 떠나야만 할 것 같은 마음이 자리를 잡는 시기인 것이다.

따라서 7월에는 행사를 기획해 진행하기가 쉽지 않다. 마침 여름방학을 하자마자 초등학생들을 위한 독서교실은 시작이 되지만, 대부분의 정규 프로그램들은 이미 지난 6월에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비교적 한가한 시점이기도 하다. 그래서 특별한 행사를 기획하기보다는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시원한 환경만 제공을 해주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다. 때로는 그렇게 지나가는 달도 있어야 할 테니까. 그래도 태양과 같은 에너지를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 7월에 실시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① 초복 · 중복

■ 삼복의 어원

삼복은 음력 6월에서 7월 사이에 들어 있는 속절이다. 하지 후 셋째 경일을 초복, 넷째 경일을 중복, 입추 후 첫 경일을 말복이라 하여, 이를 삼경일 혹은 삼복이라 한다. 복날은 10일 간격으로 오기 때문에 초복과 말복까지는 20일이 걸린다. 그러나 해에 따라서 중복과 말복 사이가 20일 간격이 되기도 하는데, 이를 월복이라고 한다. 복의 어원에 대해서는 신빙할 만한 설이 없다. 다만 최남선의 《조선상식》에 의하면 ‘서기제복’이라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다.

■ 삼복의 유래

복은 원래 중국의 속절로 진 · 한 이래 매우 숭상된 듯하다. 조선 후기에 간행된 《동국세시기》의 기록에 의하면 “상고하면《사기》에 이르기를 진덕공 2년에 처음으로 삼복 제사를 지냈는데, 성 4대문 안에서는 개를 잡아 충재를 방지했다고 하였다.”라는 내용이 전한다. 이로 보아 삼복은 중국에서 유래된 속절로 추측된다.

■ 삼복의 풍속

삼복은 1년 중 가장 더운 기간으로 이를 ‘삼복더위’라 한다. 조선시대 궁중에서는 더위를 이겨 내라는 뜻에서 높은 벼슬아치들에게 빙표를 주어 관의 장빙고에 가서 얼음을 타가게 하였다. 복중에는 더위를 피하기 위하여 아이들과 부녀자들은 여름 과일을 즐기고, 어른들은 술과 음식을 마련하여 산간계곡으로 들어가 탁족을 하면서 하루를 즐긴다. 한편으로 해안지방에서는 바닷가 백사장에서 모래찜질을 하면서 더위를 이겨내기도 한다. 복날과 관계있는 속신으로 ‘복날에 시내나 강에서 목욕을 하면 몸이 여윈다.’는 것이 있다. 이러한 속신 때문에 복날에는 아무리 더워도 목욕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초복에 목욕을 하였다면 중복과 말복날에도 목욕을 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복날마다 목욕을 해야만 몸이 여위지

않는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 삼복의 시절음식

초복과 중복, 그리고 말복에 걸친 삼복더위를 이겨내는 시절음식으로 개장국이 있다. 개장국은 더위로 인해 허약해진 기력을 충전시켜 준다. 허준이 저술한《동의보감》에는 “개고기는 오장을 편안하게 하며 혈맥을 조절하고, 장과 위를 튼튼하게 하며, 골수를 충족시켜, 허리와 무릎을 온하게 하고, 양도를 일으켜 기력을 증진시킨다.”는 기록이 있어 개고기의 효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외에도 복날에 개장국을 끓여 먹는 풍속은 여러 세시기에도 나타난다. 이들 기록은 개고기의 효능과 복중에 개장국을 절식으로 즐기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예컨대《열양세시기》에 의하면 “복날에 개장국을 끓여 조양한다.”는 기록이 있고, 또《동국세시기》에는 “개장국을 먹으면서 땀을 내면 더위를 물리쳐 보혀한다.”고 하였다. 또《농가월령가》에는 황구의 고기가 사람을 보한다고 하여, 황구를 일등 품으로 여기고 있다.

이러한 문헌을 통해서 볼 때, 개장국은 우리 민족이 건강식으로 널리 즐겼음을 알 수 있다. 개고기 요리법에 관한 기록은 조선시대 조리서에 나타난다. 조선시대 조리서에는 개고기 요리 의 종류와 원리를 다양하게 기록하고 있다. 예컨대《규곤시의방》에는 개장 · 개장국누르미 · 개장고지누르미 · 개장찜 · 누런 개 삶는 법, 개장 고는 법 등 전통 요리법이 자세하게 기록 되어 있다. 또《부인필지》에 의하면 “개고기는 피를 씻으면 개 냄새가 나고, 피가 사람에게 유익하니 버릴 것이 아니라 개 잡을 때 피를 그릇에 받아 고깃국에 넣어 차조기 앞을 뜯어 넣고 고면 개 냄새가 나지 않는다.”라는 기록이 있다.

우리 민족이 개장국을 건강식으로 널리 즐겼음은 분명하나 지방에 따라서 개고기를 먹으면 재수가 없다고 하여 금하기도 하였다. 또 특정 종교의 세계관에 의해 개고기를 식용으로 하는 것을 금기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개장국을

대신하여 삼계탕을 즐기기도 한다. 삼계탕은 햇병아리를 잡아 인삼과 대추, 찹쌀 등을 넣고 고은 것으로서 원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외에도 팔죽을 쑤어 먹으면 더위를 먹지 않고, 질병에도 걸리지 않는다고 하여 초복에서 말복까지 먹는 풍속이 있다. 팔죽은 벽사의 효험을 가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더운 복 중에 악귀를 쫓고 무병하려는 데에서 나온 풍습이다.

KBS-2TV에서 일요일 저녁에 방송되는 프로그램 ‘해피 선데이’에는 전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1박 2일’이라는 코너가 있다. 임태웅 · 이수근 · 은지원 · 김종민 · 이승기로 구성된 연예인들이 전국의 명소를 찾아가 그곳을 소개하는 것은 물론, 밥과 잠자리가 걸린 복불복 게임을 해서 상과 벌칙을 받으며 재미를 준다. 그런데 그들이 받는 벌칙 가운데에는 그저 웃을 수만은 없는 것들도 있으니, 그 중 하나가 바로 야외에서 잠을 자는 것이다. 왜냐하면 늦봄이나 여름, 초가을까지 날이 따뜻할 때에는 괜찮을 테지만, 날이 추울 때에는 정말 힘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생각을 하다가 문득 도서관에서도 1박 2일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도서관에는 건물 이외 주차장과 공원 등의 여유 공간이 있기 때문에 텐트를 치고 잠을 자기에 어렵지는 않다. 따라서 여름휴가 기간 중 특정 날짜를 정해 피서객들에게 캠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자. 그러면서 도서관 측에서는 바비큐 파티를 열어주면 어떨까? 바비큐 파티는 이미 외국의 도서관에서 청소년을 위한 도서관에서의 프로그램 중 하나로 제안이 된 적이 있는 행사이다.¹⁹⁾

19. 에이미 J. 알레시오 · 킴벌리 A. 패튼 지음, 2011. (1월에서 12월까지) 청소년을 위한 도서관 프로그램.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어린이청소년서비스 번역자료집 7. 서울: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물론 이 행사 전체를 진행하려면 밤샘 근무를 해야 하는 인력이 필요하고 시민들의 안전 문제로 인해 신경이 쓰이겠지만, 워낙 휴가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찾는 지자체에서는 기획해 볼 가치가 있는 행사라 생각된다.

그 외 7월에는 전매의 날(7월 1일), 소서(7월 7일), 세계 인구의 날(7월 11일), 초복(7월 14일), 제헌절(7월 17일), 대서(7월 23일), 중복(7월 24일)이 있다.

(2) 8월

8월은 여름의 꽃이다. 물론 가을로 접어드는 입추가 있기는 하지만, 7월보다 농익은 더위가 느껴지는 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람들은 7월보다 8월에 휴가를 더 많이 떠나기도 한다. 하지만 8월에는 초·중·고등학교가 개학을 하는 시기에 발맞춰 도서관에서도 2학기 강좌가 개강을 하는 시기이다. 물론 9월에 시작을 하는 곳들도 있지만 바지런하게 준비를 한 곳들은 개학 시점에 맞추어 프로그램들도 시작을 한다. 따라서 방학 내 여유롭게 풀어두었던 마음의 끈을 다시 조여야 하는 때이다. 그러므로 2학기 강좌(문화 프로그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도서관에서는 특별한 행사를 기획하지 않아도 되겠다. 대신 9월 중순 경부터 시작이 되는 곳들은, 작은 행사를 한두 가지 쯤 실시를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다음은 8월에 진행해 볼 수 있을 행사에 대한 제안이다.

① 에너지의 날

1. 추진배경

- 1) 21세기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에너지 위기에 직면해 있음 - 인류가 산업문명을 이룩하면서부터 과다하게 소비하기 시작한 화석연료로 인하여 현재 지구는 지구 온난화라는 무서운 환경적 재앙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기상

이번, 해수면 상승, 사막화, 식량부족, 물 부족, 생물종 다양성 감소 등 현재 인류는 생존 그 자체를 위협 받고 있음.

- 2) 이와 더불어 화석연료의 고갈은 각국마다 자국 자원 확보라는 국가적 이기주의를 낳아 수많은 존귀한 목숨들을 전쟁의 포화 속으로 밀어 넣고 있음.
- 3) 따라서 이제 에너지문제는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인류생존의 공익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며 단순한 연료적 개념에서 환경파괴의 개념으로 바라 봐야 함. 또한 경제적 잣대에서 환경정의의 관점으로 그 가치를 새롭게 받아 들여야 함.
- 4) 이에 에너지문제에 대한 인식 전환을 통해 에너지 저소비형 사회 분위기를 형성하고 지속가능한 세상을 구현하고자 '에너지의 날'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음.

2. 목적

- 1) 세계 최초로 '에너지의 날'을 제정하여 화석연료 과다사용으로 인한 지구온난화 등 당면한 환경문제를 시민에게 홍보하여 에너지절약, 효율제품 생산 및 구매 활성화,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보급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의 실현을 위한 대국민 실천을 유도.
- 2) 2003년 우리나라의 최대전력수요일이었던 8.22일을 에너지의 날로 제정하여 한국 행사를 시작으로 매년 세계주요 도시에서 지구의 날(4.22), 차 없는 날(9.22)과 함께 에너지문제의 해결을 위한 지구차원의 행사로 승화시키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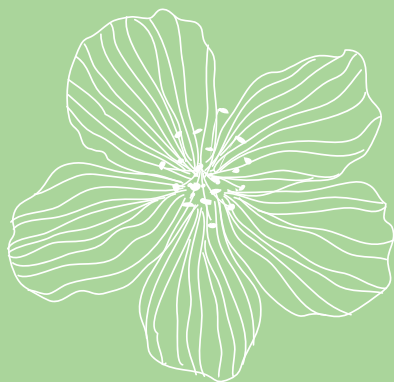
형설지공(螢雪之功)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이 사자성어의 뜻은 중국 진나라의 차운(車胤)이 반딧불로 글을 읽고 손강(孫康)이 눈빛으로 글을 읽었다는

고사에서 온 말로, 고생해서 공부한 공이 드러남을 비유한 것이다. 즉, 집이 가난하여 불을 밝힐 돈이 없어서 반딧불 빛과 눈빛으로 공부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일을 해내 많은 사람들의 귀감이 되었다는 일화에서 나오게 된 말이다.

물론 현 시대의 아이들은 그렇듯 어려운 생활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마음에 와 닿는 말이 아니겠으나, 에너지를 아껴야 하는 것은 이 시대에 당면한 문제이기 때문에 에너지의 날을 맞이하여 ‘형설지공’의 뜻도 살릴 겸, ‘한 등 아래 책읽기’ 행사를 진행해 보면 좋겠다. 최근 성남시는 분당구 야탑동 맹산 생태공원에 반딧불이 서식처를 복원했다고 한다. 이곳에서는 1997년부터 8·9월에 반딧불이 축제도 열린다고 하는데, 이 행사와 연계를 해서 ‘반딧불이와 함께 야외에서 책읽기’ 행사를 진행해도 되겠다. 이 행사의 핵심은 반딧불이의 불빛, 달빛, 가로등 불빛에 의지해 책을 읽어야 하는 것이고, 도서관 실내에서 진행을 할 경우에도 등을 하나만 켜고 그 아래 웅기종기 모여 책을 읽는 것이다. 촛불을 활용하는 것도 아이디어가 될 수 있겠다.

※ 인터넷 참고정보원 : 에너지관리공단(<http://www.kemco.or.kr>)

그밖에도 8월에는 칠석(음력 7월 7일), 유두절(음력 7월 15일), 입추(8월 8일), 이산가족의 날(8월 12일), 말복(8월 13일), 광복절(8월 15일), 에너지의 날(8월 22일), 야구의 날(8월 23일), 처서(8월 23일)와 같은 날들이 있다.



겨울 · 봄 · 여름 · 가을 그리고 도서관



04

가을, 도서관에 물들다

04



가을, 그리고 도서관

1. 가을, 그리고 도서관

날씨와 계절의 변화는 사람들의 심리 정서적인 면에도 영향을 미친다. 물론 개인차가 있을 것이므로 모두가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흐린 날과 가을에는 우울한 느낌이 증가하고 우울증도 많아진다는 통계를 보면, 분명 누군가에게는 조금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분명하다. 이렇듯 계절이 사람들의 심리 정서적인 측면에서 영향을 미친다는 맥락에서 가을이라는 계절을 분석해 보면, 가을은 사람들을 보다 감성적으로 만드는 힘이 있다. 그 이유는 서서히 떨어지는 기온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고, 하나 둘 떨어져 땅바닥을 뒹구는 낙엽의 모습도 일조를 하는 요소일 것이다. 그래서인지 가을에는 사람들마저도 한결 분위기가 있어 보이는 것은 물론이고, 누군가가 그리워져 편지를 쓰거나 전화를 걸고 싶다. 그러다가 만약 약속이 정해지면 커피숍에서 만나 그 동안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하염없이 나누며 또 하나의 추억을 아로 새길 수 있어 좋고, 그대로 혼자라면 한 줄만 읽어도 눈물이 흐를 한 권의 책을 읽거나, 가슴 절절한 멜로 영화를 한 편 보는 것도 괜찮다. 고독을 음미하면서!

이런 정서적인 흐름에 부합하기 때문인지 가을에는 유독 문학과 관련된 행

사가 많다. 대표적으로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도서관 연합에 의해 실시되는, 더불어 파주 출판 단지에 입주해 있는 여러 출판사들이 연합해 주최하는 책 축제 행사가 있고, 지역 문인 협회에서 주관하는 문학인의 밤이나 시 낭송의 밤 등의 행사, 지역교육지원청이나 단위 학교 및 도서관 주관의 독서퀴즈 대회와 독서 감상문 쓰기 및 독서 감상화 그리기 대회,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독서 감상문 쓰기 대회 등 크고 작은 행사가 많이 열린다. 나아가 인지도가 있는 작가 스스로가 기획하는 북 콘서트와 같은 행사도 열리기도 하니, 정말 가을에는 독서 관련 행사가 풍성하다. 마침 우리나라에서는 10월을 독서의 달로, 10월 11일을 책의 날로 지정하고 있기도 하니 독서 관련 행사가 많을 수밖에 없기도 하다.

따라서 시민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유익하면서도 즐거운 행사에 참여할 수가 있는데, 먼 거리에서 펼쳐지는 행사에 참여할 여력이 안 되는 분들을 위해 가까운 공공도서관에서 개강하는 2학기 문화 프로그램과 행사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이길 필요가 있다. 말이 살을 찌우는 계절이니, 시민들도 책을 통해서 마음을 살찌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고 기꺼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 먼저 9월부터 11월까지 공공도서관에서 운영이 되었던 프로그램 사례들을 만나보자.

2. 국내 공공도서관 운영 사례 : 9월-11월

1) 경기도립녹양도서관 2011년 하반기 평생교육프로그램 (2011. 11. 4-12. 23)

〈생활의 발견을 통한 시 창작〉

- ① 대상 및 인원 : 학부모, 20명
- ② 운영시간 : 매주 금요일 10:00-12:00, 총 8회
- ③ 내 용 : 생활 속 시적 사유와 감각을 익히고, 시 창작에 응용하여 다양한 시편을 발전적으로 창작
- ④ 준 비 물 : 필기도구

2) 경기도립성남도서관 2011년 하반기 평생교육프로그램 (2011. 9. 9-11. 24)

〈독서와 마인드맵〉

- ① 대상 및 인원 : 초등학생 3-5학년, 각 30명
- ② 운영시간 : 매주 목요일 15:00-17:00, 총 12회
- ③ 내 용 : 마인드맵으로 책을 정리하고 창의적인 생각 표현하기

3) 고양시백석도서관 수시기획프로그램(2011. 9. 20-12. 6)

〈꿈이 자라는 세계문화예술 독서여행〉

- ① 대상 및 인원 : 초등학생 1-2학년, 3-6학년, 각 20명
- ② 운영시간 : 매주 화요일 15:00-17:00(1-2학년), 17:00-19:00
- ③ 내 용 : 세계문화 자료를 통한 모둠별 토의 및 체험 활동

4) 고양시한빛도서관 수시기획프로그램(2011. 10. 6-11. 24)

〈책 속에 빠진 연극놀이〉

- ① 대상 및 인원 : 초등학생 1-2학년, 12명
- ② 운영시간 : 매주 목요일 16:00-17:30(1-2학년), 총 8회
- ③ 내용 : 상상력과 오감을 동원해 연극놀이를 하면서 표현의 즐거움을 느끼고 자신을 둘러싼 세계를 새롭게 탐색해 봅니다.

5) 고양시화정도서관 수시기획프로그램(2011. 9. 9-11. 25)

〈청소년, 읽어라!〉

- ① 대상 및 인원 : 중학생 1-3학년, 20명
- ② 운영시간 : 매주 금요일 17:00-18:30, 총 12회
- ③ 내용 : 독서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들의 독서와 토론, 논술 익히기

6) 남양주시도농도서관 하반기 문화교실(2011. 9. 7 - 11. 23)

〈실학자들의 꿈〉

- ① 대상 및 인원 : 초등학생 3-4학년, 20명
- ② 운영시간 : 매주 수요일 14:00-16:00, 총 12회
- ③ 내용 : 책 읽는 즐거움과 더불어 진취적인 사고를 기르며 자신의 생각을 말과 글로 표현할 수 있다.

7) 남양주시외부도서관 문화행사(2011. 10. 5-12. 22)

〈함께 배우는 점자교실〉

- ① 대상 및 인원 : 누구나, 5명
- ② 운영시간 : 매주 수요일 10:00-12:00, 총 12회
- ③ 내용 : 장애인 특화 도서관으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점자교육 실시

8) 동두천꿈나무정보도서관(2011. 10. 4-12. 12)

〈교과서와 함께하는 메이킹 북〉

- ① 대상 및 인원 : 초등학생 1-2학년, 11명
- ② 운영시간 : 매주 수요일 16:30-18:00, 총 10회
- ③ 내용 : 실습 위주의 수업진행으로 개인별 체험을 통한 생각과 느낌, 상상력을 자극하여 개성 있고 창의적인 자신을 표현할 수 있게 하며, 문제해결력, 논리적인 글쓰기를 통한 지적인 성장을 도와주며, 자신감 있는 활동과 자기 가치감을 높여준다. 여러 분야의 교과목 및 책과 접목한 북 아트 수업을 통한 학습능력 향상을 도모한다.

9) 부천시상동도서관 문화교실(2011. 11-12)

〈엄마표 영어독서지도〉

- ① 대상 및 인원 : 성인, 25명
- ② 운영시간 : 매주 수요일 10:00-12:00, 총 6회
- ③ 내용 : 자녀에게 영어동화책 독서지도 활용법, 연령별 영어동화책 선정 방법

10) 수원시서수원지식정보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2011. 9. 15-10. 6)

〈(야간 인문학) 정조의 꿈과 미래〉

- ① 대상 및 인원 : 성인, 60명
- ② 운영시간 : 매주 목요일 19:30-21:30
- ③ 내용 : 수원시에 있는 '화성'의 역사적 의미 고찰과 정조대왕의 '화성행차'를 통해 조선의 문화에 대해 알아보는 인문학 특강

11) 수원시중앙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2011. 9. 6-11. 29)

〈꼭 읽어야 할 우리 옛 이야기〉

- ① 대상 및 인원 : 초등학생 1-2학년, 20명
- ② 운영시간 : 매주 수요일 15:00-16:00, 총 12회
- ③ 내 용 : 우리 옛이야기의 명작을 통한 다양한 글쓰기와 독서지도

12) 시흥시정왕어린이도서관 문화강좌(2011. 10. 6-12. 22)

〈사랑의 소리 성품 태교〉

- ① 대상 및 인원 : 3-6개월 임신부, 10명
- ② 운영시간 : 매주 목요일 11:00-12:00, 총 12회
- ③ 내 용 : 동화, 음악, 미술, 순산체조 등을 통한 임신부 태교프로그램

13) 양주시립꿈나무도서관 문화교실(2011. 9. 5-11. 28)

〈교과서로 배우는 독서연극반〉

- ① 대상 및 인원 : 초등학생 1-3학년, 20명
- ② 운영시간 : 매주 월요일 16:00-17:30, 총 12회
- ③ 내 용 : 독서 내용을 이해하고, 맡겨진 역할과 어울리는 감정을 살려 정교하게 표현하고 팀별로 발표하면서 발표능력을 기르는 수업

3. 프로그램 운영 제언

1) 가을의 특성을 활용한 프로그램

앞서 살펴보았듯이 가을에는 이미 다른 계절에 비해 도서관의 색깔에도 맞으면서 독창적인 프로그램들이 많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늘 새로움에 목마른 분들을 위해 계절의 특성 및 각 월별 국경일과 기념일, 절기 및 절기에 실시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가을에는 농부들이 풍성한 곡식을

수확하여 그동안의 노고를 잊듯이, 도서관에서도 제안하는 프로그램들의 적극적인 도입과 활발한 운영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함께하는 기쁨, 좋은 프로그램을 진행했다는 보람도 느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1) 굽이굽이 넘어가는 책 고개

산을 즐겨 찾지 않던 사람들도 가을이면 한두 번쯤 산행을 한다. 왜냐하면 울긋불긋 물든 단풍이 어서 오라고 손짓을 하기에, 가을 색을 닮은 사람들을 만나고 산도 만나기 위해 가는 것이다.

그런데 도서관 중에는 산과 인접해 있는 곳들이 많다. 그래서 도서관에만 가도 가까이에서 산을 볼 수 있는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 마침 계절적인 배경이 가을이라면 그 산을 활용해 프로그램을 진행해 보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생각해 본 프로그램이 ‘굽이굽이 넘어가는 책 고개’이다. 이 프로그램은 비교적 완만한 등산로 혹은 도서관 주변으로 나 있는 산책로를 활용한 것으로, 곳곳에 놓여 있는 벤치에 시집 등의 문학 도서를 비치하는 것이다. 동시에 시화나 그림책 원화를 갖고 있다면 함께 전시를 하는 것도 좋겠다. 이때 각 벤치에는 도서관 직원이 대기를 하고 있으면서 그 벤치에서의 미션을 완수하면 도장을 찍어주어, 모든 도장을 다 받으면 작은 선물을 주는 이벤트로 연결을 해도 되겠다. 이 행사는 가을을 몸소 느끼면서 마음을 살찌울 책을 만나게 하는데 의미가 있다. 따라서 가족 단위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여러 종류의 책을 비치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되겠다.

비슷한 행사로 의왕시중앙도서관 책마루에서는 남이섬을 벤치마킹하여 도서관 뒷산에 숲 속 도서관 ‘숲 마루’를 조성해 운영한 사례가 있다. 숲 마루 책

장에는 200여 권이 책이 담겨 있어, 산책을 나온 이용자들 가운데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책을 볼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다양한 초본 식물들도 감상할 수 있는 자연학습장의 기능도 추가해 운영을 했다. ‘숲마루’ 운영사진은 다음과 같다.

〈그림 26-28〉



(2) 보물찾기

학창시절에 소풍을 가면 오랜만에 김밥과 같은 특별식을 먹을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었지만, 레크리에이션이나 보물찾기와 같은 게임도 무척 기다려지는 요소 가운데 하나였다. 이 가운데 레크리에이션 시간은 장기자랑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싫어한 사람도 있었지만, 보물찾기는 자신의 능력으로 숨겨진 보물을 찾기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가 좋아했다.

그래서 가을에는 소풍을 많이 가는 특성을 살려 도서관에서 주최하는 ‘보물찾기’를 진행해 봐도 재미가 있을 것 같다. 이 활동의 장점은 참여자의 숫자를 제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가족 단위로 신청을 받아도 되지만, 참여하고 싶은 사람 모두가 참여할 수 있게 하면 되기 때문이다. 물론 참여자가 많으면 상품의 양을 늘려 보다 많은 사람들이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해도 되겠지만, 여건이 뒷받침 되지 못한다면 선착순 참여와 함께 몇 가지의 선물만 걸고도 간편한 조직으로 즐겁게 진행할 수 있겠다.

(3) 테마가 있는 북 페스티벌 개최

가을에는 각 자치단체별로 야외행사로 북 페스티벌을 많이 개최한다. 9월 및 10월 독서의 달과 문화의 달을 맞이하여, 관련 테마를 가지고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관련 단체들이 연합하여 북 페스티벌, 북 콘서트 등이 많이 개최되고 있으나, 행사에 참여해 보면 거의 내용이 대동소이하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도서전시회, 책갈피 만들기, 북 아트 체험 및 전시회, 풍선 만들기, 책 나무 만들기, 페이스페인팅 등 각종 전시 및 체험행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개성을 찾아볼 수 없음에 아쉬움을 느끼곤 한다. 따라서 매년 다른 주제를 선정

하여 북 페스티벌을 운영해 봄으로써, 부스 운영내용에 변화를 기하여 시민들이 매년 참여해도 새로움을 느낄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제안해 본다.

〈테마가 있는 북 페스티벌〉

① 프로그램 운영 목표

- 북 페스티벌 운영으로 폭넓은 시민들과의 교류를 통해 잠재적인 도서관 이용자 확보
- 테마가 있는 프로그램 기획으로 책임기의 색다른 재미 부여
- 야외 행사를 통한 시민들과의 교류로 도서관 홍보 계기 마련

② 프로그램 운영 개요

- 운영기간 : 9~10월 중
- 대 상 : 모든 시민
- 장 소 : 중앙공원 (야외)
- ※ 소규모일 경우에는 도서관 앞마당 활용
- 운영방법 : 테마별 전시 및 체험행사 부스 30여개 운영

③ 사전 준비사항

- 북 페스티벌 운영위원회 또는 직원들의 공모를 통해 주요 테마 선정
(예시 : 시문학, 아동문학, 인문학, 환경, 과학, 로봇, 역사 등)
- 선정된 테마에 맞추어 관련도서 조사 및 작가 섭외
- 테마에 맞는 참여 단체 섭외 및 운영 프로그램 선정
- 행사장 부스 배치 및 운영 프로그램 사전 점검
- 시민 참여를 위한 홍보 활동 (현수막, 홈페이지, 각종 단체, 전광판, 홍보자료를 통한 홍보)

④ 지역사회 연계방안

- 지역 사회 기관과의 연계 : 테마에 맞는 지역사회 단체 및 시민단체의 참여 독려 및 섭외, 교육청 등 공공기관 협조

⑤ 프로그램 구성 <표 26>

예시) 환경보호

순 서	프로그램 내용	활동내용	참여단체
1	각종 전시회	환경 관련 도서 및 그림 전시회 환경의 피해, 심각성을 알리는 사진전시회	시립도서관 환경관련 시민단체
2	각종 체험 행사	각종 폐품 활용 창작교실 - 페트병, 야쿠르트 병, 신문지, 휴지심 등을 활용한 소품 만들기 프로그램 개발 푸른 지구를 위한 씨앗 심고 화분 나눠주기 중고 책 물물교환 코너	작은도서관 사회단체 시민단체
3	환경관련 백일장 및 사생대회	교육청 협조를 통한 초·중·고등학생의 대회 참여 및 시상	시청 교육청
4	작가와와의 대화	선정된 주제도서의 작가 초청 강연회 작가사인회, 포토타임	시립도서관
5	이벤트 행사	환경의 소중함을 주제로 한 인형극 등 공연 동화 구연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공연 환경지킴이 사례 제안하기 공모	공연단체 자원봉사자
6	영화상영	이동도서관 버스를 활용한 환경 관련 우수 영화 상영	이동도서관

⑥ 소요예산 항목 <표 27>

구 분	산출내역	비 고
강사료	작가 강사료, 공연비 등	
진행비	부스 임차료, 중식비 등	
재료비	체험 행사 진행을 위한 재료비 일체	
시상품	상장, 부상 등	

※ 도서관에서의 소규모 행사로 진행될 때에는 부스 2~3개만 운영하여도 됨.

⑦ 향후 연계행사

- 백일장 및 사생대회 입상자의 작품의 전시회 개최
- 향후 독서문집 발간 시 수상작품을 수록하여 배부함으로써 자긍심 부여

2) 국경일, 기념일, 명절 및 절기를 활용한 프로그램

(1) 9월

고대의 뛰어난 성인들은 모든 만물에는 기가 내재되어 있고, 기에는 현상이 따르며, 현상은 수로 표현할 수 있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그 가운데 숫자 9는 분열, 성장하게 하는 양수의 마지막 변화 단계라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이후 쇠퇴의 기운이 올 것으로 여겨 좋아하지 않은 숫자 가운데 하나라고 한다. 그런데 관점을 달리하면 9월은 가을의 시작 시점이므로 수확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고, 수확을 마친 후에는 곧 잠깐의 휴식도 가질 수 있는 시기에 도달할 수 있다. 또한 나이로 빗대어 보자면 앞자리가 바뀌기 전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한창 물이 오른 절정의 시기로 볼 수 있겠고, 도서관 측면에서 볼 때에도 독서에 대한 인식이 높은 시기가 시작되므로 활성화에 대한 기대를 가져 볼 수 있겠다.

그래서 9월에는 도서관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붙들어 두는 것과 동시에 확장을 시키기 위한 행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겠다. 다음은 9월에 있는 국경일과 기념일, 명절 및 절기를 활용해 운영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의 예시이다.

① 통계의 날

통계청이 국민들에게 통계의 중요성을 홍보하기 위해 제정한 날로, 매년 9월 1일이다.

혹시 전산화가 되기 이전의 도서관 모습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다. 도서관 입구에는 목록함이 놓여 있어서, 책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곳에서 목록카드를 뒤적이고는 했다. 그러다가 드디어 원하는 책을 찾으면 메모지에 청구기호를 적어 사서에게 건넸고, 그럼 사서는 서가를 안내하거나 직접 찾아주기도

했다. 그런데 지금은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전산 시스템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은 이용자인 시민이나 운영자인 사서 모두 매우 편리해졌는데, 이처럼 도서관에 전산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서 가장 큰 장점 가운데 하나는 운영 전반에 관한 통계를 쉽게 얻을 수 있다는 점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통계라고 하는 것은 적절히 활용을 하면 가치 있는 데이터가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도 없는 숫자에 불과하다. 따라서 통계의 날에는 그동안 누적이 되어 있는 도서관 통계에 의미를 부여해 보자. 그래서 시민들에게 운영의 측면도 알리고, 그 통계를 구성한 사람들이 바로 시민들 자신임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자. 물론 그러면서 이 행사에 참여해야겠다는 동기도 부여하면 좋겠다. 바로 이런 방법으로!

통계의 날이 다가오기 일주일 전부터 행사를 시작한다는 공지를 하자. 먼저 행사의 제목은 ‘우리 도서관을 빛낸 100명의 시민들!’로 정하고, 그동안 누적되어 있는 여러 이용자들에 대한 통계를 바탕으로 100명씩을 뽑는다. 예를 들어 지난 1년 동안(2010년 9월 2일부터 2011년 8월 31일까지) 가장 책을 많이 빌려간 사람 100명, 열람실을 가장 자주 이용한 사람 100명, 디지털 실을 가장 많이 이용한 사람 100명 등을 뽑으면 되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대한 통계를 판넬 등에 꾸며 전시를 한다. 그러면서 누적 이용자를 따져 보고 통계의 날에 돌파가 가능한 숫자를 지정해, 몇 번째 이용자에게는 시상을 하거나 선물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실시해 보자. 마치 마트나 항공사 등에서 몇 번째 고객에게 상품권을 주는 것처럼 말이다. 또한 그에게는 향후 1년 동안 ‘○○도서관을 빛낸 사람’이라는 호칭을 주어, 그 호칭에 걸맞은 홍보 활동을 벌일 수 있도록 연결하는 것도 방법이겠다.

② 세계 문해의 날(International Literacy Day)

문해(文解)란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단어이다. 이 날은 1965년 이란 국왕이 군사비의 일부를 문해 교육을 위해 돌려 쓸 것을 제안한 것을 기념하여 제정되었으며, 매년 9월 8일이다.

글을 읽고 쓰는 것은 인간답게 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단 중 하나이다. 왜냐하면 읽고 쓰는 것은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빈곤으로부터의 탈출, 남녀 간의 불평등을 비롯한 각종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의 해소에 있어 ‘문해’는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인 셈이다. 사실 UNESCO가 처음 문해의 날을 제안했을 때는 ‘글을 읽는 것’이 전염병의 예방과 보건 위생에 핵심적임을 강조했다고도 한다. 하지만 현재 전 세계 성인 5명 중 1명은 아예 문맹이며, 그 중 2/3는 여성이라고 한다. 이에 UNESCO는 2003년부터 2012년까지를 ‘Literacy Decade(문맹 퇴치를 위한 10년)’으로 정하고, 전 세계적으로 문맹률을 현재의 절반으로 감소시키겠다는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특히 2011년 세계 문해의 날은 ‘읽기 능력과 평화(literacy and peace)’를 주제로 선정하고, 문맹이 세계의 평화에 끼치는 위험을 인식시키고자 하였다.

우리나라는 문맹률이 1% 미만이라고 한다. 대대적으로 교육열이 높은 것은 물론, 다른 나라에 비해 익히고 쓰기 쉬우면서도 과학적인 글자인 한글을 갖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최강대국이라고 하는 미국보다도 오히려 문맹률은 낮다. 하지만 일제시대를 지나온 세대 가운데에는 글을 배울 기회가 없었기에 문해가 안 되는 분들이 계시다. 그 분들의 대부분은 여성들인데, 버젓이 두 눈을 뜨고도 글을 읽을 줄 모르기 때문에 얼마나 답답한 심경을 갖고 살아오셨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 마음을 미처 다 헤아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문해의 날에는 노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센터 등의 기관과 연계하여 글을 모르는 어르신들을 모셔서 그들을 위한 행사를 진행해 보면 어떨까 싶다. 행사는 간단하게 당일엔 진행하고 마칠 수 있는 것과 오래 전부터 준비를

해야 하는 것 두 가지로 구분해서 제시해 보겠다.

먼저 당일에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는 행사로는 어르신들을 모셔다가 동화를 들려드리는 것이다. 이미 도서관에는 아이들을 위한 책 읽어주기 및 동화 구연 프로그램이 많은데, 그 형식을 어르신들에게 적용시키는 것이다. 어르신들을 위한 책으로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전래동화를 선정하면 무난하겠겠다.

두 번째로 오래 전부터 준비가 필요한 프로그램은 그 어르신들의 자서전을 집필해 드리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몇 달 전부터 어르신들을 만나 인터뷰를 통한 녹음을 진행할 필요가 있는데, 만약 많은 시간을 낼 수가 없다면 몇 번의 만남을 통해 특정 시점이나 주제의 이야기를 듣고, 그 내용을 그대로 옮겨 이야기를 만든다. 그런 뒤 독서회에 참여하는 아이들에게 내용에 따른 그림을 그리게 해서 한 권의 그림책으로 만들어 드리면 되겠다. 이렇게 어르신의 이야기가 담긴 한 권의 책이 완성되면, 문해의 날에 어르신들을 초대해 표지에 본인의 이름을 직접 쓰게 한 뒤 전달식을 하면 된다. 만약 본인의 이름도 쓸 줄 모르는 어르신이 계신다면, 사전에 보고 쓸 수 있도록 크게 이름을 적어 드린 뒤 보고 쓰시게 하면 된다.

이 행사는 여러 측면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는데, 무엇보다 문해가 안 되기 때문에 도서관에 올 수 없었던 이용자들을 위한 행사라는 데에서 가장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행사에 참여하신 어르신들에게는 남은 여생동안 기억에 남을 작품을, 사후에는 유산으로 남길 수 있는 자신의 이야기를 남겼다는 의미가 생성될 것이다. 만약 지역 사회 내 대학교가 있다면, 그 학교의 문예창작과나 국문과 학생들의 도움을 받아 녹음된 내용을 그림책에 들어갈 이야기로 각색을 할 수도 있겠다.

이밖에도 9월에는 추석(음력 8월 15일), 콜레스테롤의 날(9월 4일), 자원 순환의 날(9월 6일), 사회복지의 날(9월 7일), 백로(9월 8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9월 10일), 해양경찰의 날(9월 10일), 세계 오존층 보호의 날(9월 16일), 철도의 날(9월 18

일), 세계 평화의 날(셋째 화요일), 승용차 없는 날(9월 22일), 추분(9월 23일), 세계 해사의 날(World Maritime Day, 9월 25일), 관광의 날(9월 27일)이 있다.

(2) 10월

매년 시월이면 자연스럽게 찾아듣게 되는 노래가 두 곡 있다. 한 곡은 테너 김동규 씨의 목소리가 힘차면서도 멋스럽게 다가오는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이고(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걸이다), 또 한 곡은 가수 이용 씨가 부른 ‘잊혀진 계절’이다. 두 노래는 마치 전국의 모든 시민들이 인정한 시월의 테마송처럼 취급이 되는데, 도서관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로 부터 중요한 곳으로 인정받으면 좋겠다. 또한 어느 순간부터 서서히 잊히는 곳이 아니고, 어느 멋진 날만 계속 이어지는 그런 때가 찾아 왔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현재 도서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해나가야 하지 않겠는가. 다음은 10월에 기획해 볼 수 있을만한 제안 프로그램들이다.

① 세계 노인의 날

날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인문제에 대하여 세계적, 국민적 관심을 고취시키고 노인에 대한 공경과 감사한 마음을 새기기 위해 제정한 기념일로, 유엔이 정한 세계 노인의 날은 10월 1일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유엔이 정한 노인의 날인 10월 1일이 ‘국군의 날’ 이어서 하루 뒤인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결정, 1997년부터 법정기념일이 되었다.

독일에서 덴마크인 부모에게서 태어나, 향후 미국으로 건너가 정신분석학을 연구했던 에릭 에릭슨(Erik H. Erikson)은 인간의 사회성 발달이론으로 유명하다. 그는 모든 인간이 완전한 발달에 이르기까지 특정 단계를 갖는다고 보고, 태어나서 죽기까지 사람들이 겪는 8단계를 이론화하였다. 그 가운데 노년기(성인기 후기)는 마지막 8단계로써, 통정성(integrity)을 획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정성은 다른 말로 통합감이라고도 하며, 설명하자면 살아온 세월을 돌아보며 과거의 긍정적 자아상과 현재의 생을 동일시함으로써 상실감이나 우울, 죄책감 등을 느끼는 대신 만족감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인 인구가 많아지고 건강이나 자녀와의 관계 등 개개인별 상황에 따라 통정성 보다는 우울감을 느끼는 분들이 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따라서 이런 발달적 특성과 시기적 상황을 고려해 도서관에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글쓰기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면 좋겠다. 글쓰기는 통합감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활동으로, 특히 자서전 쓰기를 통해 살아온 삶을 회상하며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리는 것은, 사후 유산으로 남길 수도 있는 의미 있는 작업이다. 안양시 석수도서관에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글쓰기 프로그램을 운영한 사례가 있다.

〈실버의 행복, 도서관 함께 해요〉

- 기 간 : 9-11월
- 대 상 : 65세 이상 어르신 20명
- 장 소 : 문화교실
- 세부 운영 내용 <표 28>

회차	교육활동내용	비고
1	독서치료(1) 사전검사(우울증검사, 자존감 검사)	
2	관악산 수목원 및 예술 공원 탐방	※시 회계과 차량협조
3	독서치료(2) 이야기 만들기	
4	독서치료(3) 감정표현하기(인생선그리기)	며느리 밥풀떼기(도서)
5	독서치료(4) 당당한 성이야기	노인의 성 정년은 없다(VTR)
6	독서치료(5) 가사 바꾸기(자서전쓰기)	가시나무 새(도서)
7	웃음치료 : 웃음으로 스트레스 해소	※스토리텔링봉사단 협조
8	독서치료(6) 지금당장(유서쓰기)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
9	예절교육관 탐방	※시 문화예술과 협조
10	독서치료(7) 내 모습 만들기	엠마(도서)

※ 어르신 대상의 건강강좌(관내 병원 협조), 동화구연강좌 등 개설 운영

- 소요예산 항목 : 강사수당, 재료비, 전시회 운영비 등
- 연계행사 : 자서전, 유서쓰기 등 전시회 개최

〈나만의 책 만들기 : 자서전 쓰기〉

① 프로그램 운영 목표

- 개인의 삶을 정리하고 회고토록 하는 독서치료의 효과
- 지나온 인생정리를 통한 남아있는 인생을 새롭게 설계할 수 있도록 마인드 변화 제고
- 자서전 출간 지원을 통하여 시민들의 글쓰기 및 독서 붐 조성에 기여

② 프로그램 운영 개요

- 운영기간 : 9~11월 중
- 대 상 : 일반시민(특히 65세 이상 어르신 중심)
- 장 소 : 문화교실
- 운영방법 : 글쓰기 지도를 통한 자서전 쓰기 교육

③ 사전 준비사항

- 관내 문인들과의 협조를 통해 글쓰기 교육 강사 및 심사위원 인력 확보
- 향후 자서전 출간을 위한 예산 확보

※ 도서관 자체예산 확보가 어려운 경우 시의 출판 지원 사업으로 출간 검토

④ 지역사회 연계방안

- 지역 사회 기관과의 연계 : 관내 문인단체(문인협회, 작가협회 등)와 협조

⑤ 프로그램 구성 <표 29>

순 서	교육내용	비 고
1	자서전을 왜 쓰는가?	
2	문장쓰기의 기초 교육	
3	타인의 자서전 엿보기	
4	나의 삶 돌아보기 : 내 인생의 사람, 사건들	
5	나를 발견하기	
6	자서전 쓰기 교육	
7	발표 및 평가하기	

- 자서전쓰기 교육을 단기간 하기는 어려우므로 강사들과 교육내용을 협의하여 1권의 자서전이 제작되기 위한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진행

- 개인별 자서전을 쓰고 나면 공정한 심사를 통해 우수한 내용은 출판비 지원 검토
- 자서전이 출간될 때까지 문학 작가와 멘토링제를 실시하여 지속적인 지도체계 구축
- 자서전 여러 편을 묶어 하나의 책으로 제작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

⑥ 소요예산 항목 <표 30>

구 분	산출내역	비 고
강사로	도서관별 기준에 따른 강사수당	
재료비	자서전 쓰기를 위한 재료비 일체	
출판비	자서전 출판비용	

⑦ 향후 연계행사

- 향후 도서관에서 출판기념회, 강연회를 연계하여 개최
- 출판된 자서전을 관내 학교, 작은도서관 등에 배부하여 좋은 자료로 활용 되도록 함.

② 교과서의 날

매년 10월 5일로써, 으뜸 되는 교육 수단인 교과서를 다시 새롭게 기리자는 취지로 선포한 기념일이다. 이를 계기로 하여 우리의 교육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과서에 대한 발전적인 개선을 지향하는데 동참함으로써, 보다 향상된 교수학습 매체를 누릴 수 있도록 힘써 이바지하자는 뜻으로 대의를 세웠다. 나아가, 교과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보다 활성적인 연구 개발을 촉진하며, 이를 통해 교과서 출판문화에 기여함으로써 질적으로 더욱 우수하고 활용성이 우월한 교육 매체로 발전시키자는 뜻에서 제정된 날이다.

교과서는 책 중의 책이다. 재고할 여지도 없지만, 교과서야말로 가장 오랜 역사를 이어온 대표적인 교육 수단이기 때문이다. 이는 그 나라와 그 사회가 추구하고자 하는 국민 교육 목표를 좇아 교육 공기(公器)로서의 소임을 충실히 구현하는데 지향점을 둔다. 근대적인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교과서 역사는

1세기를 넘겼다. 일찍부터 교육 근대화에 눈을 뗀던 서구 사회에 비하면 짧은 연륜이지만, 우리의 근대사와 함께 해온 대표적인 교육 수단이 교과서였다. 교과서는 과거와 현재를 통하여 인간이 터득해 온 사회 문화적 경험들을 축적한 내용들을 선택, 배열한 지식과 정보의 원천으로서 높은 가치와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지금까지 사람들이 누린 지식 기반은 교과서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해도 무방하다. 나아가 교과서에는 우리의 역사와 문화가 들어 있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민족의 혼과 이상도 담겨 있다. 언어와 역사와 풍습이 다른 나라들도 그런 점에서는 마찬가지이다. 이 때문에 현재에도 교과서를 보다 훌륭한 매체로 창출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모으고 있다. 미래의 주역이 될 학생들에게 우리 민족의 혼과 이상은 물론, 올바른 지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교과서도 필요에 따라 개정이 이루어지는데, 결국 개정판이 나오게 되면 기존의 교과서는 더 이상 쓰이지 않는 자료가 되어 버린다. 그렇다면 그 자료들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 누군가는 그 자료들을 모두 보관하고 있을까? 짐작컨대 교육과학기술부는 그동안 개발되어 쓰인 교과서들을 모두 갖고 있을 것이다. 어찌면 학교도서관 중에도 일부는 갖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공공도서관에서 모든 교과서를 소장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니 그동안 우리나라 학교에서 학생들을 웃고 울린 교과서들을 모아 전시회를 해보면 어떨까? 물론 탐구생활과 같이 방학 과제로 반드시 해야 했던 자료들도 함께 전시하면 많은 사람들을 추억에 젖게 만들 것이다.

※ 인터넷 참고정보원 : 한국교육개발원 사이버교과서박물관

(<http://www.textlib.net>)

③ 임신부의 날

지난 2005년 12월에 제정된 임신부의 날은 풍요의 달인 10월과 10개월간의 임신기간을 의미하는 10월 10일로서, 임신과 출산을 소중히 여기고 배려하는 사회분위기를 만들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통계청⁽²⁰⁾에서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2010년도에 태어난 아이의 수는 47만 2백 명으로 2009년에 비해 2만 6천 명 가량이 증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는 국가 중 하나여서, 국가적으로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고 있다. 하지만 부모들은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데 따른 부담 등의 이유로 출산을 꺼리고 있다. 게다가 점점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의 비율 또한 높아지면서 높은 출산율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은 사회로 바뀌어 가고 있다. 다시 한 번 베이비 붐(baby boom)⁽²¹⁾, 즉 아기를 낳는 열풍이 몰아쳐야 하는데 과연 그런 날이 올 것인지 쉽게 기대를 할 수가 없는 현실이다.

그런 실정이다 보니 국가에서는 임신을 하고 출산을 앞두고 있는 임신부들에게 여러 혜택을 주고 있다. 또한 공공도서관 가운데에는 보건소와 연계를 해서 임신부들을 위한 ‘태교 독서’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한 곳들도 있다. 이제 그들도 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는 특정한 대상으로 분류를 할 수 있게 된 것

20. 통계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ostat.go.kr>)

21. 아기를 가지고 싶어 하는 어떤 시기의 공통된 사회적 경향으로, 출생률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베이비붐은 대체로 전쟁이 끝난 후나 불경기가 끝난 후 경제적, 사회적으로 풍요롭고 안정된 상황에서 일어나는 경향이 있으며, 이에 따라 인구의 자연 증가율이 현저하게 높아진다. 미국에서는 2차 세계대전 후인 45~60년에 출생률이 증가하였는데, 이때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는 미국 내 최대 인구 집단이란 점에서 일찍부터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다. 이 베이비붐 세대는 전쟁 후 미국의 풍요 속에 자라났으며, 이후 미국사회의 소비문화를 이끌어 왔다. 특히 이 세대 중에 의도적으로 자녀를 두지 않는 맞벌이 부부들이 많아 이들을 덩크족(Dink: Double income no kids족)이라 부르기도 했다. 일본에서는 1948년 전후로 출생률이 높아져 베이비 붐 세대를 이루었는데, 이들을 단카이(團塊: 덩어리)세대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6.25 전쟁이 끝난 1955년 이후 베이비붐이 나타난 바 있다.

이다. 그러니 아직 그들을 서비스 대상으로 삼지 않았던 도서관이라면, 지역 내 보건소와 연계를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셨으면 한다. 앞서 소개한 ‘태교 독서’도 괜찮고, 임신과 출산 내용을 담고 있는 자료들도 많이 소장하고 있을 테니, 그것들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의 모색도 괜찮겠다. 임산부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출산 후 ‘북 스타트’와도 연계가 가능해지므로, 미래의 이용자를 키우는 일이 될 것이다.

④ 독도의 날

독도의 날은 10월 25일로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정한 대한제국칙령 제 41호가 제정된 1900년 10월 25일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대한제국칙령 제 41호의 역사성을 기리는 것은 물론, 정부에서 개최하는 기념식을 통해 국내외에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역사적 근거를 통해 알리고, 또한 독도의 날은 독도의 주권국으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대내외적으로 독도수호의지를 표명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민간단체인 독도 수호대는 2000년 8월에 독도의 날을 선정한 이후 전시와 강연을 통해 ‘독도의 날’ 제정취지를 알려왔다. 2004년 12월,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기 국회에 1차 청원을 하였고, 2008년 8월에 박영아의원외 78인의 국회의원, 일반인 59,268의 서명을 받아 2차 청원을 하였다. 울릉군에서는 조례로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제정하였다.

독도는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다시피 분명한 대한민국의 영토이다. 그런데 멀리 떨어져 있는 섬이기 때문인지, 국민의 관심이 꾸준히 유지되기가 어렵다. 그래서 조용하다 싶으면 한 번씩 독도가 자기네 영토라고 주장하는 일이 발생을 하고, 그때에만 불같이 일어나 관심을 두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따라서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인 관심과 근원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날만이라도 공공도서관에 가면(지역 내 대표도서관 등 한 곳에서 만이라도) 독도에 관한 자료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도록 해주면 어떨까 한다. 마침 통신기가 발달을 한 시대이니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문자나 이메일을 보내 독도의 날에는 도서관에 모여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를 합창한 뒤 헤어지는 플래시 몹(flash mob)²²⁾을 제안해도 재미있겠다.

※ 인터넷 참고정보원 : 사이버 독도(<http://www.dokdo.go.kr>)

⑤ 교정의 날

교정의 날은 10월 28일이다. 법무부 주관으로 교정 관련 종사자들의 사기를 높이고 재소자의 갱생의지를 촉진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대한민국의 기념일이다.

지난 2011년 8월 29일 월요일 오전, 국립중앙도서관과 교정본부는 국립중앙도서관 내 디지털도서관 대회의실에서, 교정시설 도서관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작은도서관 통합자료관리시스템(KOLASYS-NET)을 보급·지원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한다. 이 협약은 지식소외계층인 수용자에게 책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접하고 인성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주기 위한 시도이자, 선진 교정문화 조성의 시대적 흐름 속에서 교도소 도서관의 역할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시도라 생각된다. 교도소 도서관은 전문 인력 및 운영프로그램의 부재로 지식습득과 인성함양의 중심으로 자리 잡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수용자들에게 서비스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그런 어려움을 해소하고 교도소 도서관의 운영 활성화를 기한다는 측면에서도 이 협

22. 불특정 다수인이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모여 주어진 행동을 하고 곧바로 흩어지는 것을 말한다.

약은 긍정적 효과가 많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프로그램의 수용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용인에 소재한 법무연수원에서 전국 50명의 교정시설 도서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비전문가를 위한 기초적인 도서관 운영 실무교육 및 공공도서관과의 협력방안, 도서관리 프로그램 운영 교육 등을 실시했다고 하니, 향후 지속적인 연계가 가능한 교두보도 마련해 두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지역 내 교도소 및 구치소, 나아가 보호관찰소나 분류심사원, 소년원이 있는 곳에서는 찾아가는 도서관 서비스 및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볼 필요가 있겠다. 찾아가는 도서관 서비스 방안 중 하나를 제안하자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의 대상을 복지기관이 아닌 교정시설로 바꾸기만 해도 될 듯하다. 독서치료 프로그램 운영은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일 수 있다.

⑥ 할로윈 데이

서양에서 10월 31일 귀신분장을 하고 치르는 축제. 영국 등 북유럽과 미국에서는 큰 축제일로 지켜지고 있는 할로윈 데이는, 원래 기원전 500년경 아일랜드 켈트족의 풍습인 삼하인(Samhain) 축제에서 유래되었다.

켈트족들의 새해 첫날은 겨울이 시작되는 11월 1일인데 그들은 사람이 죽어도 그 영혼은 1년 동안 다른 사람의 몸속에 있다가 내세로 간다고 믿었다. 그래서 한 해의 마지막 날인 10월 31일, 죽은 자들은 앞으로 1년 동안 자신이 기거할 상대를 선택한다고 여겨, 사람들은 귀신 복장을 하고 집안을 차갑게 만들어 죽은 자의 영혼이 들어오는 것을 막았다고 하며, 이 풍습이 할로윈 데이의 시작이다.

그러다 로마가 켈트족을 정복한 뒤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교황 보니파체 4세가 11월 1일을 '모든 성인의 날(All Hallow Day)'로 정하면서 그 전날이 '모든 성인들의 날 전야(All Hallows' Eve)'가 되었고, 이 말이 훗날 '할로윈(Halloween)'으로 바뀌어 오늘날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후 영국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이주하면서 미국에서도 할로윈 축제가 자리

를 잡게 되었으며, 이제는 국민적 축제가 되었다. 미국 · 유럽 등지에서는 할로윈 데이 밤이면 마녀 · 해적 · 만화주인공 등으로 분장한 어린이들이 “trick or treat(과자를 안주면 장난칠 거야)”를 외치며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초콜릿과 사탕을 얻어간다.

한편 할로윈 데이에는 ‘잭-오-랜턴(Jack O’ Lantern)’이라 불리는 호박 등이 등장한다. 속을 파낸 큰 호박에 도깨비의 얼굴을 새기고, 안에 초를 넣어 도깨비 눈처럼 번쩍이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 장식품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할로윈 데이는 특정한 사람들만 찾아 즐기는 날이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할로윈 데이에 파티를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특히 할로윈 데이에는 자신만의 개성을 십분 살릴 수 있는 복장으로 변장을 할 수 있어서인지, 아동에서부터 젊은이들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날이 되었다. 따라서 얼마 지나지 않아 크리스마스처럼 자연스레 모든 사람들이 즐기게 되는 날이 될 것 같은데, 이런 할로윈 데이 행사에도 도서관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 제안을 해보고자 한다.

우선 할로윈 데이에는 도서관 곳곳에도 ‘잭-오-랜턴(Jack O’ Lantern)’을 밝혀 분위기를 조성했으면 한다. 그런 뒤 그림책이나 동화책, 혹은 잘 알려진 소설책에 나오는 등장인물 가운데 한 사람으로 분장놀이²³⁾ 할 지원자들을 모은 뒤, 그들 가운데 가장 분장을 잘 한 사람을 뽑는 것이다. 그런 다음 그들이 직접 고른 캐릭터가 나오는 이야기를 읽어주는 행사로까지 연결을 지으면 한결 도서관다운 면모를 갖출 수 있겠다.

이어서 두 번째 방안은 ‘무서운 이야기 콘테스트’를 실시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23. 분장놀이는 ‘코스프레’(코스튬 플레이의 줄임말, Cosplay)를 갈음한 우리말 순화어이다. ‘코스프레’는 ‘만화, 영화, 게임 등에 나오는 주인공과 똑같이 분장하여 따라 하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라에도 등골이 오싹한 전설과 민담이 많이 전해오는데, 내가 알고 있는 가장 무서운 이야기가 담긴 원고를 공모해서 그 중 몇 가지를 뽑는 것이다. 그런 뒤 그 내용을 할로윈 데이에 맞추어 홈페이지와 전시 공간에도 공개를 하면 되겠다.

그밖에도 10월에는 세계 인간정주의 날(첫째 월요일), 국군의 날(10월 1일), 개천절(10월 3일), 중앙절(10월 5일), 세계 한인의 날(10월 5일), 재향군인의 날(10월 8일), 한글날(10월 9일), 한로(10월 9일), 세계 우편의 날(10월 9일), 한방의 날(10월 10일), 흰 지팡이의 날(10월 15일), 체육의 날(10월 15일), 문화의 날(셋째 토요일), 세계 식량의 날(10월 16일), 세계 빈곤 퇴치의 날(10월 17일), 산의 날(10월 18일), 초경의 날(10월 20일), 경찰의 날(10월 21일), 국제연합일(UN Day, 10월 24일), 상강(10월 24일), 저축의 날(10월 마지막 화요일), 영화의 날(10월 27일), 대한적십자사 창립일(10월 27일), 항공의 날(10월 30일)이 있다.

(3) 11월

① 학생독립운동기념일

일제강점기 6·10만세사건과 광주학생운동 등 학생 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학생들에게 자율역량과 애국심을 함양시키는 한편, 반독재·민주화 투쟁에 앞장섰던 학생들의 얼을 기리기 위해 제정한 날이다. 광주학생운동이 일어났던 날을 기념해 매년 11월 3일에 행사를 개최한다.

1953년 ‘학생의 날’이라는 명칭으로 국가기념일로 제정되었으나, 1973년 3월 30일 이른바 유신시대에 학생들의 반독재·민주화 투쟁이 계속되자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폐지되었다. 이후 부활 운동이 일어나 1982년 9월 14일 ‘학생독립운동 기념일 제정에 관한 건의안’이 국회에 상정되었고, 1984년 9월 22일 국가기념일인 ‘학생의 날’로 부활하였으며, 2006년 2월 9일 국회에서 ‘학생독립운동기념일’로 명칭 변경이 의결되어 오늘에 이른다.

도서관 이용자로서의 학생은 초등학생을 제외하고는 서비스 대상으로 삼기에 어려움이 있다. 왜냐하면 학업의 중요성 때문에 일단 도서관을 이용할 시간적 여유가 적기 때문이다. 따라서 프로그램을 기획해 대상자를 모집하려 해도 인원이 부족해 폐강을 하기 일쑤이다. 그나마 대안으로 학교로 찾아가거나 학생들이 모여 있는 지역아동센터 등과의 연계 사업을 추진하면 낫지만, 자발적인 개인 참여자를 모집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때문에 긴 시간 동안 참여해야 하는 정규 프로그램보다는 단기간의 특강과 일회적 행사가 더 효율적이겠는데, 이 날에는 관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토론 대회를 진행해 보면 좋겠다. 마침 과거에는 ‘학생의 날’ 이었고 현재는 ‘학생독립운동기념일’이라는 명칭과 함께 의미도 부여되어 있으니, 그 의미를 살려 ‘현 시대의 학생에게 요구되는 모습’이라는 주제 혹은 나라사랑의 주제를 바탕으로 토론을 진행하면 되겠다. 만약 도서관이 교육청 소속이라면 관내 학교에 공문을 시행하고, 그 학교의 교사 가운데 토론 대회를 진행할 수 있는 분을 섭외해서 사회자를 맡기면 되겠다.

② 만화의 날

한국 만화의 부흥과 만화인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지정한 기념일로, 매년 11월 3일이다.

만화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었을지는 몰라도, 그 자체를 싫어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학부모나 선생님의 입장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보다 좋은 책을 읽었으면 하는 마음 때문에 늘 손에 잡고 있는 것을 제한할 뿐이지, 다른 분야의 책들도

열심히 읽고 공부 또한 잘하면서 만화를 본다면 극구 말릴 분들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어른들 중에는 만화가 좋지 않은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시다. 물론 지나치게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내용이 담긴, 또한 상업적인 판매에만 목적을 두고 조잡하게 만들어 낸 만화들도 분명 있다. 하지만 반대로 아이들이 꼭 봐야 할 좋은 만화들도 무수히 많다. 다만 차이라면, 그 만화에 대해 어른들이 잘 모른다는 것이다.

그래서 만화의 날에는 우선 도서관의 사서들이 선정한 좋은 만화 전시회를 해보면 좋겠다. 일반 시민들에게 있어 사서는 책에 관한, 독서교육에 관한 전문가일 필요가 있다. 이는 곧 도서관에 가서 책과 독서교육 등 독서에 관해 물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아직 우리나라 시민들의 인식에는 그런 측면이 자리 잡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기회가 될 때마다 사서에 의한 서비스가 시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사서가 주가 되어 실시할 수 있는 서비스 가운데 자료 선정과 그에 대한 발표 및 전시는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된다.

③ 지체 장애인의 날

장애인들이 세상을 향해 당당히 일어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정이 된 날로, 직립을 의미하는 숫자 1이 네 개나 들어가 있는 매년 11월 11일이다.

최근 도서관에도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의 개념이 도입되었다고 한다. 유니버설디자인이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의 Center for accessible housing(1994년 Center for universal design으로 명칭 변경) 소장이었던 로널드 메이스(Ronald L. Mace)가 중심이 되어 사회를 정비하려는 전략

으로 생각해 낸 것으로,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모든 사람들을 위한 디자인 (Design for All)’이다. 즉, 연령과 성별, 국적(언어)과 문화적 배경, 장애의 유무 등에 관계없이 처음부터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사용하기 편리한 제품 및 사용 환경의 디자인을 의미하는 것이다. 유니버설디자인은 인간 중심의 디자인으로 장애 유무에 상관없이 최대한 모든 사람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연령층이 이용 가능한 ‘평생을 위한 디자인’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다양한 사람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세상이므로, 차별과 불평등이 없도록 구성을 한다는 측면에서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동안 많은 부분에서 소외가 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너무 늦은 발걸음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도서관 가운데 이 개념을 적극적으로 도입한 곳은 2009년도 12월 23일에 개관한 화성시 봉담도서관이 있다. 이 도서관은 건물 자체가 커다란 책의 모양을 하고 있어서 화제가 되기도 했으며,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되어 문턱이 없는 것은 물론 건물의 단차도 없어 노인과 장애인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한 특징이 있다고 한다.

이처럼 도서관들은 지역 내 모든 서비스 대상들에게 보다 나은 모습으로 다가가기 위해 노력을 한다. 그런데 그런 측면을 미처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 따라서 이런 날을 맞아 관련 행사를 유치해 실시하며 부수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겠다. 한국대학생인재협회는 2011년 지체장애인의 날을 맞아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프리 허그 등을 통해 홍보활동을 벌였다고 하는데, 이와 같이 대외적인 홍보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단체들과 협력을 해서, 도서관 시설을 활용하게 하는 방안을 꾀하는 것도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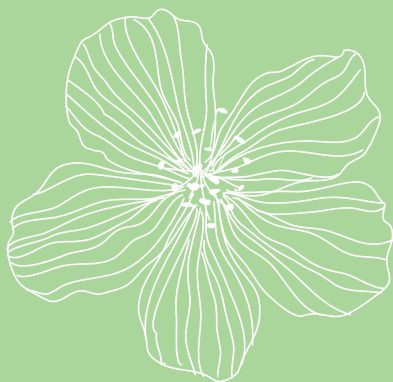
④ 소설

24절기 중 스무 번째 절기. 이날 첫눈이 내린다고 하여 소설(小雪)이라고 한다. 태양의 황경(黃經)이 240도일 때이며, 양력으로 11월 22일 또는 23일 무렵, 음력으로는 10월에 든다. 겨울이 시작되는 입동(立冬) 후 15일, 큰 눈이 내린다는 대설(大雪) 전 약 15일에 든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척 첫 눈을 기다리는 경향이 있다. 첫 눈이 내릴 때까지 손톱에 물들인 봉숭아물이 남아 있으면 첫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가 전해오고, 연인들은 첫 눈 오는 날 어디서 만나자는 약속을 미리 정해 놓기도 한다. 미리 약속이 정해져 있지 않아도 첫 눈이 내리는 날에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문자와 전화가 오가기도 한다고 하니, 이런 현상만 봐도 첫 눈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래서 소설(小雪)에 반드시 첫 눈이 내린다는 보장은 없지만(다른 날에 오면 그 날로 바꾸어 행사를 진행해도 된다), 첫 눈이 오는 날 도서관에서 따로 마련한 만남의 장소에 먼저 도착하는 커플 10쌍을 뽑아 사랑을 주제로 한 소설(fiction)을 한 권씩 선물을 주는 이벤트를 실시해 보자. 이 행사의 제목은 ‘소설(小雪)에 쓰는 사랑의 소설(fiction)’이다.

그밖에도 11월에는 육림의 날(첫째 토요일), 입동(11월 8일), 소방의 날(11월 9일), 농업인의 날(11월 11일), 해군 창설 기념일(11월 11일), 순국선열의 날(11월 17일), 무역의 날(11월 30일)이 있다.



겨울 · 봄 · 여름 · 가을 그리고 도서관



05

다 시 겨울 ,
향연을 위한 준비

05



다시 겨울, 향연을 위한 준비

어느덧 한 해가 지나 다시 겨울이 찾아왔다. 찬바람은 옷깃을 여미게 하지만, 온 세상을 축복하듯 하늘에서 쏟아지는 눈은 우리를 들뜨게 한다. 누군가를 만나 파티를 하고 싶게 만든다. 세상 모든 곳이 축제의 장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 우선 축제를 즐기자. 1년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 그 정도의 자격은 충분하다. 혹시 무엇인가를 더 열심히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면, 봄과 여름, 가을의 향연을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생각하자. 그렇게 나를 잠시 내려놓고 앞으로 펼쳐질 일들을 하나둘 정리해 보자. 도서관의 잔치는 이미 시작되었으니까.

1. 상황별 서비스 제안

어떤 사람은 삶을 늘 불안하다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늘 흥미롭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삶을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좋은 일이 있는가 싶다가도 어느 순간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하고, 반대인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따라서 좋은 일이 있다고 너무 기뻐하지 말 것이며, 슬픈 일이 있다고 해서 너무 아파하지도 말라고 한 것 같다.

이처럼 우리는 태어나 죽음에 이를 때까지 여러 상황을 겪는다. 그런데 사

람들은 그런 상황을 겪을 때마다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다.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하지 않던가. 또한 사람은 결국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 안에 있을 때에야 비로소 마음의 평안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누군가와 함께, 필요할 때에는 도움도 받고 싶어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 도서관이 함께 한다면 어떨까? 마치 보험회사의 광고에 나오는 홍보 문구처럼 기쁠 때나 슬플 때, 특히 슬프고 힘들 때 함께 한다면, 도서관은 사람들에게 있어 마음에 힘이 되어 주는 친구도 될 수 있을 것이다. ‘상황별 서비스 제안’은 바로 그런 측면에 초점을 둔 것으로, 사람들이 살면서 겪을 수 있는 일들에 도서관이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 시도이다. 이런 모색의 기저에는 공공도서관이 항상 시민들을 위한다는 측면에서 함께해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의 출현은 곧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대응도 이루어질 것이므로 공공도서관의 역할에 충실한 차원까지만 생각을 발전시켰음을 밝힌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만 초점을 두었음을 밝힌다.

1) 자연 현상 - 지구 온난화, 홍수, 한파, 황사, 지진, 해일, 화산 폭발 등

사람이 살면서 자연 현상만큼 예상하기 어려운 일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 파괴력을 생각하면 가장 두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환경을 보존해서 재난을 예방하려는 노력은 부족하기만 하다. 그래서인지 시간이 흐를수록 환경은 더욱 오염되어 가고 있다. 그에 따라 이상 기후가 발생하여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국가 전체가 위기에 빠질 정도의 피해를 입기도 한다. 그야

말로 자연앞에서 있는 인간이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가를 실감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해마다 겪는 피해들이 있다. 봄에는 황사, 여름에는 홍수, 겨울에는 한파로 인한 피해가 그것이다. 또한 아직 실감이 나지는 않지만 지진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백두산의 화산이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위험 앞에도 놓여 있다고 한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재난이 닥칠 것이라 예상되지만, 이런 재난 앞에서는 도서관과 사서 역시 무기력 할 수밖에 없다. 대신 미리 미리 예방하자는 캠페인에 동참을 하고, 관련 정보가 필요해 오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제공해 주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일이 도서관과 사서의 역할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국가재난정보센터(www.safekorea.go.kr)와 긴밀한 연락망을 구성해 두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럼으로써 시민들이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힘을 기르도록 돕는 역할을 해나가면 되겠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불안을 어루만져 줄 수는 없지만,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에 대한 정보의 제공만으로 힘이 될 것이다.

2) 사회 상황 - 초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다문화 가정 및 새터민 증가, 싱글족의 증가, 테러 및 전쟁 발생, 빈부의 양극화 현상 등

자연 현상은 예측을 하기 어렵지만, 사회 상황들은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이미 겪고 있기 때문에 체감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과학적인 통계와 연구 결과들이 그것을 입증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런 상황들이 개인적인 측면이라 치부하기보다는, 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대처해 나가야 하는 일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임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사회적인 상황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아마 다음과 같은 일들일 것이다.

(1) 초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의학 및 과학 기술의 발전에 따라 사람의 수명은 증가하고 있다. 때문에 우리나라도 2020년이면 초 고령화 사회로 진입이 되어 노인 인구가 20% 이상을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노인과 관련된 산업은 이미 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국가적인 차원에서 복지 등의 방안 역시 지속적으로 모색되고 있는 것 같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 대한 도서관의 대처는 어떠한가. 경기도에서는 2010년과 2011년에 걸쳐 도내 31개 시·군의 공공도서관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독서도우미 양성과정을 운영한 바 있다. 이 과정은 도서관에서 실시하는 어르신 대상 프로그램 중 가장 큰 성과를 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과정을 제외하면 도서관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꾸준히 실시가 되는 프로그램이 없다(물론 서예나 사군자 등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속적으로 어르신들을 수용하는 도서관이 있겠으나, 이 프로그램들은 도서관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제외를 한 것임). 따라서 향후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모색하되, 노인복지관과 노인복지센터에서는 주로 건강과 오락 위주의 프로그램이 주가 되는 것과는 차별화를 기하며 도서관 특성에 맞는 것을 실시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프로그램의 예로는 앞서 제안한 ‘자서전 쓰기’ 등이 있겠다.

또한 어르신들을 도서관의 주 이용자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은 ‘어르신 자료실’이다. 이 자료실에는 큰 글씨 책으로만 자료를 구성하고, 어르신들이 편히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돋보기 및 안락의자 비치 등)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2) 다문화 가정 및 새터민 증가

다문화 가정 및 새터민의 증가는 이미 체감을 하고 있는 사회적 현상이다.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도 그들을 지원하기 위한 센터를 설립하는 등 아주 많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므로 도서관에서는 한 분야 정도만 전문적으로 담당을 했으면 하는데, 그 분야는 바로 문해(literacy) 교육이다. 마침 도서관에는 풍부한 자료가 있으므로, 그런 자료들을 활용해 우리말과 글을 빨리 익혀 구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3) 싱글족의 증가

2011년 8월 서울시의 발표에 따르면, 1인 가구의 비율이 24.4%를 차지해 사상 처음 4인 가구(23.1%)의 비율을 넘어섰다고 한다. 싱글족이라 불리는 이들은, 일반적으로 탄탄한 경제력과 인터넷 활용 능력을 갖추고 자신들만의 삶을 만끽하며 홀로 사는 신세대 남녀를 말한다. 그들은 결혼이라는 틀에 자기를 맞추기보다 자유와 이상, 일을 더 중요시하며 자유롭게 당당하게 살려는 욕구가 강하다. 따라서 ‘함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 문화도 그들을 겨냥해 조금씩 바뀌어 나가고 있는데, 예를 들어 혼자 지내기 편리한 작은 평수의 오피스텔이 많이 지어진다거나, 1인용 가구의 생산, 간편 가정식(HRM) 시장의 확대 등을 꼽을 수 있다.

따라서 도서관에서도 혼자만의 시간과 공간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을 준비했으면 한다. 최근 세미나 실 등을 마련해 동아리 모임을 갖고자 하는 이용자들에게 대관을 해주는 도서관들이 있는데, 이보다 크기를 줄여 한 사람만 들어가서 독서나 기타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구성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

(4) 테러 및 전쟁 발생

모두가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이다. 따라서 언제나 테러와 전쟁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그런데 그에 비해 시민들의 안보의식은 높지 않은 편이다. 물론 이렇다 할 테러가 발생을 했거나 6·25 이후 전시 상황이 연출된 적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늘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도서관에서는 이와 관련된 서비스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는데, 2001년 9·11 테러를 겪은 미국 뉴욕공공도서관에서 실시했던 방안을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 관련 자료를 찾아보니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다. 9·11테러가 일어났을 때 뉴욕공공도서관에서는 테러 사건을 겪은 시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상정하여, 다음 날에는 그것들에 대응하는 정보원을 정리한 웹 사이트를 개설하는 빠른 처리 능력을 보여주었다고 한다. 또한 이라크와의 전쟁 발발 시에는 최신 뉴스를 전하는 등 이라크 전쟁의 이해를 돕기 위한 코너를 웹 사이트에 개설했다고 한다.²⁴⁾ 역설적이게도 9·11 테러를 저지른 테러리스트들이 플로리다 공공도서관에서 테러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고 도서관 컴퓨터를 이용해 이메일 교신을 했다는 점이 조사를 통해 밝혀져, 미국 내 도서관에는 도서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한 없이 조사할 수 있도록 수사권을 강화하는 ‘애국법(Patriot Act)’이 만들어지기도 했다고 한다. 어쨌든 테러리스트들도 도서관에 가면 필요한 자료를 구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24. 스카야아키코, 2004. 미래를 만드는 도서관, 서울: 지식여행.

(5) 빈부의 양극화 현상

사실 가난은 대통령도 막을 수 없고, 구제할 수도 없는 일이다. 그런데 그들이 자립해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울 수는 있다. 그런 시스템이 사회복지 정책을 중심으로 이미 실행이 되고 있는데, 도서관도 이미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양질의 강의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물론, 필요한 자료를 수시로 빌려서 볼 수 있는 것은 물론 열람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을 해두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한 기틀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도서관 이용을 못하는 면도 있다. 여기서도 적극적으로 도서관에 오는 사람들만이, 즉 아는 사람들만이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그러므로 도서관은 때로 낮은 곳을 내려다보고, 그곳에 임할 필요도 있다. 이미 관내 지역아동센터나 복지관 등에 지원 사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는 도서관들이 있는데, 이런 방안을 넓히는 것도 빈부의 양극화 현상을 줄이는데 기여하는 한 방법이겠다.

4) 스포츠 행사 - 올림픽, 월드컵

우리나라는 오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아시안 게임과 하계 올림픽, 동계 올림픽과 월드컵이라는 큰 스포츠 행사를 모두 유치한 나라의 반열에 오르게 됐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달성한 위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자랑스러워 할 만 한 일이라 생각되는데, 이런 기념비적인 행사에 도서관이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우선 먼저 떠올릴 수 있는 방안은 역시 관련 자료를 모아 전시를 하는 것이다. 현재 도서관 중에는 지역 사회 향토 자료를 모아 향토 자료실을 운영하는

곳은 있지만, 올림픽이나 월드컵, 아시안 게임과 관련된 자료실을 운영하는 곳은 없다. 따라서 수원과 같이 월드컵을 유치한 경험이 있는 도시에서는 공공도서관 중 한 곳에 월드컵 자료실을 운영해 그 역사적 가치를 오래도록 간직할 필요가 있겠다.

이어서 올림픽이나 월드컵이 열리는 기간에는 정보원을 정리한 웹 사이트를 운영해, 도서관 홈페이지에만 오면 관련 자료들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면 좋겠다.

5) 기타 상황 - 선거, 대학수학능력시험, 취업 불안과 실업률 증가

앞서 살펴본 상황 이외에도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일들은 너무나 다양하다. 따라서 모든 것을 아우를 수는 없는데, 그 가운데 조금 더 많은 사람들과 관련이 있는 상황들 위주로 몇 가지를 꼽아 보자면 다음과 같다.

(1) 선거

선거는 일정한 조직이나 집단이 대표자나 임원을 뽑는 일이다. 초등학교의 한 학급에서 반장을 뽑는 것도 선거이지만, 여기서는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등 나라의 일을 맡아 운영할 사람을 뽑는 선거, 그래서 전 국민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선거가 있을 때 도서관이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물론 도서관이 선거에 개입을 하는 것은 위험한 시도일 수 있다. 그러나 시민이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선거가 다가오면 선거 관련 도서목록을 만들거나, 입후보자의 웹사이트 등 시민들이 투표에 참여하기 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들과의 링크를 걸어두는 일은 충분히 시도해 볼 수 있겠다.

(2) 대학수학능력시험

우리나라의 입시 풍경은 다른 어느 나라에도 없는 모습이라고 한다. 하긴 대학을 잘 가야 향후 인생도 잘 풀릴 거라는 믿음이 지배를 하고 있고, 10년 넘게 해온 공부를 단 한 번의 시험으로 평가를 하니 그도 그럴 수밖에 없겠다. 따라서 고등학교 3학년 시기를 보내는 학생이나 학부모는 초긴장 상태로 시험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나아가 시험 결과가 나온 후에는 입학할 수 있는 학교에 대한 정보를 찾고 눈치작전을 벌이느라 또 한 번의 힘든 일정을 소화해야 한다. 그야말로 전쟁이다.

그러므로 이때에는 도서관에서도(특히 교육청 산하 도서관) 입시 관련 특강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겠다. 더불어 입시 관련 자료들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을 해놓는다면, 불안에 떨고 있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발길이 이어질 것이라 생각된다. 이때 전국의 모든 대학들이 발행하는 입시 요람을 비치한 후 이용하게 하는 것도 좋겠다.

(3) 취업 불안과 실업률 증가로 인한 상황들

이제 평생직장의 개념은 점차 사라져 가고 있다. 또한 은퇴의 시점도 점점 빨라지고 있다. 이는 직장인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 이루어지는 면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결정되는 일이기도 하다. 따라서 원하는 곳에 취업을 하고 있지 못한 청년 백수들과, 이직과 퇴직의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스펙⁽²⁵⁾을 쌓느라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데, 이런 그들의 특성과 요구에 걸맞은 서비스를 도서관에서도 실시할 수 있겠다.

마침 공공도서관들은 야간 개관 시간을 늘리면서 직장인들을 위한 서비스

를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다. 이미 여러 도서관에서는 그들을 대상으로 한 강좌 및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때 직업 전문 능력 개발을 위한 자격증 과정을 개설하는 것도 큰 호응을 얻을 수 있겠다. 또한 국비 지원의 실업자들을 위한 재취업 교육 과정이 있는데, 도서관이 독서교육 및 독서치료 등 독서 관련 교육 과정 운영 기관으로 지정을 받아 운영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다. 이미 도서관 내에 ‘취업 정보실’을 두고 있는 곳들은, 그곳이 PC방과 같이 운영되는 현상을 좌시하지 말고 보다 적극적인 활용 방안을 찾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되겠다.

2. 주제별 서비스 제안

사람은 자신의 주제와 분수를 알아야 한다. 그래야 무리수를 두지 않는 현명한 결정과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서들도 도서관 서비스 운영을 위한 주제와 분수를 알아야 한다. 여기서의 주제는 도서관에서 행사 및 프로그램으로 실시할 수 있는 사항들을 말하는 것으로, 도서관이 속해 있는 지역사회의 특성 및 자관의 특성 등을 모두 포함한다. 그야말로 ‘주제’가 될 수 있는 것이면 모든 것이 프로그램과 연결할 수 있다는 생각인데, 그 중 몇 가지만 골라 도서관과의 연계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25. 영어 'Specification'의 줄임말로, 취업 준비생들 사이에서 쓰이는 용어이다. 직장을 구할 때나 입시를 치를 때 요구되는 학벌, 학점, 토익 점수 등의 평가 요소를 말한다.

1) 경기도 10대 대표 축제와의 연계 방안

경기도 지역축제 심의위원회에서는 2012년도에 적극적으로 육성할 10대 축제를 선정했다고 한다. 11명의 축제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축제 심의위원회 평가위원들은 15개 시·군에서 열리고 있는 18개 지역축제에 대해 심사 자료와 발표를 통해 향후 경쟁력이 있는 도내 10개의 지역축제를 선정했으며, 각 축제의 잘된 점과 보완해야 할 점 등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고 한다. 이번에 선정된 10대 축제는 이천 쌀 문화축제, 안산 국제 거리극 축제, 수원 화성문화제, 가평 자라섬 국제재즈페스티벌, 파주 북소리, 시흥 갯골 축제, 파천 한마당 축제, 연천 전곡리구석기 축제, 고양 국제 꽃박람회, 남양주 다산문화제 등이다.

이번에 선정된 10대 축제의 면모를 살펴보니, 이미 많은 사람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선정된 열 개의 축제 이외에도 각 지역마다 특색 있는 축제 및 행사가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므로 관내 도서관에서는 이런 축제 및 행사들과의 연계 방안을 모색해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 가평군의 경우 자라섬 국제재즈페스티벌이 있을 때 이동도서관을 운영하여 지역민은 물론 관광객에게 다가가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겠다. 따라서 아직 아무런 연계 방안을 갖고 있지 못한 도서관에서는 가평군의 사례를 참고해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축제를 바탕으로 생성된 자료들(사진 등)도 수집을 해서, 관내 대표 도서관이나 특성화 도서관에서 보존을 해나가도록 하는 것도 도서관의 역할일 수 있겠다.

2) 시민의 날 및 군민의 날과 연계 방안

경기도 내 모든 시와 군은 각각 시민의 날 및 군민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각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통 3일에 걸쳐 행사를 진행하는데, 아쉬운 것은 3일 동안의 프로그램에 도서관이 주최가 된 것, 혹은 도서관에 소속이 된 동아리가 주인공이 되어 운영하는 것이 없다는 점이다. 그에 반해 학교 및 복지관, 동사무소 내에 소속된 동아리들은 참여를 해서 공연을 펼치는 순서가 많다. 이런 점에 비추어 봤을 때 도서관에서는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된다. 분명 도서관에도 오카리나와 같은 악기를 배우는 강좌가 있기도 하고, 동화 구연이나 인형극을 봉사하는 팀도 있다. 또한 북 아트 강좌 등도 있기 때문에 전시 효과나 공연을 펼칠 수 있는 팀들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나가 행사의 보조 진행에만 힘을 쓰고 있었다면, 분명 개선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다. 그러므로 사서들이 직접 주도해 참여할 수 없다면 앞서 살펴본 팀들을 활용해 도서관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한다.

더불어 각 시군에는 상징성이 담긴 마스코트와 마크 등이 있다. 하지만 그 시군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것들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니 이런 기회에 도서관이 주최가 되어 알릴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것도 한 방법이겠다. 상징성이 담긴 것들의 예는 안양시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26]

시의 꽃 : 개나리 - 해마다 첫봄을 알리는 개나리는 번식과 성장이 빠르고 아

26. 안양시청 홈페이지(www.anyang.go.kr).

롭다워 사랑과 의욕이 충만한 시민 정신을 잘 나타내며 어느 곳에서도 잘 자라는 생태는 안양시민의 저력을 과시한다.

시의 나무 : 은행나무 - 은행나무는 오래 살고 병충해에 강하며 열매를 잘 맺고 또 잎이 곱기로도 유명하다. 그래서 시에서는 가로수를 은행나무로 심었으며 안양시의 번영을 나타내 주고 있다.

시의 새 : 독수리 - 드높은 하늘을 향해 비상하는 하늘의 왕자인 독수리는 안양시민의 왕성한 기상과 안양시의 번영을 뜻한다.

시의 마스코트 : 포동이 - 안양을 상징했던 포도를 형상화했으며 안양시 행정기관과 시민과의 관계를 좀 더 친숙하고 가깝게 느끼게 하는 역할을 한다.

시의 마크 - 평화와 시민의 안정된 생활, 백의민족의 순결과 깨끗함을 상징하며 사방으로 뻗어가는 희망찬 발전, 문화적 교류의 태양 시민으로서의 안양인을 상징한다.

3) 자매결연 도시와의 연계 방안

자매결연이란, 한 지역이나 단체가 다른 지역이나 단체와 서로 돕거나 교류하기 위하여 친선 관계를 맺는 일을 말한다. 이렇듯 서로 자매결연을 맺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다음과 같이 여섯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지역마다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이 다르기 때문이고, 둘째, 다양한 행사를 통해서 지역과 지역이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이다. 셋째, 교류를 통해 서로 도움을 주고받아 발전하기 위해서이고, 넷째,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받기 위해서이다. 다섯째, 정보를 교환하고 협력하기 위해서이고, 마지막 여섯 번째로 지역 발전을 꾀하고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이다. 이런 목적으로 한 지역

이나 단체는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예를 들어 군포시는 전남 무안군, 경북 예천군, 충남 청양군, 충남 부여군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다. 또한 해외 도시로는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벨빌시(Belleville City, Ontario Canada), 미국 테네시주 클락스빌시(Clarksville City, Tennessee, USA), 미국 워싱턴주 그랜트카운티(Grant County, Washington, USA), 중국 산둥성 린이시, 일본 가나가와현 아즈기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다.²⁷⁾

따라서 이런 상황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는데, 한 예로 가평군립도서관이 미국 유타주 시더시 공공도서관과 자매결연 1주년 기념 초청 행사와 가평 및 한국 자료 기증(2010년 10월 9일 기증서 전달)을 한 내용을 참고할 수 있겠다.

〈시더시 공공도서관 한국자료 기증〉

① 배경 및 목적

- 가평군과 미국 유타주 시더시와의 자매결연 사업의 일환으로 양국 각 지역의 공공도서관간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각 나라의 역사와 문화교류 및 우호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
- 가평군-시더시 자매결연 1주년 기념 초청행사시 가평 및 한국자료 기증서 전달

② 사업개요

- 대 상 : 미국 유타주 시더시 공공도서관
- 사 업 량 : 한국자료기증 300점 (자료는 별도 배송)
- 사업내용 : 한국의 역사와 문화 관련 원서 및 번역서, 가평 및 도서관 홍보 자료, 한국영화 및 음반자료
- 예 산 액 : 00천원(자료구입 00원, 택배료 00원)운영기간 : 여름방학 중 1박 2일

27 군포시청 홈페이지(www.gunpo21.net)

시더시 공공도서관 현황

- 개 관 일 : 1909년(개관당시 250권 장서보유)
- 면 적 : 730평
- 운영주체 : 시더시 도서관운영위원회
- 운영인력 : 11명(정규직만)
- 장 서 수 : 76,686권(2009년 기준)
- 관 장 : Steve Decker
- 홈페이지 : <http://www2.youseemore.com/cedarc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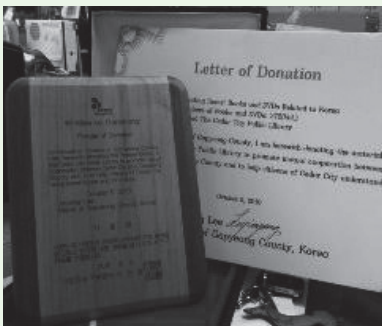
③ 세부추진계획

- 1단계(2010년) : 우리군 방문 시 한국자료 기증
- 2단계(2011년) : 상대국 자료코너 조성, 지역주민에게 개방(Window on Gapyeong)
- 3단계(2012년) : 도서관 직원 상호방문, 벤치마킹, 업무협력 등

④ 기대효과

- 한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잘 전달하는 정보자료 교류를 통한 대한민국 위상 제고
- 도서관 관련지식 및 상호교류 추진으로 도서관을 세계화수준으로 향상

⑤ 관련사진 <그림 29-30>



<그림 29-30>

4) 박물관, 미술관, 영화관, 대사관, 종교 단체와의 연계 방안

퓨전(fusion)이라는 말이 유행이다. 이 말은 종래에 지켜져 오던 순수주의적 태도를 배격하고 이들을 혼합하여 생산하고자 하는 새로운 경향을 일컫는다. 과거에는 역할과 장르를 구분한 가운데 기능화 · 전문화를 추구하여 왔으나, 이제는 사고와 생산 활동에 있어서 잡종 또는 변형된 형태가 보다 합리적이라는 주장이 점차 대두되고 있다. 실제 자연계에서의 진화란 잡종화의 역사이며 최근의 급속한 과학기술의 발달은 생명공학을 통해 새로운 변형 유전체를 가능하게 했으며 문화적 · 사상적으로 이종 간의 접합이 시도되고 있다. 잡종화 또는 퓨전의 요점은 물리적인 잡종화 그 자체가 아니라 잡종화의 과정에 내재되어 있는 창조성에 있다. 맹물도 아니고 사이다나 주스도 아닌 퓨전음료, 유전공학과 사이버네틱스에 의한 인간과 동물, 인간과 기계의 잡종, 금융백화점, 좌파도 우파도 아닌 제3의 길 등이 새로운 퓨전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정치 · 행정 · 사회 · 산업 · 기업 등이 혼합된 퓨전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미국경제의 유연성, 고성장 저물가의 지속 등도 퓨전 현상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런 흐름은 음악, 미술, 패션, 요리 등 여러 분야에 이미 접목이 되고 있다. 따라서 기존에 볼 수 없었던 것들을 만들어 내며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으며, 그 분야를 진일보하게 만들어 주고 있기도 하다.

도서관은 물론 박물관, 미술관, 영화관, 대사관, 종교단체들은 분명 자기만의 운영 목적과 색깔을 갖고 있는 곳들이다. 따라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만으로도 바쁘겠고, 자신의 틀을 바꾸려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백짓장도 맞들면 더 나은 것처럼 서로가 힘을 합하면 시민들은 새로운 서비스, 보

다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서로 적극적인 협력을 해 나갈 필요가 있는데, 영화관과 대사관, 종교단체들은 한 번에 해당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곳이 없지만, 경기도 내 박물관과 미술관에서 진행될 행사에 대한 정보는 ‘경기도박물관 홈페이지(<http://www.musenet.or.kr>)’, ‘경기도미술관(<http://www.gm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호림박물관에서 도서관과의 만남을 겨냥해 실시한 전시 관련 내용 한 가지와, 서울특별시 금천구립 가산정보도서관이 열 세 곳의 대사관과 함께 한 협력 사례이다. 프로그램 구성과 진행에 참고하시기 바란다.

(1) 박물관, 도서관을 만나다⁽²⁸⁾

성보문화재단 산하 호림박물관(관장 오윤선)은 ‘박물관, 도서관을 만나다 - The Librarium’을 주제로 하는 특별전을 2011년 9월 22일부터 2012년 2월말까지 서울 강남 신사분관에서 개최한다. Librarium은 원래는 도서관을 의미하는 라틴어지만, 박물관은 이번 전시에서 이를 ‘museum(박물관)’과 ‘library’(도서관)의 합성어로 사용했다. 박물관과 도서관의 만남을 겨냥한 이번 전시는 ‘박물관 속 도서관’과 ‘선비의 서재’라는 두 가지 소주제로 나눠 기획됐다.

박물관 속 도서관 코너에서는 도서관 서가를 형상화한 전시연출을 시도했다. 서가를 연상케 하는 유물진열장에는 관람객이 도서관 서가에서 책을 뽑아 보듯이 유물을 관람토록 하면서 유물번호로 유물정보가 담긴 카드를 찾도록 했다. 도서관 분위기가 물씬 나도록 책상과 의자를 배치했으며 관련 참고도서도 비치해 유물카드와 같이 전시품을 공부할 수 있도록 했다.

전시품으로는 각종 대접과 접시류의 도자기 유물 150여 점을 골랐다. 제작 연대를 의미하는 간지(干支)가 들어간 청자나 장흥고(長興庫)를 비롯한 도자기 사용처를 명시한 분청사기, 그리고 천지현황(天地玄黃)이라는 글자가 들어간 백자가 다수 포함된다.

‘선비의 서재’에는 조선시대 선비들이 늘 곁에 두고 보던 각종 서적과 각종 기

물 90여 점을 전시한다. 서당에서 가장 먼저 배우는 천자문(千字文)을 비롯해 사서삼경(四書三經), 자치통감강목(資治通鑑綱目)과 각종 행실도(行實圖), 책거리 병풍과 책거리 병풍에 등장하는 기물, 문방사우(文房四友)를 이 코너에서 만날 수 있다. 석봉(石峯) 한호(韓濩)가 쓴 천자문이나 조선 세종 당시 경연(經筵) 도장이 찍힌 자치통감강목, 규장지보(奎章之寶)가 찍힌 춘추(春秋) 등이 전시품에 포함된다.

(2) 대사관과 함께하는 세계 책 여행

1. 대사관과 함께하는 세계 책 여행 추진개요 및 추진방법

1. 추진 개요

- 프로그램명 : 대사관과 함께하는 세계 책 여행
- 운영기간 : 2009년 2월~ 2010년 4월(현재)
- 프로그램진행 : 각국의 주한 대사관
- 운영장소 : 금천구립 가산정보도서관 6층 문화강좌실
- 운영시간 : 매 월 1회 저녁 6시
- 참여대상 : 지역주민(어린이 및 학부모 등)

2. 추진 방법

1) 대사관, 도서관에 오다

처음 다문화 인식개선이라는 큰 뜻을 품었으나 서로 다른 문화를 소개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기회를 갖고자 함에 있어 어떠한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뜬구름을 잡는 기분이었다. 도서관에는 다른 나라 언어로 된 도서라고 해 봤자 영어, 일본어, 중국어 자료뿐 이었고 사명감을 갖고 자신의 나라를 소개해 줄만한 진행자를 찾는 것도 쉽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책과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 답을 찾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 각 나라를 대표하는 곳. 우리 가까운 곳에 바로 대사관이 있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했던가? 우리의 뜻을 전하면 대사관에서도 흔쾌히 승낙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용감하게 대사관 문을 두드렸지만 대사관과의 연계는 생각보다 그리 쉽지 않았다. 단순하게 대사관의 한국 직원에게 문의해서 일정만 잡으면 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은 큰 오산이었다. 현지인이신 영사님, 참사관님을 직접 만나 서울의 끝자락에 위치한 작은 구립도서관에 그것도 이용자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저녁시간에 오셔서 진행해 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 드려야 했다. 영어로 공문을 작성하고 우리 사서들의 진심어린 생각을 담아 이메일을 보내고 용기를 내어 바디랭기지를 섞어가며 이야기를 나눈 끝에 바야흐로 대사관 연계의 물꼬가 트이기 시작하였다.

2) 도서관다운 프로그램 진행

도서관에서 프로그램 및 문화행사를 기획함에 있어 간과해선 안 될 점이 있다. 바로 도서관의 성격과 역할에 맞는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매우 간단하면서도 당연히 보이는 이치이지만 도서관에 문화센터 및 평생학습기관으로의 역할이 요구되면서 원치 않게 도서관 자원이나 책과 관련되지 않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기도 한다. 가산정보도서관에서는 도서관의 책과 연계되지 않은 문화프로그램은 최대한 배제시키고 있으며 대사관 프로그램도 이러한 기준을 벗어날 수는 없었다.

사서들은 대사관 프로그램이 시작되기 전부터 초청 대사관 관련 나라의 도서를 전시하고 국기, 천연자원, 시차, 인구 수, 주요수출품 등 각 나라에 대한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정보를 수집, 정리하여 벽면에 부착하는 등 도서관 자원을 활용하여 프로그램 시작 전에 먼저 해당 나라를 만날 수 있게 하였다.

또 대사관에 프로그램 진행시 반드시 해당나라의 책을 소개하고 모국어로 구연해줄 것을 요청하여 책을 매개로 서로를 이해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했다. 이러한 계기로 일본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스웨덴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사우디아라비아어, 방글라데시어 등 다양한 언어로 동화를 들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베트남의 '팜과 낄' 이야기는 우리의 콩쥐팍쥐, 인도네시아의 오이공주는 우리의 여우누이 등 서로 다른 모습과 문화를 가진 나라와 우리나라 전래 동화의

비슷한 내용을 발견하면서 가까워짐을 느낄 수 있었다.

3) 지속적인 프로그램으로 정착

우리의 목표가 다문화 인식개선인 만큼 대사관 프로그램을 1회성 행사로 끝낼 수 는 없었다. 일회성의 행사가 아닌 장기적인 인식개선 프로그램으로 자리를 잡고자 매 월 지속적으로 진행하고자 했으며 지역에 살고 있는 가족이 모두 함께 참여하여 다문화 인식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가족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고려해 평일 저녁 시간에 진행하고 있다.

저녁시간에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니 아이들도 학원이 끝날 시간이고 엄마, 아빠도 퇴근 후 참여할 수 있어 다문화를 이해하는 효과가 더욱 클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저녁시간에 프로그램을 진행해본 결과 우리의 예상대로 가족이 함께 대사관 프로그램에 참여하였고, 한 마디라도 놓칠세라 온 가족이 옹기종기 모여앉아 필기까지 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II. 대사관과 함께하는 세계 책 여행 운영 현황

가산정보도서관에서는 다문화 인식 개선 프로그램으로 기획된 '대사관과 함께하는 세계 책 여행' 프로그램을 2009년 2월부터 시작하여 각 나라의 주한 대사관 및 문화원을 매달 1회 초청하여 그 나라의 책과 함께 다양한 문화를 지역주민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지금까지 진행해 온 대사관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1〉 세계 책 여행 운영 일정

회	일 시	초청대사관
1회	2009년 2월 19일 (목) 18시	인도대사관
2회	2009년 3월 16일 (월) 18시	일본대사관
3회	2009년 4월 1일 (수) 18시	터키대사관
4회	2009년 5월 18일 (월) 18시	스웨덴대사관
5회	2009년 6월 25일 (목) 18시	독일대사관
6회	2009년 7월 9일 (목) 18시	이탈리아대사관
7회	2009년 8월 20일 (목) 18시	미국대사관
8회	2009년 9월 21일 (월) 18시	몽골대사관
9회	2009년 10월 13일 (화) 18시	베트남대사관
10회	2009년 11월 16일 (화) 18시	인도네시아대사관
11회	2010년 1월 12일 (화) 18시	사우디아라비아대사관
12회	2010년 3월 15일 (월) 18시	남아프리카공화국대사관
13회	2010년 4월 27일 (화) 18시	방글라데시대사관

1. 인도대사관 편

2009년 2월 19일 인도대사관을 시작으로 ‘대사관과 함께하는 세계 책 여행’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인도대사관 영사부인이신 시마바제씨를 비롯하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100여명의 인도 여성들로 구성된 인도 레이디스 클럽에서도 참여하여 인도에 대한 모든 것을 보여주었다. 프로그램이 시작되기 전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인도를 소개하는 책 내용을 전시하여 참여하는 지역 주민들이 책을 통하여 인도를 먼저 만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전시된 책 내용을 살펴본 부모들은 책의 소장위치를 묻기도 하면서 관심을 보였고 함께 온 자녀에게 책 내용을 설명해 주기도 하였다.

프로그램 시작과 함께 사리를 입고 등장한 인도인을 보면서 아이들의 눈빛은 새로운 세상을 향한 호기심으로 가득 찼다. 들어오자마자 아이들의 미간에 복을 기원하는 인도 전통 장식 ‘빈디(bindi)’를 붙여주어 참여자들이 인도를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해주었다. 그 후 인도의 지리적 위치, 언어, 문화유산, 오늘날의 인도 등 인도에 대한 설명을 쉽고 자세히 알려주었다. 지역마다 입는 방법에 차이가 있는 인도의 전통의상인 사리(Sari)를 직접 입혀주며 어린이들에게 하나씩 설명해 주었다. 인도에 대한 신비감을 더욱 더 깊게 만들어주는 전통의상 사리는 사실 옷이기 보다는 길이가 5~6m정도 되는 한 장짜리 천으로, 이 천을 몸에 둘둘 말아 아름다운 옷맵시를 내는 모습을 지켜보며 감탄을 자아냈다. 또한 인도의 전통 춤을 직접 보여주며 어린이들이 함께 배워보는 시간도 가졌으며 대사관에서 가져온 인도에 관한 책도 소개해주었다. 여성들의 손에 식물성 염료로 그림을 그리는 헤나 즉 ‘맨디(mehndi)’도 직접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금천구 통계연보 외국인 등록 현황에는 인도인들의 분포가 적지만, 가산디지털단지에는 많은 인도인들이 IT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가산동에서 지역주민들과 자주 마주치게 된다. 한 이용자는 예전에는 이러한 인도인들을 볼 때,

못 사는 나라라는 인식과 함께 더러운 갠지스 강을 생각했는데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에 그들을 다시 보니 자신이 직접 체험해보았던 빈디(bindhi)와 사리(sari), 맨디(mehndni)가 떠오르게 되었다고 한다.

2. 방글라데시대사관 편

4월 27일에는 대사관과 함께하는 세계 책 여행 그 13번째 시간으로 방글라데시 대사관편이 진행되었다. 방글라데시대사관 사예드 나시르 에르샤드 일등서기관님의 부인이신 해피 에르샤드 님께서 오셔서 방글라데시에 대해 재미있게 소개해주었다.

방글라데시의 지리적 위치, 국기, 전통의상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고 방글라데시 동화 The thirsty crow and the jug of water (목마른 까마귀와 물주전자)를 방글라데시어로 함께 읽어보는 시간도 가졌다. 방글라데시에는 한강과 같은 강이 100개가 넘지만 산은 몇 개 되지 않는다는 점이 놀라웠다. 그로인해 국토의 2/5가 물에 잠길 정도로 장마철 침수의 피해가 매우 크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런던에서 실시된 한 설문조사에서는 방글라데시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행복지수가 높게 나타났다고 한다. 보통 이러한 설문조사에서 우리나라의 행복지수는 하위권을 맴도는 것으로 알고 있다. 긍정적인 방글라데시인들의 삶의 자세는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마지막으로 방글라데시 대사관에서 직접 준비해 오신 전통 스프 ‘달’을 함께 맛보는 시간도 가졌다. 방글라데시에 대해 함께 알아보고 음식까지 나눌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

Ⅲ. 대사관과 함께하는 세계 책 여행 운영 효과

대사관과 함께하는 세계 책 여행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우리보다도 더욱 큰 관심을 보이며 열심히 준비해주시는 분들을 만날 수 있었다. 인도네시아의 아그마드 무리아 가르니다 참사관님은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린이

들에게 “어린이들이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어린이들은 앞으로 한국을 이끌어 나갈 미래의 리더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문화에 대해 알고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며 도서관에서 세계 여러 나라를 만날 수 있는 것은 매우 좋은 기회이다.”라고 말씀하셨고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빌레미나티페 서기관님께서 “내 나라를 알리고 싶은 마음이 절실했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가 생겨서 매우 기쁘다. 길에서 우연히 한국인들과 대화를 나눌 때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왔다고 하면 고개를 갸우뚱하고 넬슨 만델라의 나라라고 알려야만 고개를 끄덕인다. 이번 프로그램을 계기로 가산정보도서관의 대사관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제 ‘남아프리카공화국’ 하면 아~ 도서관에서 만났던 그 나라! 라고 떠올릴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니 매우 보람된다.”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다문화인들에게 이 땅에서 살려면 우리의 것을 익혀야 한다는 명목 하에 한복을 입히고 김치 담그기, 한국문화체험 등의 행사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진행해왔다. 하지만 남아프리카공화국 빌레미나티페 서기관님의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민 및 다문화인들은 자신들이 한국말을 배우고, 한국 문화와 예절에 대해 공부하는 것처럼 한국인들도 자신들의 나라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아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가산정보도서관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대사관과 함께하는 세계 책 여행 프로그램을 통해 실제로 이용자들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정확히 계량적으로는 나타낼 수는 없지만 우리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다문화인들과 지역주민을 연결하고 소통하는 가교역할을 하고자 노력해왔고 참여자 작은 반응들을 통해 그들의 생각이 조금씩 조금씩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

도서관에서 서로 다른 문화를 만나고 보고 느끼면서 이용자들의 다문화인식이 점점 향상되고 마음속에 다양성과 서로 다름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졌으리라. 고 김수환 추기경님은 머리의 생각이 가슴으로 내려오기까지 7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고 말씀하셨다. 우리들 머리의 생각이 가슴으로 내려오기까지 추기경님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러한 도서관의 작은 노력을 통해 금천의 지역 주민들은 오늘도 세계를 향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5) 공단 등 산업 시설과의 연계 방안

경기도 내 공단이나 산업 시설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꽤 큰 공단이 들어서 있는 지역들이 있다. 예를 들어 안산시는 반월 시화 공단이 들어서 있는데, 공단에는 무수히 많은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다. 따라서 안산시 관산도서관처럼 공단 부근에 있기 때문에 전문기술서적 중심으로 운영되는 특화도서관에서는 연계 방안을 모색해 실시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일례로 야간 연장 개관에 맞춰 실시가 되는 프로그램은 공단 직원들이 관심을 가질 분야(직업 능력 개발 교육 등)로 택해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수강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좋겠다. 또한 공단 직원들의 점심시간에 맞춰 식당가가 조성되어 있다면 그 앞에 이동도서관을 배치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다. 결국 이런 도서관의 시도는 공단의 긍정적인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므로 ‘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홈페이지 <http://iemo.gg.go.kr>)’와 연계하는 방안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겠다.

3. 해외 공공도서관 운영 사례

1) 아니메콘(Animecon)⁽²⁹⁾

- ① 프로그램/서비스 유형 : 일회성 프로그램/특별행사
- ② 대 상 : 중 · 고등학생
- ③ 프로그램 요약 : 『아니메콘』은 청소년들(12-19세)이 루이스빌 자유 공공

도서관 시스템의 중앙도서관에 모여 애니메이션³⁰⁾을 즐기는 연례행사이다. 이 행사는 도서관의 청소년 이용자들이 일본 애니메이션과 만화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은 데서 착안하여 기획하였다. 몇몇 분관에서는 월 정기 모임으로 애니메이션 클럽을 만들었으며, 일본 만화는 청소년들 사이에 가장 인기가 많은 도서 중 하나이다. 애니메이션 물결이 도서관을 휩쓸었고, 『아니메콘』은 그에 대한 반응으로 생겨났다. 지난 3년간 『아니메콘』은 소규모의 4시간짜리 프로그램에서 이틀에 걸쳐 진행되는 초대형 행사로 발전했고, 2006년에는 500명 넘는 청소년들이 참여했다. 2006년도 행사에서는 애니메이션 상영과 함께 일본 문화, 일본 만화스토리 창작과 그리기, 청소년 중심의 패널 토론, 일본 만화와 애니메이션만을 제공하는 이동도서관 등을 함께 진행했다.

④ 서비스 대상 및 인구학적 특성 : 2006년도의 『아니메콘』 행사는 대상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진행했다. 12-19세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는 이틀에 걸친 행사를 진행하고, 5-11세의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반나절짜리 프로그램을 별도로 진행했다. 2000년도 인구조사에 따르면, 루이스빌의 청소년 인구는 168,271명에 달하며, 백인 77.4퍼센트, 흑인 18.9퍼센트, 히스패닉/라틴계 1.8퍼센트, 아시아계 1.4퍼센트, 기타 0.5퍼센트로 구성되어 있다.

⑤ 직원 및 자원봉사자의 수 : 2명의 직원(케이트 시아비와 케리 헌터)이 이 프로그램을 기획(일정 수립, 웹사이트 업데이트, 워크숍 추진, 워크숍 진행자와 회의, 각종 회의에서 행사 진행 과정 보고, 홍보, 물품 구매 등)하는데 약 60시간 정도를 사용했다. 이틀에 걸쳐 진행된 행사에서는 8명의 직원이 1일 8시간씩(직원 1인당 총 16시간) 행사 진행을 도왔다. 워크숍을 지원할 직원들을 배정하는데 8시간 정도가 소요되었다.

⑥ 자금 및 예산 마련 : 이 프로그램은 우리 도서관의 연간 어린이 프로그램 예산으로 편성되었다. 총 지출액은 700불 정도이다. 프로그램 참가자 수가 500명 이상인 것을 감안하면, 참가자 1인당 1.40불 정도가 소요된 셈이다. 상세한 예산 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 32〉

물품 구입	댄스댄스 레볼루션 게임 패드	120불
	명찰	100불
	코스프레 및 참가자 경품	100불
	공예품 및 종이접기 재료	125불
	표지판 제작용 재료	30불
	기타	50불
워크숍 진행자/ 출연자	유미 나가키, 일본 다도 시범	120불
	그래험 셀비, 일본 동화 구연	100불
	마티 에들린, 메트로아트 센터 (메트로 기관과 서비스 교환)	100불
	루이스빌 검도 클럽	125불
	루이스빌 바둑 클럽	30불

2) 책 읽어주는 경찰(Inviting Police to Read at Your Library)⁽³¹⁾

〈왜〉

지역 경찰을 도서관으로 초대해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게 하면 여러 면에서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 지역 주민들과 도서관 직원, 경찰 모두에게 수많은 혜택이 있는 것이다.

먼저, 어린 아이들과 부모들이 참석하는 사적인 자리에 지역 경찰을 초대함으로써 공동체의식이 형성된다. 일반적으로, 아이들은 가장 먼저 자신들의 일

27 에이미 알레시오 엠클. 2010. 청소년을 위한 도서관 우수서비스 사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어린이청소년 서비스 번역자료집 4. 서울: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30 애니메이션의 줄임말로 일본 만화영화를 가리킨다.

31 벅시 다이먼트-코헨 엠클. 2011. 어린이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 성공적인 파트너십.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어린이청소년 서비스 번역자료집 8. 서울: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차적인 보호자 즉, 자신이 잘 알고 신뢰하는 사람들이 책을 읽어주는 것을 좋아한다. 부모 다음으로는 아이 돌보미와 같이 자신을 돌봐주는 사람이나 다른 가족 구성원, 교사, 사서들과 책을 읽는 행위를 통해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여기에 경찰관을 추가하면 아이들이 생각하는 공동체의 범주가 넓어진다. 부모들도 새로운 시각으로 경찰을 보게 될 것이다. 경찰로서는 문제나 긴급 상황이 아닌 상황에 참여해서 일상의 평범한 사람들을 만날 기회이다. 양쪽 모두 같은 선에서 출발하며, 모두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함께 하는 자리를 즐긴다.

도서관의 스토리타임은 참여하는 경찰관에게는 즐거운 기분전환이 된다. 벌금을 부과할 것도 없고, 불편한 상황이 연출되지도 않고, 미소와 행복한 얼굴들만이 가득하다. 지역사회 치안이 점점 더 강조되는 시기에 경찰들은 도서관에 와서 서로 익숙한 사람들 앞에서 책을 읽어준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을 일대일로 알게 된다. 부담 없는 자리에서 부모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다. 엄격해 보이는 겉모습을 벗고 사람들과 친근하게 어울릴 기회를 갖는다. 또 자신의 자녀들에 책을 읽어주던 경험을 십분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경찰의 참여는 모든 사람들이 편하게 즐기는 활동의 활력소가 된다.

도서관의 활동에 경찰을 참여시키면, 사서로서는 지역의 다른 전문가가 대중들과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관찰할 기회를 얻는다. 경찰의 스타일이나 태도, 품행 등은 스토리타임 참가자들로부터 새롭고도 예기치 못한 반응을 끌어낼 가능성이 있다.

〈방법〉

008년 7월 14일에 열린 어반 심포지엄에서 프레드릭 빌리펠드 경찰국장이

볼티모어의 에녹 프랫 자유도서관의 사서들을 대상으로 연설을 할 때 경찰들을 초대해서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책을 읽어주게 하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했다. 프랫 도서관의 사서들은 곧장 자신의 해당 지역 경찰서에 연락해 자원봉사로 도서관에서 책을 읽어줄 의향이 있는 경찰관이 있는지를 찾았다. 빌리펠드 국장이 제안한 것처럼, 경찰관들은 이 아이디어를 크게 환영했다. 남부지구 경찰서의 지역사회 담당관에게 전화를 걸자 도서관의 스토리타임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경찰관들로부터 즉각적인 응답이 쏟아졌다. 프랫 도서관의 브룩클린 분관에서는 자원봉사 경찰관들과 사서들이 주 1회 시행되는 스토리타임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대상 청중은 3-5세의 아이들이었다. 경찰관이 방문하기 1주일 전에 부모들에게 스토리타임 진행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새로운 역할에 열성을 보인 경찰관들은 자신이 읽고 싶은 책의 목록을 적어오기도 했다.

빌리펠드 경찰국장의 연설이 있은 후 3주 만에 밀번 경관이 처음으로 스토리타임을 진행했다. 그는 견습 순경과 함께 왔다. 경찰서에서는 견습 프로그램에 스토리타임을 포함시킴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잠재적인 이득을 이미 예측한 것이었다. 그날 스토리타임에는 22명의 아이들과 보호자들이 참여했다. [중략]

책을 다 읽은 후에 두 경찰은 아이들 및 보호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방문하겠다고 약속했다. 부모와 경찰, 사서들은 모두 이 프로그램이 아주 잘 진행되었으며 지속할 필요성이 있다는데 동의했다. 담당 사서는 앞으로 계속 해서 다른 경찰들에게 연락하기로 했다. [중략]

사서 입장에서는 이처럼 적은 노력과 스트레스로 이렇게 훌륭한 성과를 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어반 심포지엄에서 빌리펠드

국장은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했고, 그의 직원들과 사서들의 협력을 통해 좋은 아이디어가 더욱 훌륭한 아이디어로 거듭났다.

3)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매사추세츠주 여름방학 독서 프로그램³²⁾

매사추세츠주는 컨설팅, 데이터베이스 과리, 도서 및 기타 자료 제공, 도서관 직원을 위한 평생교육 등의 활동을 제공하는 6개 지역 도서관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지역에는 어린이, 청소년, 학교 사서와 협력하는 어린이청소년 컨설턴트가 있다. 이러한 컨설턴트가 하는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사서들의 의견을 받아 매사추세츠주 여름방학 독서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일이다. 여기에는 주제 선정, 미술작품 제작 또는 확보, 종이류 판매점과 협상 및 인센티브 가격 책정, ReadsInMA에서 교육 세션 진행 등이 포함된다. 매사추세츠주 여름방학 독서 프로그램의 예산은 매사추세츠 지역 도서관 시스템, 매사추세츠 도서관 커미셔너 이사회, 지역 도서관들이 제공한다.

2006년 초 매사추세츠주의 지역 어린이청소년 컨설턴트 6명은 매사추세츠주 여름방학 독서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물리적으로 지역 도서관을 방문할 수 없는 어린이와 가정에 서비스를 제공할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농촌 지역의 경우 마을에 공공도서관이 없거나 도서관에서 너무 먼 곳에 거주해서 도서관 개관 시간에 방문하기 어려운 가정들이 많았다. 맞벌이 부모들은 아이들을 도서관에 데려올 시간이 거의 없었고, 또 지역에서 제공되는 여름방학 독서 프로그램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도 많았다.

32 벅시 다이먼트-코헨 엮음, 2011, 앞의 책.

어떤 식으로든 인터넷에서 독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이 모아졌다. 젊은 부모들일수록 온라인에서 ‘생활’ 하고 아이들은 온라인 시대에서 자라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였다. 어린이청소년 컨설턴트들은 직원 한 명으로 운영되는 초소형 도서관에서부터 여러 개의 분관을 갖춘 대형 도서관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도서관이 쉽게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했다. 컨설턴트들은 영리 회사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등록 및 추적 시스템을 사용하는 문제를 검토했고, 그 결과 2007년 초에 인디애나주에 위치한 이스밴드 솔루션스의 써머 리더(Summer Reader) 프로그램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ReadsinMA 프로그램을 통해 이용자들은 인터넷 상으로 독서 프로그램에 등록할 수 있다. 참가자들은 온라인 독서록을 이용해 독서 내용을 기록하는데, 몇몇 도서관에서는 이용자들이 자신이 읽은 책에 대한 평을 적을 수 있는 북 리뷰 기능을 선택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용자들은 다른 사람이 쓴 북 리뷰를 읽을 수 있고, 도서관의 온라인 카탈로그를 통해 원하는 책을 요청할 수도 있다. 독서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상품은 각 도서관이 개별적으로 결정한다. 이 프로그램은 또 이용자들에게 언제 상품을 받아갈 수 있는지 알려줌으로써 이들이 실제로 도서관 건물을 방문하도록 한다. 프로그램 자체가 전적으로 인터넷 기반이기 때문에 이용자들은 인터넷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자신의 독서록을 이어갈 수 있다.

이 프로젝트는 별도의 추가비용 없이 매사추세츠주 내의 모든 공공도서관이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 그 해 매사추세츠주 도서관 커미셔너 이사회의 우선 사업 중 하나는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서비스를 확

대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ReadsInMA.org 웹사이트 역시 그 목표를 달성하는데 활용되었다. 이사회는 도서관 서비스 및 기술법을 통해 받은 연방 기금을 사용해서 3년 시범 사업으로 이 프로젝트에 기금을 제공했다. 웹사이트는 2007년 여름방학 독서 프로그램에 맞춰 시작되었다. 그렇게 해서 매사추세츠주는 주 전역에서 온라인 독서 프로그램을 실시한 미국 내 첫 번째 주가 되었다.

4) 북 트랙(Book Track)⁽³³⁾

이 서비스는 영국의 데본(Devon) 카운티에 있는 엑스터중앙도서관(Exeter Central Library)에서 실시한 것으로, 6세 이상 어린이가 좋아하는 책을 선택해서 읽은 후 도서관 사서에게 그것에 대하여 이야기하면 사서는 어린이가 읽은 것을 기록하여 10권, 25권, 50권, 75권, 100권 읽을 때마다 배지를 주고 스티커는 40권과 60권, 90권을 읽을 때 준다. 100권의 책을 읽게 되면 특별한 증명서와 금배지를 준다. 데본 카운티의 도서관들은 오랫동안 북 트랙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왔는데, 이 프로그램은 어린이들로 하여금 그들의 지역 도서관에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책을 빌려 읽고 그것에 대하여 이야기하도록 독려하기 위한 것이다. 북 트랙은 참여 어린이들의 자긍심, 읽기와 쓰기 능력, 학습의 즐거움을 높여주고, ‘보물찾기’의 주제를 따라 이루어지며 모든 어린이들이 자신들의 독서 여행을 기록하기 위한 해적의 지도가 그려진 종이첩을 받는다.

33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2008. 2008 세계도서관현황 - 어린이서비스 중심 : 영국 · 프랑스 · 독일, 서울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5)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특별 웹사이트 운영

이 프로그램은 뉴욕 공공도서관의 브랜치 시스템 중 하나인 도넬도서관에서 실시가 되고 있는 서비스로, 도넬도서관은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서비스로 대표적인 도서관이다.

(1) 청소년을 위한 홈페이지 “TeenLink(teenlink.nypl.org)”운영³⁴⁾

익스플로러 핫라인, 도서리스트, 대학과 재무적인 정보, 스포츠, 숙제도우미 그리고 각 브랜치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월별 프로그램의 리스트 등을 제공한다. 청소년을 위한 독서 목록은 책속에서 만나는 세계, 동서양이 만나는 주제의 책, 역사 소설, 밸런타인데이를 위한 책, 수학을 좋아하지 않는 어린이를 위한 수학 책 등 다양한 주제의 목록을 제공하고 있다.

– TeenLife

건강에 대한 질문에 답할 수 있도록 관련된 핫라인이 연결되어 있다.

– Homework Help

숙제나 시험을 위해 필요한 도움은 물론 일반적인 학습에 도움을 주고 다른 다양한 주제로 링크 할 수 있다.

– Weird and Wacky

독특하고 재미있는 사이트를 링크해 줌으로서 공부를 잠시 중단하고 긴장을 풀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³⁴⁾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정보서비스팀. 2007.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사례집. 서울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 Booklists

월별로 주목받는 책의 목록을 오래도니 책과 새로운 책을 함께 리스트해 보여준다.

- Wordsmiths : Teen Voices @ TeenLink

청소년 시인, 작가, 또는 다른 청소년들이 쓴 작품을 읽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이곳을 방문하여 청소년들이 쓴 작품집을 만날 수 있다. 청소년들이 시 또는 짧은 이야기를 이곳에 제출하면 웹에서 그것을 출판하여 볼 수 있다.

- New York City Teens, TV and Movies, Art Links

오락적인 것과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싶을 때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2) 숙제도우미 ‘homeworkNYC.org(www.homeworknyc.org)’ 운영

이 웹사이트는 K-12학년을 위한 생생한 숙제 도우미 데이터베이스로 브루클린 공공도서관, 뉴욕공공도서관, 퀸즈도서관에 의해 강력하게 결합되어 있다.

6) Dial-a-Story & Hear-a-Story⁽³⁵⁾

이 프로그램은 토론토 공공도서관에서 실시한 사례로, 토론토 공공도서관은 캐나다에서 제일 큰 공공도서관 시스템으로 99개의 브랜치 도서관과 1,100만 장서를 소장하고 있다. 그 가운데 Dial-a-Story와 Here-a-Story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 서비스이다.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1) Dial-a-Story

24시간 365일 전화(416-395-5400)를 통해 설화, 신화, 전설, 다문화이야기, 시 등 다양한 이야기를 무료로 들려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 12세 이하 어린

이 대상으로 하며, 광둥어, 영어, 불어, 이태리어, 만다린어, 폴란드어, 포르투갈어, 소말리어, 스페인어, 타밀어로 이용할 수 있다. 관련 홍보내용을 냉장고 자석으로 만들어 부모들이 일상 속에서 쉽게 전화를 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Hear-a-Story

도서관의 어린이 홈페이지인 KIDSSPACE에서는 설화, 다문화이야기 등을 5세 이하, 5-12세 대상으로 나누어 영어, 불어, 이태리어로 들을 수 있도록 오디오파일을 올려놓고 다운로드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밖에도 ‘Tell-a-Story’는 홈페이지 상에서 친구에게 보내는 스토리 북(14페이지까지)을 직접 만들어 이메일로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스토리 북을 받은 친구는 다시 내용을 수정해서 다른 친구에게 보낼 수 있다.

7) 미국 공공도서관 독서 프로그램 현황 모음

미국의 공공도서관들은 각 지역 특성에 맞는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다음에 제시하는 내용은 각 지역의 공공도서관에서 운영한 독서 프로그램 현황으로, 박미영 선생님께서 정리한 것을 참고한 것이다.⁽³⁶⁾

(1) Midwest and Great Lakes States

미국 Midwest and Great Lakes States 지역에 위치한 아이오와(Iowa), 일리노이(Illinois), 인디애나(Indiana), 미네소타(Minnesota), 미주리(Missouri), 오

35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정보서비스팀. 2007. 앞의 책.

36 박미영. 2007. 공공도서관 특화서비스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독서활성화 방안. 한국도서관 · 정보학회지 38(1), pp. 315-339.

하이오(Ohio), 위스콘신(Wisconsin) 주(州)의 공공도서관 대부분은, 전 대상에 걸쳐 스토리타임, 독서클럽, 독서토론 그룹을 제공하고 있고,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일리노이 주의 Chicago Public Library에서 흑인 역사이야기, 실크로드 여행을, 청소년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으로 아이오와 주의 Iowa City Public Library의 애니메이션과 만화 페스티벌, 미주리 주 Missouri River Regional Library에서 청소년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성인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으로는 아이오와 주의 Iowa City Public Library의 빅 브레인을, 오하이오 주의 Cleveland Public Library에서 온라인 구직도우미를 제공하고 있다.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미국과 세계의 역사에 대해 흑인 역사주년을 지정한 후, 이를 기념하기 위해 한 달 동안 흑인 역사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실크로드 여행이란 프로그램에서는 강사를 초청해 관련된 내용을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었다. 청소년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인 애니메이션과 만화 페스티벌은 청소년 정신 건강을 위해 예술가를 초청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청소년 상담을 위해서도 전문 상담사가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함께 고민해주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성인을 위한 프로그램인 빅 브레인은 일상적인 삶의 사소한 질문에 대한 답을 라디오를 통해 제공하면서 모든 시민이 참여하고, 직접 만들어 가고 있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 구직도우미 프로그램에서는 직업을 구하고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취업준비를 도와주며 전자메일을 통해 관리해 준다.

(2) Southeast

미국 Southeast 지역에 위치한 알라바마(Alabama), 알칸사스(Arkansas), 콜롬비아(District of Columbia), 델라웨어(Delaware), 플로리다(Florida), 조지아(Georgia), 켄터키(Kentucky), 루이지애나(Louisiana), 메릴랜드(Maryland), 미시시피(Mississippi), 북부 캐롤리나(North Carolina), 남부 캐롤리나(South Carolina), 테네시(Tennessee), 버지니아(Virginia), 서부 버지니아(West Virginia) 주(州)의 공공도서관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를 위한 델라웨어 주의 New Castle Public Library의 과학 매니아와 Pinellas Park Public Library의 독서치료 클럽을 운영하고 있고, 청소년을 위한 Burke Country Public Library의 도서/CD 바꿔 읽기/듣기, 성인을 위해 Cecil County Public Library는 D · I · Y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인 과학 매니아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에 다양한 과학실험을 직접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독서치료 클럽은 책 읽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혹은 잘못된 책 읽기 습관을 지닌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이를 교정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인 도서/CD 바꿔 읽기/듣기는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운영되고 있는데, 정해진 날짜에 도서관 입구에 마련된 창구에서는 각자의 도서와 CD를 바꿀 수 있다. 또한, 성인을 위한 프로그램인 D · I · Y는 소규모 비즈니스를 위해 제공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마케팅, 웹사이트 운영, 재정 관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3) Northeast

미국 Northeast 지역에 위치한 코네티컷(Connecticut), 메사추세츠(Massachusetts), 메인(Maine), 뉴햄프셔(New Hampshire), 뉴저지

(New Jersey), 뉴욕(New York), 펜실베이니아(Pennsylvania), 로드 아일랜드(Rhode Island), 버몬트(Vermont) 주(州)의 공공도서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로드 아일랜드 주 Greenville Public Library의 홈 스쿨러를 위한 프로그램이 있고,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뉴저지 주 Princeton Public Library의 프린스턴 환경 필름 페스티벌과 성인을 위한 소규모 경영 SCORE 상담 프로그램이 있다. 어린이를 위한 홈 스쿨러 프로그램에는 연극그룹, 예술교실, 스페인어교실 등이 있는데, 홈 스쿨러는 정규 교육인 학교에 다니지 않고 집에서 교육하는 학생을 말하는 것으로 이들을 위한 별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점이 특색 있었다. 청소년을 위한 프린스턴 학생 필름 · 비디오 페스티벌은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단편 영화(상영시간 20분 정도)를 페스티벌 기간 동안 상영한다. 특히 이 기간 동안 영화감독을 초대해 학생들의 작품을 감상할 기회를 제공하며, 좋은 작품을 만든 학생을 대학에 추천해 주기도 한다. 성인의 소규모 경영을 위한 SCORE 상담에서는 전문 상담가의 조언을 통해 성공적인 경영을 위한 노하우를 전수받고 사업의 시작과 유지, 아이템 선정 등에 관한 실질적인 조언을 얻을 수 있다.

(4) South West

미국 South West 지역에 위치한 아리조나(Arizona), 뉴멕시코(New Mexico), 오кла호마(Oklahoma), 텍사스(Texas) 주(州)의 공공도서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유아를 위한 스토리타임과 엄마와 함께 하는

유아교실을,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은 독서 토론과 만들기, 이야기와 함께 노래를 부르기, 청소년 드라마 즉흥 연기 워크숍 등이 있다. 성인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독서토론 클럽, 여성만을 위해 제공되는 독서교실, 가족과 함께 하는 월요일 저녁 음악교실, 그리고 취미 생활을 위한 니트 만들기 교실이 운영되고 있다.

(5) West

미국 West 지역에 위치한 알래스카(Alaska), 캘리포니아(California), 하와이(Hawaii), 오레곤(Oregon), 워싱턴(Washington) 주의 공공도서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유아 및 유치원을 위한 다양한 스토리타임, 독서클럽, 가족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 초등학생을 위한 숙제 도우미 등을 제공하고 있다.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독서그룹, 유명한 작가와의 만남, 청소년 개별지도 교사 및 숙제 도우미 등을 제공하며, 성인을 위해서는 독서그룹 및 토론, 특정 작가의 책을 읽는 시간 및 작가와의 만남, 영화와 비디오 상영, 유선 교육 및 ESL 회화를 제공하고 있다.

(6) Mountain and Plains States

미국 Mountain and Plains States 지역에 위치한 콜로라도(Colorado), 아이다호(Idaho), 켄사스(Kansas), 몬타나(Montana), 노스다코다(North Dakota), 네브라스카(Nebraska), 네바다(Nevada), 사우스다코다(South Dakota), 유타(Utah), 와이오밍(Wyoming) 주(州)의 공공도서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유아와 유치원생을 위한 스토리타임, 음악과 운동교실, 다양한 손 놀이를 할 수 있는 소꿉놀이, 초등학생 방과 후 클럽 등을 제공하고,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독서클럽, 만화 그리기, 영화 만들기, 미국 대학입학시험인 ACT를 연습할 수 있는 테스트지를 제공하고 있다. 성인을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독서토론, 컴퓨터 교실, 명상 교실, 미스터리 파티, 겨울 독서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다.



나가기 - 시민들, 도서관과 만나다

어느덧 글을 마무리 짓는 시점에 도달하니, 문득 하루 동안 도서관에서 많은 시민들을 만나 준비한 서비스를 하고, 폐관 시간이 되어 자리를 정리한 뒤 도서관을 나서는 느낌이 든다. 그때 사서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아마 피곤이 몰려올 것이므로 어서 가서 쉬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장 먼저 할 것이다. 또한 하루를 돌아보며 혹시 미진했던 부분이 있지는 않았는가에 대해 생각도 해 볼 것이다. 이제 글을 마치는 연구진들처럼.

우리 연구진들은 모두 문헌정보학을 전공했다. 어떤 이는 너무나 하고 싶었기에 주저 없이 선택을 했고, 또 다른 이는 여자의 직업으로 그만하면 괜찮겠다 싶어서 선택을 했다고 한다. 또한 성적에 맞추어 가느라 간 사람도 있고, 부모님의 권유로 선택을 한 사람도 있다. 이처럼 첫 시작은 모두가 다르지만, 어느덧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도서관과 함께 하다 보니, 지금은 그 누구보다도 도서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연구를 하기 위한 팀으로 결성이 된 것이 아닐까 싶다. 비록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하면서 만남을 가져야 했기 때문에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그동안의 경험과 생각들을 나누다 보니 어느덧 한 권의 책으로 정리가 되었다. 일 년이 봄, 여름, 가을, 겨울로 구성되어 순환을 하듯이, 각 연구진의 색깔을 그 안에 담은 것이다. 그렇게 1년을 담은 것이다.

글을 마치면서 아쉬운 점은 분명히 시민들을 위해 좋은 서비스를 실천하고 있는 전국의 도서관들이 많을 텐데, 그 내용을 모두 확인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은 향후 이 연구를 다시 진행하는 연구진들에게 맡길까 한다. 또한 각 시군의 도서관마다, 사서들마다의 고충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을 따듯

한 말로 위로하지 못한 것도 마음에 걸린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그들, 바로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도서관은 존재한다.

우리의 연구는 시민들에게로 향해 있었다. 따라서 도서관이 중심이 되어 어떻게 하면 시민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지, 어떤 방안을 모색해야 도서관다운 색깔을 펼치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 계속적으로 탐구했다. 비록 아직은 도서관에서 실시할 수 없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접목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 특정 계절이나 월에 맞지 않아 보인다고 하더라도 응용을 해주시기 바란다. 만약 이한 권의 책에 정리된 내용들이 경기도를 넘어 전국의 여러 도서관에서 실행된다면, 연구진들은 그동안의 노고가 오히려 큰 기쁨으로 다가올 것이다.

마지막으로 도서관 총서를 집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경기도사이버도서관과, 운영 사례들을 기꺼이 제공해 주신 여러 도서관 담당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올린다.

평생 도서관인으로 남고 싶은

연구진 일동



부록-1년 행사 달력

2012 1 JANUARY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신정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다이어리 데이
15	16	17	18	19	20	21 대한
22	23 설날	24	25	26	27	28
29	30	31				

2012 2 FEBRUARY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세계 습지의 날	3	4 입춘
5	6 대보름	7	8 2.8 독립선언일	9	10	11
12	13	14 발렌타인 데이	15	16	17	18
19 우수	20	21	22	23	24	25
26 강화도 조약 체결일	27	28	29			

2012 3 MARCH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삼일절	2	3 납세자의 날 삼겹살데이
4	5 경칩	6	7	8 세계여성의 날	9	10
11	12	13 해운의 날	14 화이트데이 파이데이	15	16	17
18	19	20 춘분	21 암예방의 날 국제인종 차별해소의 날 상공의 날	22 세계 물의 날	23 세계 기상의 날	24 삼진날 세계결핵의 날
25	26	27	28	29	30	31

2012 4 APRIL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민우절	2 세계 자폐증 인식의 날	3 제주 4.3사건	4 정신건강의 날 청명	5 식목일 · 한식	6 항토 예비군의 날	7 신문의 날 보건의 날
8	9	10	11	12 도서관 주간	13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	14 블랙데이
15	16	17	18	19 4 · 19 혁명 기념일	20 곡우 장애인의날	21 과학의 날
22 지구의 날 정보통신의 날 새마을의 날	23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	24	25 법의 날 세계 말라리아의 날	26 세계 지적 재산권의 날	27	28 충무공 탄신일
29	30					

2012 5 MAY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근로자의 날	2 오이데이 오리데이	3 세계 언론자유 의 날	4	5 어린이날 입하
6	7	8 어버이날 적십자의 날	9	10	11 입양의 날	12 자동차의 날
13	14 로즈데이 식품 안전의 날 세계 공정무역의 날	15 스승의 날 세계 가정의 날	16	17 세계 원거리 통신의 날	18 5·18민주화 운동 기념일	19 발명의 날
20 세계인의 날	21 부부의 날 소만 성년의 날	22 가정위탁의 날 생물종다양성 보존의 날 권농의 날	23	24	25 방재의 날 실종 아동이 날	26
27	28 석가탄신일	29	30	31 바다의 날 세계 금연의 날		

2012 6 JUNE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세계우유의 날	2
3	4 국제전쟁 희생아동의 날	5 세계 환경의 날 망종	6 현충일	7	8	9 치아의 날
10 6·10민주 항쟁기념일	11	12 세계아동 노동반대의 날	13	14 키스데이	15 세계노인학대 인식의 날	16
17 세계 사막화 방지의 날	18 건설의 날	19	20 세계난민의 날	21 하지	22	23
24 단오	25 6·25한국전쟁	26	27	28	29	30

2012 7 JULY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전매의 날	2	3	4	5	6	7 소서
8	9	10	11 세계인구의 날	12	13	14 실버데이
15	16	17 제헌절	18 초복	19	20	21
22 대서	23	24	25	26	27	28 중복
29	30	31				

2012 8 AUGUST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유두절	3	4
5	6	7 말복 입추	8	9	10	11
12 이산가족의 날	13	14 그린데이 · 뮤직데이	15 광복절	16	17	18
19	20	21	22 에너지의 날	23 야구의 날 · 처서	24 칠석	25
26	27	28	29	30	31	

2012 9 SEPTEMBER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통계의 날
2	3	4 콜레스테롤의 날	5	6 자원 순환의 날	7 사회복지의 날 · 백로	8
9 구구데이	10 해양경찰의 날 세계자살예방의 날	11	12	13	14 포토데이	15
16 세계 오존층 보호의 날	17	18 철도의 날	19	20	21	22 추분 승용차 없는 날
23/30 추석	24	25	26 세계 피임의 날	27 관광의 날	28	29

2012 10 OCTOBER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국군의 날	2 노인의 날	3 개천절	4 천사데이	5 교과서의 날 세계 한인의 날	6
7	8 한로 재향 군인의 날	9 한글날	10 임산부의 날 한방의 날	11	12	13
14 와인데이	15 체육의 날 흰 지팡이의 날	16	17	18 산의 날	19	20 초경의 날 세계 통계인의 날
21 경찰의 날	22	23 상강	24 국제연합일 사과데이	25 독도의 날	26	27 영화의 날
28 교정의 날	29	30	31 할로윈 데이			

2012 11 NOVEMBER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3 만화의 날 학생독립 운동기념일
4	5	6	7 입동	8	9 소방의 날	10
11 농업인의 날 지체장애인의 날 해군창설기념일 가래떡 · 뽕빼로데이	12	13	14 쿠키데이 · 무비데이	15	16	17 순국선열의 날
18	19	20	21	22 소설	23	24
25	26	27	28	29	30 무역의 날	

2012 12 DECEMBER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세계 에이즈의 날
2	3 세계 장애인의날 소비자의 날	4	5 세계지원 봉사자의 날 국민교육 현장선포기념일	6	7	8
9	10 세계인권 선언기념일	11	12	13	14 허그데이	15
16	17	18 세계 이주민의 날	19	20	21 동지	22
23/30	24/31	25 크리스마스	26	27	28	29

부록 - 도서관 행사 달력

계절	월	일	기념일	도서관 행사	관련 페이지
봄	3	1	3·1절	독립운동가 추모 전시회, 도서관 자원봉사자 대표 발대식	73-74
		8	세계 여성의 날	여성이 여성에게 고하다 (특강)	75-77
		22	세계 물의 날	물 찾아 가는 길	77-79
	4	1	만우절	도서관 선정 10대 거짓말 전시	80-81
		12-18	도서관 주간	작가 초청 강연, 동화 구연 등	83-85
		20	장애인의 날	사랑의 녹음도서	86-87
		23	세계 책의 날	저작권 특강, 책 기증하기 및 책 보내기 운동	82-83
	5	1	근로자의 날	나의 진로 내가 선택하기	88-89
		5(혹은 6일)	입하	손 글씨 담은 부채 만들기	96-97
		8	어버이날	도서관 기념사진	92-93
		20	세계인의 날	인권 영화 상영회	97-99
		셋째 월요일	성년의 날	빨간 책 전시회	93-95
		31	세계 금연의 날	금연 캠페인	95
여름	6	1	세계 우유의 날	우유, 도서관을 적시다	115-116
		9	치아의 날	보건소와 함께 찾아가는 치아 건강 교실	116-117
		18	건설의 날	아름다운 도서관 전시회	117-118
	7	음력 6-7월	초복 및 중복, 말복	도서관에서의 1박 2일	120-122
	8	22	에너지의 날	한 등 아래 책읽기	123-125

가을	9	1	통계의 날	우리 도서관을 빛낸 100명의 시민들	139-140
		8	세계 문해의 날	(도인복지관) 연계 어르신께 들려드리는 구연동화, 자서전에 담은 나의 인생	141-142
	10	1	세계 노인의 날	실버의 행복 도서관과 함께해요, 나만의 책 만들기 : 자서전 쓰기	143-146
		5	교과서의 날	추억의 교과서 전시회	146-147
		10	임산부의 날	태교 독서	148-149
		25	독도의 날	독도 플래시 몹	149-150
		28	교정의 날	찾아가는 독서치료 프로그램	150-151
		31	할로윈 데이	잭-오-랜턴(Jack O' Lantern) 밝히기, 무서운 이야기 콘테스트	151-153
	11	3	학생독립운동기념일	학생 토론대회	153-154
		3	만화의 날	좋은 만화 전시회	154-155
		11	지체 장애인의 날	도서관에서의 장애인 서비스 홍보 활동	155-156
		22(혹은 23일)	소설	소설(小雪)에 쓰는 사랑의 소설(fiction)	157
겨울	12	1	세계 에이즈의 날	건강 전시회 및 특강	36-37
		3	소비자의 날	도서관 베품시장, 도서관 쿠폰 발행 및 마일리지제도 시행	37-40
		5	세계 자원봉사자의 날	자원봉사자 축제 등	40-41
		10	세계인권선언기념일	다문화 엄마들이 읽어주는 그림책, 초·중·고등학생과 다문화 학생의 만남(멘토링)	41-43
		25	크리스마스	산타클로스가 된 사서, 새벽송은 도서관을 신고	43-46
	1	첫째 주		독서교실 운영	46-48
	2	4	입춘	입춘방 입춘첩 써주기	49-50
		14	밸런타인데이	사랑의 책 만들기	51-53

경기도도서관총서7

겨울 · 봄 · 여름 · 가을, 그리고 도서관

— 시기별 도서관 서비스 방안 —

2012년 1월 20일 발행

지은이 | 임성관 · 서성남 · 이한숙 · 이계숙 · 이송자

발행처 | 경기도사이버도서관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신평로 23번길 68(신평동 123-69)

연락처 | Tel. 031)249-5237 Fax. 031)246-4021

제작 · 편집 | 에원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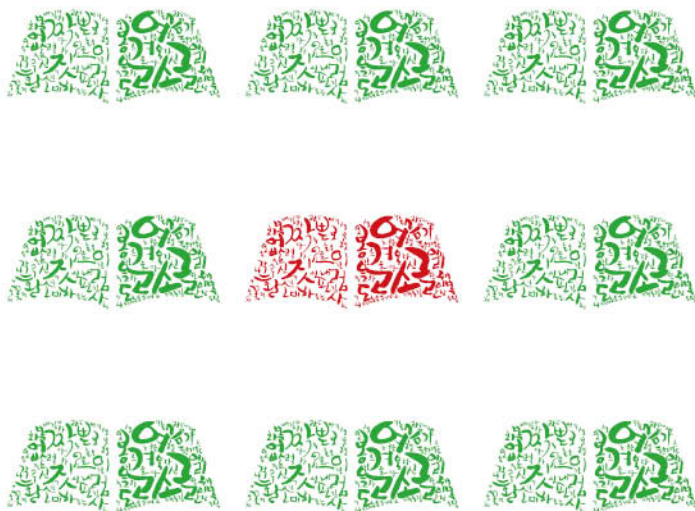
※ 이책의 판권은 경기도에 있습니다.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문의가 있으시면 031)249-5237로 연락주십시오.

※ 총서의 원문은 경기도 사이버도서관 홈페이지(www.library.kr)에서 서비스됩니다.

ISBN 978-89-93395-28-0 14010

ISBN 978-89-93395-06-8 (세트)



겨울 · 봄 · 여름 · 가을
그리고 **사랑들**

비매품



ISBN 978-89-93395-28-0
ISBN 978-89-93395-06-8